

총괄

이진면(연구위원)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국내경제 황진태(부연구위원)

금융경제 변혜원(부연구위원)

최이섭(연구원)

국내보험시장 동향

황진태(부연구위원)

이경희(전문연구위원)

박정희·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해외보험시장 동향

이정환(선임연구원)

박정희·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이정환(선임연구원)

박정희·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보 험 동 향

2009년 가을호

이번 호부터는 국내외 보험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고자 글로벌 보험 시장을 분석한 「해외보험시장 동향」과 금융 관련 뉴스를 시간별로 정리·요약한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를 신설합니다.

지난 호까지 제공하던 「국내제도 동향」과 「해외제도 동향」은 시의성을 고려하여 KiRi Weekly의 금융 뉴스를 통해 매주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목 차

테마진단	1
보험회사의 내재가치 공시 현황 및 활용: 주식가치평가를 중심으로	1
신종플루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30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전망	44
경제금융 동향	59
1. 세계경제	59
2. 국내경제	79
3. 금융경제	89
국내보험시장 동향	97
1. 보험산업 총괄	97
2. 생명보험	99
3. 손해보험	111
해외보험시장 동향	129
미국 동향	130
일본 동향	138
중국 동향	146
유럽 동향	153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163
통계표	177

테 마 진 단

◆ 보험회사의 내재가치 공시 현황 및 활용: 주식이치평가를 중심으로

이 경 희 전문연구위원, 김 세 중 책임연구위원

1. 문제제기

최근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내재가치 지표를 기업설명회 차원에서 공시하기 시작함에 따라 내재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내재가치 공시 현황 및 내재가치와 기업가치 간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내재가치 공시 및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1980년대 영국에서부터 측정되기 시작한 장기보험(long-term business)에 대한 내재가치(EV: embedded value)는 그 유용성으로 인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적정 주가 판단의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음¹⁾.

○ 내재가치 정보는 유럽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일반인에게 공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상장된 대형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내재가치를 발표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국내 보험회사들도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확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회사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공정한 평가를 받는 과정이 중요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공시된 내재가치는 보험회사의 주가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는데, 2009년 하반기 동양생명의 상장을 계기로 향후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주가 평가 수

1) 내부적으로는 상품·보종별 수익성·자본배분, 최고 경영진의 인센티브 결정 등에 활용되며, 외부적으로는 M&A, 가용자본 추정, 회사 간 비교, 애널리스트 및 신용평가회사의 재무상태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음.

단으로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내재가치 활용이 보편화된 해외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내재가치 측정 및 공시 현황, 내재가치 공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해외 보험회사의 경우 내재가치 발전 과정 및 실증분석 사례를 통해 내재가치 정보와 주가 간 상관성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내재가치 공시 내용 및 기술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선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내재가치 정보가 주가 평가의 보조지표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내재가치 측정 방식 및 해외 보험회사의 공시

보험회사의 가치평가방식으로서 내재가치는 2000년 이후 유럽, 아시아, 캐나다 등에서 활발하게 측정되어 공시되고 있음. 유럽 보험회사들은 자율적으로 내재가치 관련 기준을 제정하여 내재가치 산출 결과뿐만 아니라 기본 가정의 산출 방법·주요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등을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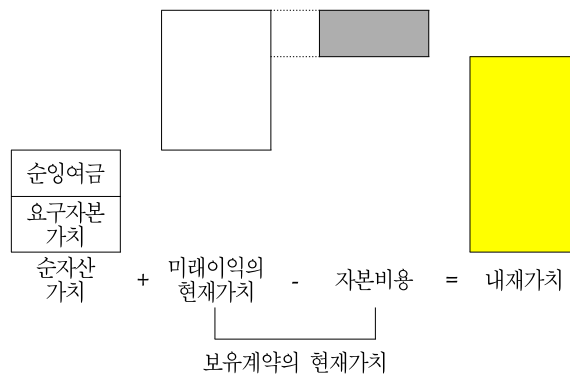
가. 내재가치의 측정 방식 및 활용

- 내재가치는 보험회사 주주 이익의 현재가치로 정의할 수 있는데, 조정순자산가치(ANW: adjusted net worth)와 보유계약의 현재가치(PVIF: present value of in-force business)로 구성됨.
- 조정순자산가치란 순잉여금(free surplus)가치와 요구자본(required capital)²⁾가치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부상의 자기자본에서 준비금, 무형자산 가치 등을 조정하여 계산함.
- 순잉여금가치는 주주 배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기자본으로서 요구자본과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의 시장가치를 의미함.

-
- 2)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최저지급능력(minimum statutory solvency requirement) 수준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요구자본은 감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추가적인 자본이므로 주주에게 배분이 제한되어 있음.

- 요구자본가치란 요구자본에서 자본비용(cost of holding required capital)³⁾을 차감한 값을 의미함.
- 보유계약의 현재가치는 보유계약에서 발생하는 미래 세후이익의 현재가치에서 자본비용의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함.

<그림 1> 내재가치의 구성



- 내재가치 결과는 장래 현금흐름 산출을 위해 사용된 가정들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데, 주요 가정은 경제적 가정과 계리적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경제적 가정은 일반적으로 현재 및 장래 경제 환경과 관련되는데, 예를 들면, 장래 투자이익률, 시장금리, 할인율(RDR: risk discount rate)⁴⁾, 기대 배당률, 인플레이션 등이 해당됨.
- 계리적 가정은 현재 및 장래 보험회사의 경영 환경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각종 위험률(사망률, 입원율, 생존율 등), 해약률(유지율), 사업비율(인플레이션 배제, 신계약비·유지비·수급비), 계약자 행동, 신용등급 전략 등이 해당됨.
- 보험회사의 가치평가 방식으로서 내재가치가 도입된 배경은 생명보험 상품에 내재된 현금흐름의 장기성으로 인해 제무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전통적인 평가 방식이 보험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

3) 요구자본에 할당된 자산의 기대수익률은 주주가 요구하는 수익률(RDR: risk discount rate)이 아니라 투자이익률이 되므로 자본비용은 “요구자본×(할인율-투자이익률)”로 산출됨.
 4) 투자한 자본에 대해 주주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임.

-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식의 단점은 단기적인 현금흐름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생명보험, 연금과 같이 장기 현금흐름을 가진 상품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 예를 들면, 보수적인 책임준비금 책정 시 신계약 증가가 영업실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신사업 분야의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가 저평가될 수도 있음.
 - 또한, 전통적인 손익 측정 방식은 자본의 활용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각국마다 상이한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의 가치를 비교하는 데 한계를 가짐.
- <그림 1>은 전통형 내재가치(TEV: traditional EV) 구성 내역을 예시한 것으로 전통형 내재가치 측정 방식은 이후 유럽형 내재가치(EEV: european EV)로 발전되고, 다시 시장기준 내재가치(MCEV: market consistent EV)로 진화됨.
- 전통형 내재가치 측정 방식의 경우 가정들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회사 간 비교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2000년 주식시장 침체 후 그 전까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던 금융옵션이나 보증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보공시에 대한 요구도 제기됨.
 - 이에 따라 내재가치 측정에 관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리스크를 감안한 내재가치 측정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4년 유럽 대형보험회사의 최고재무관리자 모임인 CFO Forum에서 유럽형 내재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 유럽형 내재가치는 자의성 개입 여지가 가장 큰 할인율에 대한 산출 원칙을 제시하고 산출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금융옵션과 보증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서 내재가치를 측정하도록 함.
 - 2008년 6월 발표된 시장기준 내재가치 측정 방식은 국제회계기준, Solvency II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개념으로서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할인율(무위험 수익률)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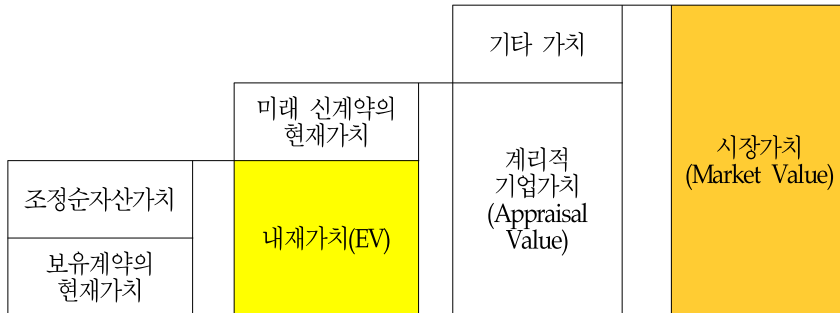
<표 1> 내재가치의 변천 과정

전통형 내재가치(TEV)	유럽형 내재가치(EEV)	시장기준 내재가치(MCEV)
○ 명시적 가이드라인 없음 -회사마다 산출방법, 공시 등을 달리 적용하여 비교 불가능 ○ 결정론적 방식에 의한 산출 -옵션보증가치와 같은 리스크를 할인율에 반영했는지 여부가 불투명	○ 2004년 5월 CFO Forum EEV Principles 공표 -2005 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적용 중 ○ 금융옵션과 보증가치의 명시적 측정 ○ 할인율 산출원칙 제시 및 산출 방법 공시 의무화 ○ 공시 의무화 -최저 공시기준 설정 및 비교가능성 제고	○ 2008년 6월 CFO Forum MCEV Principles 공표 -2009년 12월부터 적용 예정 ○ Market-consistent 개념 도입 -할인율을 무위험수익률로 통일 -위험중립평가방법 적용

자료: 보험개발원, 내재가치 산출방법 변화 및 활용방안, 2008.7.2.에서 수정 작성함.

- 내재가치는 정의상 주주에게 귀속되는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므로 보험회사의 시장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
- 내재가치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큰 미래 신계약가치가 포함되지 않는데, 내재가치에 미래 신계약의 현재가치를 합산하면 계리적기업가치(AV: appraisal value)를 산출할 수 있으며 시장가치(MV: market value)는 계리적기업가치와 기타 가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
-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험회사의 시장가치는 내재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2> 보험회사의 내재가치와 시장가치 간 관계



자료: Towers Perrin(2001).

- 원래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단계에서 손익의 판단 근거로서 사용되던 내재가치가 점차 M&A를 위한 가치평가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회사 간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럽형 내재가치 실적 공시를 계기로 주가가치 평가에도 활용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주가가치 평가는 내재가치 자체에 적정배수(multiple)인 P/EV(price to EV per share)를 곱하는 방식으로 측정됨.
- 외국에서는 내재가치가 주가가치와 상당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음(Horton, 2006; Serafeim, 2008).
- 내재가치 산출 모형에는 주가 변동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들(예: 주주의 행동, 주가 변동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 등)이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내재가치 변동을 통해 정확한 주가 변동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함(Tremblay, 2006).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가치 산출은 주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게 주가를 추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원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나. 해외 보험회사의 내재가치 공시 현황

- 내재가치 측정 결과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외부 공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내재가치는 보충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

문에 공시 역시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⁵⁾.

- 유럽의 경우 유럽형 내재가치 측정을 계기로 업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시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대형 보험회사들은 이를 준수함⁶⁾.

- 이에 따라 유럽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과 호주 보험회사들은 주로 사업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내재가치 관련 상세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음(구체적 사례에 대한 예시는 <부록> 참조).

- 캐나다의 경우 내재가치 공표를 요구하는 규제당국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보험 감독기관(OSFI: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의 권고에 따라 2001년부터 보험회사들이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음.

□ 유럽형 내재가치의 작성 기준 및 공시 내용은 CFO 포럼의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 내재가치 결과와 같은 기본 정보 외에 기본 가정의 구체적인 산출방법과 그 가정의 변동에 의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으로 이루어짐.

- CFO Forum에서 요구하는 주요 공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핵심 가정
- 가정 설정 방법
- 측정 방법론
- 원천별 내재가치
- 순잉여금 변동 분석
- 핵심 가정의 민감도

- 민감도 분석에 대한 CFO Forum 지침은 다음과 같음.

- 5) 내재가치는 재무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 6) 유럽의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유럽형 내재가치 측정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2008년 CFO Forum에서 시장기준 내재가치에 대한 측정 기준을 발표한 이후 시장기준 내재가치를 공시하는 회사 또는 공시를 준비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해 시장기준 내재가치의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장기준 내재가치로의 공시 기준 변경은 다소 유보적인 상황임.

- 할인율: +100bp
- 투자이익률: -100bp
- 주가 및 부동산 가치: -10%
- 주가 및 부동산 투자이익률: +100bp
- 해약률: -10%
- 사망률, 입원율: -5%

□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유럽에 기반을 둔 다국적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내재가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2007년 3월 기준 10개사 이상의 보험회사가 내재가치를 공시하고 있고, 중국, 인도 등 기타 국가에서도 내재가치 측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보험회사들 중에는 손해보험재팬과 그 생명보험 자회사인 히마와리생명, 다이이치생명, 소니생명, T&D Holdings 등이 내재가치를 공시하고 있음.

<표 2> 내재가치 공시 연표

연 도	기 관	주요 사건
1959	SOA paper	내재가치와 유사한 개념 소개
1984	Royal Life	전통형 내재가치 공시
1987~1994	Black Horse Life, Prudential, Legal&General 등	영국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내재가치 공시
1994~2004	INA (이탈리아), Skandia(스웨덴), AMP(호주), CNP(프랑스), AXA(프랑스), ING(네덜란드), Industrial Alliance Group(캐나다) 등	유럽, 호주, 남아프리카, 캐나다 등에 기반을 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내재가치 발표 확산
2004	유럽 CFO Forum	유럽형 내재가치(EEV) 기준 발표
2005	AVIVA	최초로 EEV기준 내재가치 발표
2004~2008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대만 등	아시아 지역 내재가치 발표 확산
2008	CFO Frum	시장기준 내재가치(MCEV) 기준 발표
2008년 말	Alliantz, AVIVA 등	MCEV기준 내재가치 발표

자료: Towers Perrin 등

-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장기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내재가치를 공시하고 있음.

-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생명, 태평양생명, 평안생명 등이 내재가치를 공시하고 있으며, 중국보험감독당국은 2005년 9월 “내재가치 보고 제도 지침”을 마련함.
- 이 밖에도 홍콩의 HSBC, 인도의 맥스뉴욕생명, 대만의 캐세이홀딩스, Shin Kong 등이 전통형 내재가치 방식에 따라 산출된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3.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내재가치 측정 및 공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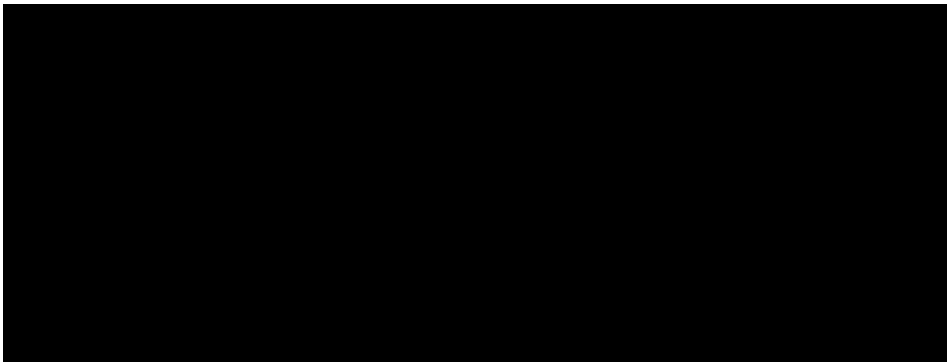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장기계약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내재가치 지표를 측정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활용 초기 단계로서 회사별 측정 기준과 공시 내역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임.

가. 측정 현황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FY2002 삼성화재에서 최초로 내재가치 실적을 공시한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09년 들어서는 5개사가 내재가치 관련 정보를 공시함.
- 전체 원수보험료 중 장기손해보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FY1992에는 29.9%에 불과하였으나, FY2000과 FY2008에는 각각 47.1%, 56.5%로 높아지고, 다시 FY2009 1/4분기에는 58.0%로 높아짐.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장기보험 비중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외국에서는 주로 생명보험회사의 가치평가에 활용되는 내재가치 관련 정보를 자발적으로 외부에 공시하게 된 것임.
- 이러한 현상은 이미 상장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업가치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분기 기준으로 내재가치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선진 보험회사와 달리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연간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음.
- 공시하는 방식도 사업보고서에 내재가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결산 후 매년 6월~9월 무렵 회사 자율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발표하는 내재가치는 유럽형 내재가치나 시장기준 내재가치가 아닌 전통형 내재가치임7).
- 공시 내용은 내재가치 분석 결과, 전년 대비 내재가치 변동 내역, 주요 가정 변화에 대한 내재가치 민감도 분석 및 주요 가정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루어짐.
-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공표한 FY2008 내재가치 실적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당기손익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3개사의 내재가치가 큰 폭(18.6~26.0%)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회계적 이익인 당기손익은 크게 감소한 반면,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이익 개념인 내재가치 실적은 증대된 데 따른 것임.
- 당기손익이 크게 감소한 회사의 경우에도 당기손익 감소율 대비 내재가치 감소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당기손익 증가율과 내재가치 증가율 비교(FY2008)



자료: 각 사 내재가치 공시 자료
금감원, 금융통계시스템

7) 일부사는 전통형 내재가치에서 금융옵션과 보증비용(금리연동형 및 추가연계형 상품에서 발생하는 최저보증)을 제외한 유럽형 내재가치 수치도 전통형 내재가치와 함께 발표하기 시작하였음.

□ 각 사가 발표한 FY2008 기준 회사별 내재가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장래 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의 원천이 상당히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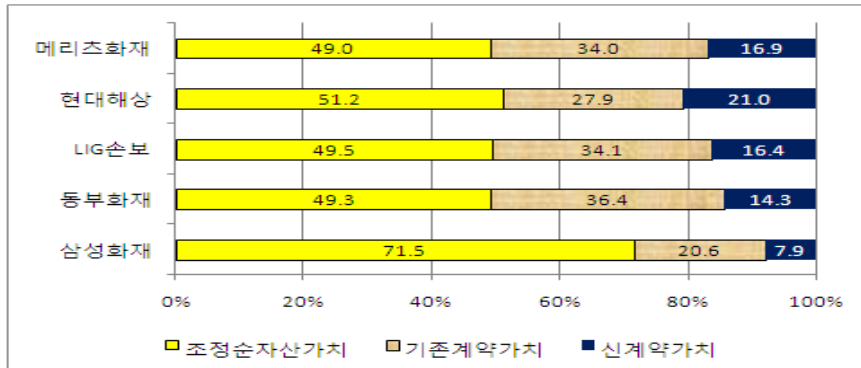
- 삼성화재의 경우 조정순자산가치가 보유계약가치의 2.5배에 달하는데 비해, 나머지 4개사는 양자가 거의 유사한 수준임.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내재가치 구성 항목 중 당해 연도에 체결된 신계약 가치가 매우 큰 비중(7.9~21.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신계약이 내재가치 증가의 원천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가치 증대는 주로 장기보험 신계약에 의존함을 알 수 있음.

<표 3> 국내 손해보험회사 내재가치 공시 현황(FY2008)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1. 조 정 순 자 산 가 치	45,760	10,812	8,343	10,598	5,349
2. 보 유 계 약 가 치	18,277	11,128	8,508	10,120	5,562
미 래 이 익 현 가	24,446	-	11,100	12,549	7,428
자 본 비 용	6,169	-	2,592	2,429	1,866
기존계약가치(FY08 신계약 제외)	13,199	7,982	5,749	5,779	3,713
미래이익현가	18,422	-	7,694	7,600	5,125
자본비용	5,223	-	1,945	1,821	1,412
신계약가치(FY'08 신계약)	5,078	3,146	2,759	4,341	1,849
미래이익현가	6,024	-	3,406	4,949	2,303
자본비용	946	-	647	608	454
3. 내 재 가 치	64,037	21,940	16,851	20,718	10,911
외부 계리법인 검증/공동작업 여부	Milliman 검증 실시	Milliman 과 작업 수행	Watson Wyatt와 공동작업*	-	Towers perrin 검토

주: * FY2007 기준
자료: 각 사 공시 자료

<그림 4> 회사별 내재가치 구성 내역 비교(FY2008)



자료: 각 사 내재가치 공시 자료

나. 주요 가정 및 민감도 분석 공시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내재가치 산출 시 적용한 경제적 가정으로서 할인율, 투자이익률, 자본비용 및 인플레이션을 공시하고 있음.

- 할인율은 주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⁸⁾ 방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으로 파악됨.
- 투자이익률의 경우 일부사는 직전 3년간 자사의 장기보험 운용자산 이익률 평균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는 장기보험 운용자산 이익률뿐만 아니라 시장 수익률(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등) 분석을 반영하여 투자이익률을 설정함.
- 자본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상 지급여력 기준금액⁹⁾의 150%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일부사는 200%를 적용함으로써 더 보수적으로 자본비용을 측정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3% 수준을 적용하나 특정사는 3.7%를 가정함.

8) $E(R_i) = R_f + \beta_i \times [E(R_m) - R_f]$, $E(R_i)$ =회사별 기대수익률, R_f =무위험 수익률, R_m =시장 수익률, $E(R_m) - R_f$ =리스크 프리미엄, $\beta_i = \frac{Cov(r_i, r_m)}{\sigma_m^2}$

9) $\text{Max}[\text{위험보험료} \times 17.8\%, \text{발생손해액} \times 25.2\%] + (\text{장기보험 책임준비금} \times 4\%)$

-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내재가치 산출 시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은 유지율(해약률), 손해율, 사업비율이며, 이들 가정은 주로 자사의 과거 경험 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함.
- 유지율은 경험 통계(1년, 3년, 5년)를 적용하는 데 납입방법별(일시납/비일시납), 판매채널별(설계사/대리점/방카슈랑스 등), 상품별(연금/상해 등)로 구분하여 경과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함.
 - 손해율 역시 경험 통계(3년, 5년, 6년)를 담보별, 판매채널별, 시장별로 구분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함.
 - 사업비율은 주로 직전 1년간 실제 사업비를 적용하는데, 판매채널·상품·담보에 따라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하여 적용함.

<표 4> 국내 손해보험회사 내재가치 산출 관련 가정(FY2008)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경제적 가정	할인율	11.0% CAPM방식	11.0% CAPM방식	11.0% CAPM방식	11.19% CAPM방식	11.5% CAPM방식
	투자이익률	5.16% 장기보험 투자이익률 과 시장금리	5.33% ^a	5.19% 장기보험 투자 이익률 3년 평균	5.16% 장기보험 투자 이익률 3년 평균	5.00
	자본비용	지급여력 기준금액 ×150%	지급여력 기준금액 ×200%	지급여력 기준금액 ×150%	지급여력 기준금액 ×150%	지급여력 기준금액 ×150%
	인플레이션	3.0%	3.7% ^b	3.0%	3.0%	3.0%
계리적 가정	유지율 (해약률)		1년실적치 납입방법×채 널×상품별× 경과기간	5년경험통계 채널 및 시 장에 따라 17개로 분류	3년경험통계 납입방법× 채널×상품 별 경과기간	3년경험통계 상품×판매채 널별 적용
	손해율		3년경험통계 12개 담보× 경과기간	5년경험통계 채널 및 시 장에 따라 구분 적용	5년경험통계 담보별 최종 손해율	6년경험통계 담보별 16개 그룹으로 구분
	사업비율		1년실적치 채널×상품× 담보	1년실적치 채널 및 시 장에 따라 분류	1년경험통계	1년경험통계

주: a) 자산유형별 벤치마크 수익률과 자사의 투자이익률 대비 스프레드 모델로 추정

b)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제에 적용되는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의 3년 평균

자료: 각사 내재가치 공시 자료

- FY2008 내재가치를 발표한 회사 중 3개사는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계리법인의 검증 혹은 공동 작업을 거친 것으로 파악됨(<표 3> 참조)¹⁰⁾.
- 이에 따라 내재가치 발표 초기에 비해 측정 방법이 좀 더 정교해지고, 회사 간 비교가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회사별 경제적 가정과 계리적 가정이 상이하고,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비교는 어려운 상황임.
- FY2008 내재가치를 발표한 각 사는 민감도 분석으로서 할인율, 투자이익률, 유지율 및 손해율 변동에 따른 내재가치 증감액을 공시하고 있는데, 주요 가정의 변동 폭 역시 내재가치 산출 관련 기본 가정과 마찬가지로 회사별로 상이함.
- 할인율의 경우 모든 회사가 $\pm 100\text{bp}$ 변동 시 내재가치 증감액을 공시하고 있음.
 - 반면, 투자이익률의 경우 대부분이 $\pm 50\text{bp}$ 변동에 대해 내재가치 증감액을 공시하지만 일부사는 $\pm 25\text{bp}$ 변동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유지율 역시 대부분의 회사가 $\pm 10\%$ 변동 시 내재가치 변동을 공시하지만, 일부사는 $\pm 1\text{p}$, $\pm 10\text{p}$ 변동 시 정보를 공시함.
 - 손해율은 $\pm 5\text{p}$, $\pm 5\%$, $\pm 10\%$ 등 회사별로 민감도 분석 가정이 매우 상이함.
 - 1개사는 사업비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발표함.

<표 5> 국내 손해보험회사 내재가치의 민감도 분석(FY2008)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할인율	$\pm 100\text{bp}$	$\pm 100\text{bp}$	$\pm 100\text{bp}$	$\pm 100\text{bp}$	-
투자이익률	$\pm 50\text{bp}$	$\pm 50\text{bp}$	$\pm 25\text{bp}$	$\pm 50\text{bp}$	$\pm 50\text{bp}$
유지율	$\pm 1\text{p}$	$\pm 10\%$	$\pm 10\text{p}^*$	$\pm 10\%^*$	$\pm 10\%$
손해율	$\pm 5\text{p}$	$\pm 5\%$	$\pm 5\text{p}$	$\pm 5\%$	$\pm 10\%$
사업비율	-	-	-	-	$\pm 10\%$

주: *는 해약률 기준
자료: 각사 내재가치 공시 자료

10) LIG손보의 경우 FY2007에 외부 컨설팅사와 공동작업을 한 바 있음.

- 유럽형 내재가치 기준 민감도 분석과 비교할 때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민감도 분석은 회사 간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주가 및 부동산 가치 변동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음.
- 투자이익률의 경우 유럽형 내재가치 기준에서는 100bp 하락 시 내재가치 변동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데 비해, 국내의 경우 회사별로 25~50bp 상승 및 하락 시 내재가치 변동에 대한 정보를 공시함.
 - 계약 유지 관련 민감도 분석에서도 유럽형 내재가치 기준에서는 해약률이 10% 하락할 경우 정보를 공시하는 데 비해, 국내의 경우 회사별로 변동 기준이 유지율/해약률로 상이함.
 - 동일한 유지율 기준일 경우에도 변동 폭이 $\pm 1\%p$, $\pm 10\%$ 로 회사 간 상이함.
 - 유럽형 내재가치 기준에서는 주가 및 부동산 시장가치의 10% 하락, 주가 및 부동산 투자이익률의 100bp 상승 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비해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표 6> 민감도 분석 기준 비교(유럽 보험회사 vs. 국내 손해보험회사)

	유럽 보험회사 (CFO 포럼 지침)	국내 손해보험회사
할인율	+100bp	$\pm 100bp$
투자이익률	-100bp	$\pm 25 \sim \pm 50bp$
유지율(해약률)	-10% 해약률로 통일	$\pm 1\%p$, $\pm 10\%p$, $\pm 10\%$ 회사별로 유지율/해약률 선택
손해율(위험률)	-5%	$\pm 5\%p$, $\pm 5\%$, $\pm 10\%$
주가 및 부동산 가치	-10%	없음
주가 및 부동산 투자이익률	+100bp	없음

자료: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2009)

각사 내재가치 공시 자료

4. 내재가치 공시와 주가와 의 관계 분석

가. 해외 보험회사의 사례

- 내재가치 공시 효과에 대한 해외 연구는 주로 경제적 효용성 검증, 주가 변동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Horton(2006)은 영국 생명보험회사의 2000~2004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 중심의 평가방식(realistic reporting) 즉, 내재가치가 주식가치와 관련성을 갖는가에 대해 실증분석 하였는데 평균적으로 P/EV 배수가 1.45 수준으로 파악됨.
- 생명보험회사 8사 및 은행계 방카슈랑스회사 2사를 대상으로 44개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함.
- 대상 기간 평균 내재가치 대비 시장가치 배수는 회사별로 0.849~2.447 구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사 평균은 1.450 수준임.

<표 7> 영국 보험회사의 P/EV(2000~2004)

회사명	데이터 수	P/EV
Aviva	5	1.207
Britannic Assurance	5	0.849
Country-Wide Assurance	5	2.410
Friends Provident	4	0.935
HBOS	3	1.822
Legal and General	5	1.289
Lloyds TSB Group	3	2.447
Old Mutual	5	1.043
Prudential	5	1.390
St.James's Place	4	1.579
평균	44	1.450
표준편차		0.714

자료: Horton(2006)

- Horton(2006)은 감독 목적의 회계기준으로 수정된 장부가치와 손익을 통제한 후 장기보험의 보유계약가치가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와 같은 회귀식으로 추정하였음.

$$MVE_{it+3months} = \alpha_0 + \beta_1 MSSBK_{it} + \beta_2 MSSERN_{it} + \beta_3 IFLTB_{it} + \beta_4 APLFBT_{it} + \epsilon_{it}$$

$MVE_{it+3months}$: 3개월 후 i 보험회사의 시장가치

$MSSBK_{it}$: 감독 목적의 회계 기준으로 수정된 i 보험회사의 t 시점 자본 및 순이익의

장부가치

$MSSERN_{it}$: 감독 목적의 회계 기준으로 수정된 i 보험회사의 t 시점 생명보험 및 손해 보험 부문 합산 손익

$IFLTB_{it}$: i 보험회사의 t 시점 장기보험 부문의 추가적인 보유계약가치(additional PVIF)를 나타내는 자산

$APLFBT_{it}$: i 보험회사의 t 시점 생명보험 부문 실현 손익

- 추정 결과 보유계약가치는 감독 목적의 재무지표보다 시장가치와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표 8> 좌측 참조).
- 동일한 회귀식에 대해 1주당 가치 기준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보유계약가치의 주가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8> 우측 참조).

<표 8> 영국 보험회사의 시장가치와 내재가치 간 분석 결과(2000~2004)

	시장가치(Market Value)			1주당가치(Price-per-share)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항	-6.27E+08	-1.486	상수항	16.829	0.692
$MSSBK$	0.854	3.772***	$MSSBK(PS)$	0.824	4.754***
$MSSERN$	3.769	3.769***	$MSSERN(PS)$	1.726	1.808*
$IFLTB$	2.190	6.369***	$IFLTB(PS)$	1.723	3.904***
$APLFBT$	0.126	0.159	$APLFBT(PS)$	0.414	0.491
$R^2 Adj=90.2\%$			$R^2 Adj=77.0\%$		
$F값=97.26***$			$F값=31.16***$		

주: *, ***는 각각 유의수준 10%,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Horton(2006)

- 본고에서 Horton(2006)의 데이터(2000~2004년)를 확장하여 영국 3개 생명보험회사¹¹⁾에 대해 2005~2008년 P/EV를 산출한 결과, 금융위기로 인해 주가가 폭락한 2008년을 제외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추이를 발견함.
- 주식 시장이 비교적 안정되었던 2005~2007년의 경우 P/EV 배수가 1.08~1.33으로 나타나, 2000~2004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08년 들어 주가

11) Aviva, Prudential, Legal & General

폭락으로 인해 P/EV가 0.99~1.18로 낮아졌음.

- 2008년은 이상치(outlier)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 보험회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P/EV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표 9> 영국 대형 3사의 P/EV 추이(2005~2008)

(단위: 백만 파운드,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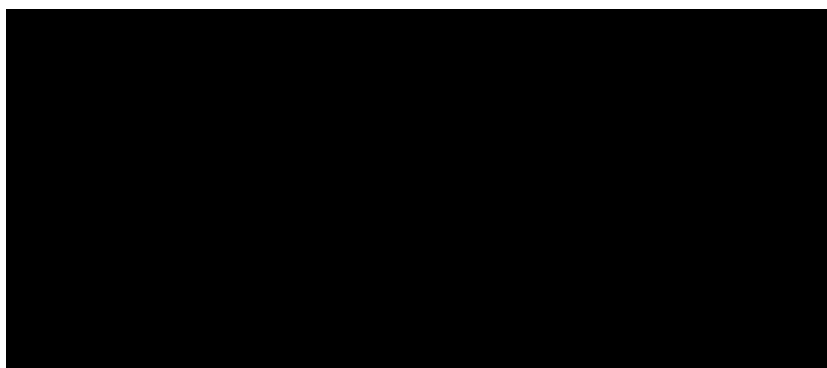
회사	연도	시장가치	내재가치	P/EV	
Aviva	2005	16,832	15,113	1.11	
	2006	21,023	18,098	1.16	
	2007	17,663	18,248	0.97	1.08 ^a
	2008	10,365	14,089	0.74	0.99 ^b
Prudential	2005	13,234	10,301	1.28	
	2006	17,131	11,883	1.44	
	2007	17,587	13,828	1.27	1.33 ^a
	2008	10,450	14,368	0.73	1.18 ^b
Legal & General	2005	7,970	6,194	1.29	
	2006	10,298	7,644	1.35	
	2007	8,248	8,403	0.98	1.21 ^a
	2008	4,510	7,609	0.59	1.05 ^b

주: 1) 주가는 12월 말 종가 기준

2) a는 2005~2007 회사 평균 P/EV, b는 2005~2008 회사 평균 P/EV 수치임.

자료: 각 사 내재가치 공시 자료 및 블룸버그 주가 데이터

<그림 5> 영국 대형 3사의 P/EV 추이(2005~2008)



자료: 각 사 내재가치 공시 자료 및 블룸버그 주가 데이터

□ Serafeim(2008)은 내재가치를 발표하는 보험회사와 내재가치를 발표하지 않는 보험 회사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보험회사의 내재가치 관련 정보가 재무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함.

○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내재가치 실적을 발표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내재가치를 발표하는 회사와 발표하지 않는 회사 각각 73개사를 선정하였음.

<표 10> 내재가치를 공시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기술 통계

국가	회사 개수	내재가치 최초 발표 연도	회사 개수	내재가치에 근거한 가치평가 여부	내재가치를 검증한 컨설팅사	영업 분야	회사 개수
호주	1	1991	1	예	PWC	생명보험	39
오스트리아	2	1992	1	아니오	Deloitte & Touche	손해보험	34
벨기에	1	1993	1	Bear Stearns JP Morgan	Ernst & Young	전체	73
캐나다	5	1994	1	BNP Paribas	KPMG		
중국	2	1995	0	Citigroup	Tillinghast		
핀란드	1	1996	1	CSFB	Watson Wyatt		
독일	4	1997	2	Deutsche Bank			
홍콩	1	1998	3	Dresdner			
이태리	7	1999	9	Goldmans Sachs			
일본	5	2000	9	HSBC			
네덜란드	4	2001	13	Lehmand Brothers			
뉴질랜드	1	2002	11	Merrill Lynch			
노르웨이	2	2003	6	Morgan Stanley			
싱가포르	1	2004	4	Societe Generale			
남아프리카공화국	10	2005	4	UBS			
스페인	1	2006	7				
스웨덴	2	전체	73				
스위스	4						
대만	2						
영국	13						
전체	73						

자료: Serafeim(2008)

○ 이들 146개사를 대상으로 1999~2006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재가치 공시 후
유동성이 증대되고, 정보비대칭성이 축소되며 자본비용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
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 이는 내재가치 관련 정보 공시가 보험회사의 경제적 효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

음을 의미하는 것임.

- 또한, 해당 보험회사의 가치를 평가한 증권사 중 JP Morgan을 제외한 모든 증권사에서 내재가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내재가치 정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

□ Prefontaine and Godbout(2009)는 캐나다의 3개 대형 생명보험회사¹²⁾가 2000~2008년 동안 발표한 내재가치 실적을 기준으로 내재가치와 시장가치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함.

- 이들은 EV_t 와 MV_t 간 동 시점에서의 회귀계수를 추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3개월 후 시장가치($MV_{t+0.25}$) 및 1년 후 시장가치(MV_{t+1})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분석함.
- 회귀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의 P/EV는 1.3~1.7 수준으로 추정되어 EV_t 는 MV_t , $MV_{t+0.25}$ 뿐만 아니라 MV_{t+1} 와도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11> 캐나다 생명보험회사의 P/EV 추정(2000~2008)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t값	F값	Adj-R ²
MV_t	EV_t	1.385	9.335(0.000)	87.14(0.000)	0.775
$MV_{t+0.25}$	EV_t	1.306	7.325(0.000)	53.658(0.000)	0.678
MV_{t+1}	EV_t	1.723	10.353(0.000)	7.191(0.000)	0.822

주: 괄호 안은 p값임.

자료: Prefontaine and Godbout(2009)

- 한편, 주가 하락이 컸던 2008년 데이터를 제외시킬 경우 MV_t 및 $MV_{t+0.25}$ 회귀계수가 각각 1.839, 1.869로 크게 높아져 더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에서는 내재가치와 주가 간 높은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분

12) Industrial Alliance Group, Sun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The Manufacturers Life Insurance Company

석 데이터가 27개(=3사×9년)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회귀계수의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분석은 산출 결과의 정확성보다는 캐나다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내재가치와 시장가치 간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될 경우 추정식이 개선·보완될 수 있을 것임.

나.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내재가치와 주가 간 관계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내재가치가 주가변동의 유의한 지표로서 작용해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분석은 쉽지 않음.

- 이는 회사별로 내재가치 도입 시기 및 발표 빈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각 사별 내재가치 모델의 가정에 차이가 존재하며, 모델의 변경에 따라 과거 수치까지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회사 간 비교 및 시계열 비교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임.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내재가치 관련 측정 및 공시 경험은 일천하므로 과거 시계열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임.

- 내재가치 실적을 3년 간(FY2006~FY2008) 연속적으로 발표한 회사는 2개사에 불과하며, 2년 간(FY2007~FY2008) 발표한 회사도 2개사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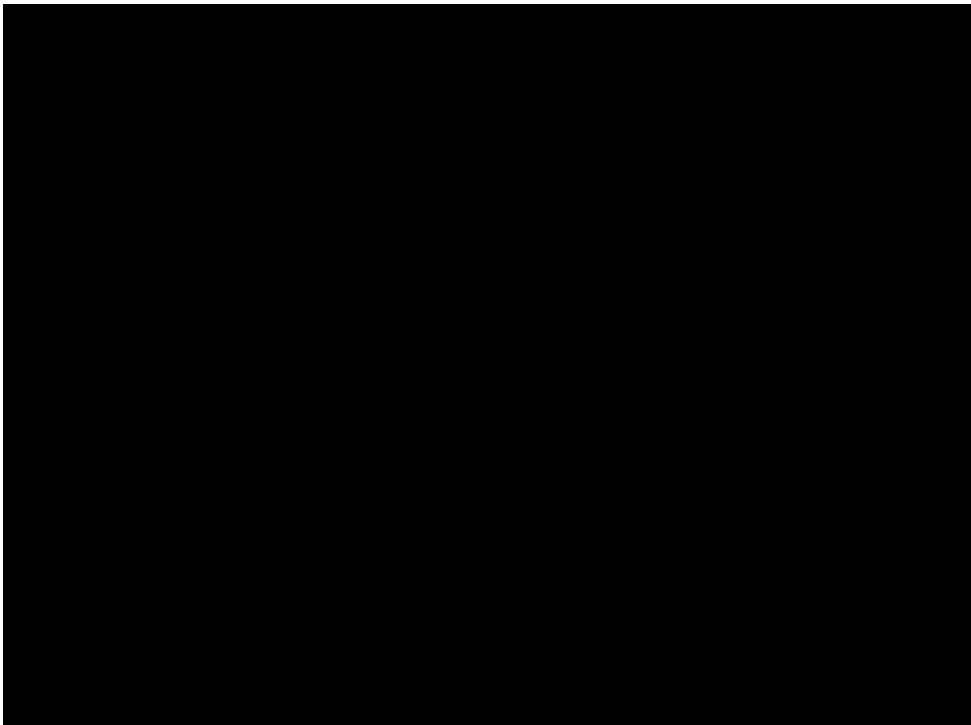
□ <그림 6>은 4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주당 장부가치(BV: book value), 주당 시장가치 및 주당 내재가치 간 관계를 나타낸 것임.

- 4개사 모두 주당 장부가치는 주당 시장가치 및 주당 내재가치보다 낮음.
- 그러나, 주당 내재가치와 주당 시장가치의 관계는 회사 간·시점 간 차이가 존재함.
 - 삼성화재는 주당 내재가치가 주당 시장가치보다 작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내재가치의 경우 장래 신계약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보다 낮다는 일반적인 기대와 일치하는 것임.
 - 동부화재의 경우에도 FY2006~FY2007에는 주당 내재가치가 주당 시장가치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FY2008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주당 시장가치가 주당 내재가치 이하로 급락하였음.

- 반면, LIG손보와 메리츠화재의 경우에는 FY2007과 FY2008 모두 주당 시장가치가 주당 내재가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FY2008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

<그림 6> 국내 손해보험회사 주당 장부가치, 시장가치 및 내재가치 추이



주: 1) 주당 장부가치, 시장가치, 내재가치 산출을 위한 주식수는 유통주식수 기준
2) 주가는 매년 3월말 종가 기준
3) 내재가치는 해당 연도 결산 시 발표한 원래 수치로서 결산 이후 수정치는 반영하지 않음.
자료: 각 사 내재가치 공시 자료

□ 국내에서도 손해보험회사의 내재가치 발표 및 생명보험회사 상장을 계기로 적정 내재가치 투자승수 즉, P/E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자본시장에서는 보험회사가 공시하는 내재가치와 내재가치 배수를 이용해서 보

협회사의 목표주가를 산출하려는 경향이 존재함.

-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분석 대상 손해보험회사의 주가가 내재가치 대비 1.0배 이하 수준에서 거래되거나, 경쟁사 대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경우 해당 손해보험회사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동양생명의 상장을 계기로 생명보험회사의 P/EV를 손해보험회사의 P/EV와 비교하려는 경향도 존재함.

□ Horton(2006)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선진 시장의 경우 P/EV에 대한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의 경우 양자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내재가치 발표 회사 수가 FY2007 및 FY2008에야 각각 4개사, 5개사로 확대되었으며, 발표 주기도 분기가 아닌 연간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또한, 유럽형 내재가치와 같은 업계 공통의 측정 기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데서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발표한 FY2006~FY2008 내재가치 실적을 중심으로 주가와 관련성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내재가치 공시의 유용성이 발견됨.

- 내재가치 이익률(RoEV)은 기존 보유계약가치의 증가와 장기보험 판매 호조에 따라 12.4~27.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대상 기간 전체 P/EV 분포는 0.41~1.77로 매우 넓게 나타났으며, 회사별 배수는 0.57~1.44로 나타남.
- 내재가치 발표 3개월 후의 주가($P_{t+0.25}$)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내재가치 대비 3개월 후 주가 배수($P_{t+0.25}/EV$)는 0.56~1.82로 높아짐.
- 내재가치 공시 3개월 후 회사별 주가 배수도 0.75~1.58 수준으로 높아짐.

<표 12> 회사별 · 연도별 P/EV 추이

(단위: 원, 배, %)

회사	연도	주당 시 장가치 (A)	3개월 후 주당시장가치 (B)	주당 내 재가치 (C)	P/EV (A/C)	$P_{t+0.25}/EV$ (B/C)	RoEV
삼성화재	FY2006	157,500	178,000	107,903	1.46	1.65	12.4
	FY2007	212,300	218,500	120,070	1.77	1.82	14.1
	FY2008	160,000	188,000	146,985	1.09 (1.44)	1.28 (1.58)	20.9
동부화재	FY2006	26,700	31,000	22,059	1.21	1.41	-
	FY2007	38,000	38,400	27,516	1.38	1.40	27.5
	FY2008	20,500	26,200	34,662	0.59 (1.06)	0.76 (1.19)	23.2
LIG손보	FY2007	19,500	25,000	26,612	0.73	0.94	-
	FY2008	13,350	18,000	32,176	0.41 (0.57)	0.56 (0.75)	26.4
메리츠화재*	FY2007	9,010	10,100	9,892	0.91	0.97	-
	FY2008	3,870	6,300	8,813	0.44 (0.65)	0.71 (0.84)	-
현대해상*	FY2008	12,500	15,900	23,174	0.54	0.69	-

주: 1) $RoEV = [(당기\ 배당전\ EV - 전기\ EV) / 전기\ EV] \times 100$

2) 괄호 안은 회사별 시계열 평균 P/EV를 의미함.

3) *는 RoEV를 공시하지 않음.

자료: 각사 내재가치 공시 자료

□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주가 판단 지표로서 내재가치의 엄밀성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재가치 산출 과정에서 기업가치 관련 정보들이 공시되기 때문에 점차 투자자들의 주가 판단을 위한 보조 지표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임.

- 국내의 경우 내재가치 공시 초기 단계로서 경제적 효용성 증대 여부 및 내재가치와 주가 간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재가치 공시의 유용성이 존재한다는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향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점차 내재가치 분석 모형이 정착될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활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5. 요약 및 시사점

선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국내 보험회사도 내재가치 관련 정보를 기업가치 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 내의 측정 방법론이 통일되고 안정적인 가정을 확보해야 하며 내재가치 결과 값 자체보다는 산출 과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손해보험회사의 내재가치 실적 공시는 FY2002 처음으로 이루어진 후 발표 회사 수도 확대되고 있으며, 외부 계리법인의 검토를 받는 등 초기에 비해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내재가치 측정 및 공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선진 보험회사들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내재가치 산출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협소하다고 볼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질 경우 경쟁사들에게 자사 정보를 누설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공시하는 정보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으나,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적정 수준의 공시는 국제적 추세임¹³⁾.
- 선진 보험회사의 경우 내재가치가 시장가치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P/EV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경험 통계의 한계는 존재하지만 내재가치 발표 3개월 후의 주가가 상승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견됨.
- 내재가치 활용 및 공시의 역사가 긴 선진 시장의 경우 내재가치를 공시하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재무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P/EV가 1.45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의 경우 회사 간 P/EV 격차가 크게 존재하지만, 내재가치 발표 3개월 후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내재가치 활용의 유용성을 보여줌.
- 선진 보험회사와 마찬가지로 내재가치의 공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업가치를 증

13) 국내에서도 2011년부터 상장회사 전체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도입할 예정으로 있음.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영 관련 정보를 상당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대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험회사들도 기업가치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재가치 결과 값 자체보다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적절한 공시가 더 중요함.

- 선진 사례를 통해 볼 때 보험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내재가치는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서 내재가치 산출과 관련된 여러 가정들이 외부 이용자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외부 이용자는 내재가치 산출에 주관성이 존재하는가, 산업 평균과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일관성과 회사 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용성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정보가 공시되어야 할 것임.
- 자본시장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제반 가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장에 공시된 내재가치에 대한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굿모닝신한증권, Daily News, 2009년 8월 26일
미래에셋증권, Issue comment, 2008년 6월 20일
보험개발원, 내재가치 산출방법 변화 및 활용방안, 2008년 7월 2일
손해보험회사 연도별 내재가치 공시 자료
신영증권, Daily, 2009년 8월 26일
이병건 · 오진원, In-depth report, 신영증권, 2008년 6월 23일
파이낸셜 뉴스, 2009년 9월 14일자 (<http://www.fnnews.com>)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Practice Note on Embedded Value (EV) Reporting, May 2009 (http://www.actuary.org/pdf/life/embed_may09.pdf)
Aviva, Annual Report, 각호.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Insurance Contract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Draft Research, Paper, June 2009 (<http://www.actuaires.ca/members/publications/2009/209065e.pdf>).
Horton, J., The Value Relevance of 'Realistic Reporting': Evidence from UK Life Insurer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6.
Legal & General, Annual Report, 각 호

- Prefontaine, J. and Godbout, L, The Informational Content of Voluntary Embedded Value (EV) Financial Disclosures By Canadian Life Insurance Companies, 2009 EABR & TLC Conferences Proceedings.
- Prudential, Annual Report, 각 호
- Serafeim, G, Relevance VS Reliability: Evidence from Embedded Value Accounting,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2008.
- Society of Actuaries, International Market consistent Embedded Value Webcast, 2009. 6.
- Towers Perrin, From Embedded Value to Share Price, 2001. 1.
- Towers Perrin, European Embedded Values - A Significant Step Forward, 2004. 5.
- Towers Perrin, European Embedded Values - The Story So Far, 2005. 6.
- Towers Perrin, CFO forum adopts MCEV, 2008. 6.
- Tremblay, Embedded Value Calculation for a Life Insurance Company, actuarial practice forum, 2006 (http://www.soa.org/library/journals/actuarial-practice-forum/2006/october/APF0610_2.pdf).

<부록> 영국 Aviva의 시장기준 내재가치(MCEV) 공시 내용

- Aviva의 MCEV 공시는 회계연도 말 작성하는 사업보고서 뒷부분 '내재가치 보고서 (Alternative method of reporting long-term business profit)' 란에 수록되어 있으며 MCEV 기준 연결손익계산서, 연결 대차대조표 등과 함께 15개의 주석(notes)을 포함함.
- Aviva는 EEV 산출 기준 발표 이후 최초로 EEV 기준 내재가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MCEV 기준도 타 사보다 일찍 적용하고 있음.
- 내재가치 보고서 세부 내용
 - 요약 연결 손익계산서
 - 주당 순이익
 - 연결 손익계산서
 - 주주지분 변동 조정항목
 - 요약 연결 대차대조표
 - 주주지분 조정항목
 - 국제회계기준(IFRS) 총자본 조정을 통한 MCEV 순자산 산출

- 사업별 MCEV 손익 분석
- 요약 연결 대차대조표 분해
- MCEV에 관한 이사진의 책임에 대한 확인

○ 15개 주식 세부 내용

- M1: MCEV 개요와 용어 정의
- M2: 생명보험 손익 분석
- M3: 생명보험 영업이익
- M4: 신계약 가치 분석
- M5: 순잉여금 구성 내역
- **M6: 보험계약의 만기 구조**
- M7: MCEV 영업이익의 지역별 분석
- M8: 펀드 관리 부문 영업이익의 지역별 분석
- M9: 기타 영업이익 분석
- M10: 지역별 · 구성요소별 내재가치
- M11: 보유계약 현재가치에 대한 리스크 허용
(마찰비용, 헤지 불가능 리스크, 금융옵션 · 보증의 현재가치 등)
- M12: 할인율(IDR: implied discount rates)
- M13: 지역별 소수지분(minority interests) MCEV 요약
- M14: 주요 가정
- M15: 민감도 분석

□ 아래 표는 Aviva가 공시하는 내재가치 내용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서 MCEV 산출을 위해 작성한 보험계약의 만기구조를 보여주는 것임.

- 15개 주식 세부 내용 중 “M6” 항목에서 보유계약과 신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유계약가치를 기간 별 · 지역 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역을 예시하고 있음.
- 총 보유계약 및 당해 연도 판매한 신계약에 대한 내재가치 정보를 전년(2007년)과 당년(2008년)으로 구분하여 비교 · 공시함.

(a) 총 보유계약

(단위 : 백만 파운드)

2008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후	총주주지분	소수지분제외
영국	634	542	385	279	213	2,053	2,053
유럽	1,560	1,200	741	447	411	4,359	3,380
북미	-66	-245	-238	-211	-342	-1,102	-1,102
아시아	108	71	47	28	16	270	262
계	2,236	1,568	935	543	298	5,580	4,593

(단위 : 백만 파운드)

2007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후	총주주지분	소수지분제외
영국	1,574	1,209	615	345	524	4,267	4,267
유럽	2,200	1,170	736	412	332	4,850	3,946
북미	168	129	41	16	-24	330	330
아시아	130	105	15	8	11	269	261
계	4,072	2,613	1,407	781	843	9,716	8,804

(b) 신계약

(단위 : 백만 파운드)

2008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후	총주주지분	소수지분제외
영국	91	74	69	50	10	294	294
유럽	219	146	103	73	250	791	630
북미	112	45	8	1	-12	154	154
아시아	48	17	10	5	10	90	89
계	470	282	190	129	258	1,329	1,167

(단위 : 백만 파운드)

2007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후	총주주지분	소수지분제외
영국	192	114	55	31	48	440	440
유럽	283	140	91	56	29	599	450
북미	85	61	6	-1	-11	140	140
아시아	46	41	5	3	4	99	98
계	606	356	157	89	70	1,278	1,128

◆ 신종플루의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조 용 운 연구위원, 이 중 욱 연구원

1. 문제의 제기

2009년 10월 2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만 명 이상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으며, 4천 1백 여명이 사망함.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 주일 사이에 1,396 명의 감염자 및 11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신종플루가 경제활동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009년 6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신종플루(H1N1)의 확산에 따라 1968년 이후 41년 만에 전염병 대유행 6단계¹⁾를 선언함.
- 전염병 대유행(pandemic)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전염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첫째, 인플루엔자의 변형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둘째, 인체에 감염되는 경우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며, 셋째, 사람 간 전염이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전염병 대유행(pandemic)으로 선언함.
- 2009년 10월 2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4천 1백 여명이 사망함.
- 2009년 3월에 멕시코에서 최초로 발병한 신종플루는 몇 주 후 미국에서도 발생하였고 빠른 속도로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음(<표 1> 참조).

1) WHO는 인플루엔자 전염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간유행기(interpandemic period)
 - 1단계: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음.
 - 2단계: 새로운 변형 바이러스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동물변이(animal variant)가 인체 질병(human disease)을 위협함.
- 대유행경고기(pandemic alert period)
 - 3단계: 새로운 변형바이러스의 감염자가 나타났으나, 사람 간 전염은 발견되지 않음.
 - 4단계: 제한된 지역의 소규모 집단에서 사람 간 전염이 발견됨.
 - 5단계: 대규모 집단에서 사람간 전염이 발견되었으나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제한적임.
- 대유행기(pandemic period)
 - 6단계: 인구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전염이 증가함.

<표 1> 신종플루 감염자 및 사망자 누적 현황 (2009. 10. 2 현재)

지역	감염자수	사망자수
Africa (AFRO)	8,352	42
Americas (AMRO)	137,147	3,020
Eastern Mediterranean (EMRO)	12,008	74
Europe (EURO)	56,000 이상	적어도 176
South-East Asia (SEARO)	33,594	413
Western Pacific (WPRO)	96,197	383
계	343,298 이상	적어도 4,108

주: 지역분류는 WHO 사무소 개설지역 중심임.

자료: www.who.int/csr/don/2009_10_02/en

- ☐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가 확산되어 감염자가 1 주일 사이(9.21 ~ 9.27)에 1,396 명이 발생하였고, 9월 23일에는 11번째 사망자가 발생해 전국이 비상임.)
- 10대가 55.2%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20대로 19.4%의 감염률을 보이고 있음.
- ☐ 전염병 대유행은 전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확산시키고 경제활동의 둔화를 가져와 빠른 속도로 세계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전염병 대유행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과거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신종플루와 비교·평가하여 신종플루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고자 함.
- ☐ 신종플루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간접적 충격과 보험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보험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전염병 대유행 발생의 경과와 신종플루

전염병 대유행은 1900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사례이며, 30 ~ 50년 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동물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발생은 계속되어 왔으므로 신종플루와 같이 전염병 대유행의 발생 가능성은 상존함.

- 전염병 대유행은 역사적으로 보면 1900년 이후 평균적으로 30 ~ 50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염규모나 대상이 불특정적임(<표 2> 참조).

<표 2> 20세기 독감 대유행 현황

대유행독감	연 도	인플루엔자A아형	감염자(백만명)	사망자(백만명)	치사율
스페인 독감	1918~19	H1N1	500-1,000(50%)	50 ~ 100	>2.5%
아시아 독감	1956~58	H2N2	-	2.0	<0.1%
홍콩 독감	1968~69	H3N2	-	1.0	<0.1%
계절성 독감	매 년	주로 A/H3N2, A/H1N1, and B	340 - 1,000 (5-15%)	0.25 - 0.5	<0.05%

주: 병원체에 감염된 사람들 중 일부의 환자들만이 실제로 사망에 이르는데, 치사율(case mortality rate)은 총 누적감염자 대비 실제 사망자의 비율을 말함.

자료: ko.wikipedia.org/wiki/H1N1

- 1900년 이후 전염병 대유행으로는 1918~19년 스페인 독감, 1957~58년 아시아 독감, 1968~69년 홍콩 독감이 있음.
-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총 인구 중 25~30%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주로 청장년층에 감염되었고, 5천만에서 1억 명의 감염자가 사망하여 치사율은 2.5%에 이름.³⁾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38%인 758만 8,400 여명이 감염되었고, 14만 518 명이 사망함.
 -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세계 제1차 대전 중 군대의 이동경로를 따라 확산되었으

3) Howell Pugh, "Pandemic : The Cost of Avian Influenza", Contingencies, September / October 2005.

며, 국가 간 교류 확대가 전염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준 사례임.

○ 1957~58년 아시아 독감은 약 2백만 명이 사망하여 0.1%의 치사율을 보임.

○ 1968~69년 홍콩 독감은 약 1백만 명이 사망하였고 0.1%의 치사율을 기록함.

□ 동물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발생은 계속되어 왔으며, 다음의 조사결과는 돌연변이가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줌(<표 3> 참조).

<표 3> 변종바이러스의 발생 연혁

발생연도	인플루엔자 종류	발생연도	인플루엔자 종류
1977	소련독감 H1N1 ⁴⁾	2003	H7N7, H7N2, H9N2, SARS
1997	H5N1	2004	H7N3, H10N7
1999	H9N2	2003-2008	조류독감(Avian influenza virus) H5N1
2002	H7N2		

□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대유행에 가까운 감염자가 발생한 SARS는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킴.

○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니라 통상적인 감기의 원인이 되는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이어서 대유행하는 전염병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4) H1N1은 인플루엔자 A의 아형(Influenza A virus subtype H1N1)으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인플루엔자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며 현재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 사람 이외에도 돼지나 새에게도 감염·발병할 수 있음.

< 독감 및 인플루엔자의 종류 >

독감	독감 백신 · 개 인플루엔자 · 돼지 인플루엔자(SI) · 말 인플루엔자 · 조류 인플루엔자(AI) ·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르토믹소바이러스 · 인플루엔자 A형 · 인플루엔자 B형 · 인플루엔자 C형
인플루엔자 A형의 아형	H1N1 · H1N2 · H2N2 · H3N2 · H3N8 · H5N1 · H5N2 · H5N3 · H5N8 · H5N9 · H7N1 · H7N2 · H7N3 · H7N4 · H7N7 · H9N2 · H10N7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보임.

- 8,000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치사율은 10%에 이르렀는 데, 지역적으로는 6주 만에 27개 국에서 발병이 공식 보고됨.
- SARS는 전염병 대비에 관한 실전 훈련과 같은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현재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게 됨.
 - 강력한 진단방법이 개발되었으며, 현재 이 방법은 다른 호흡기 질환을 식별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이메일을 비롯한 온라인 통신매체가 전 세계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온라인상 건강 정보는 의료진의 활동에도 큰 도움을 줌.
- 2003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발생한 조류독감은 닭, 오리, 야생 조류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 H5N1)의 인체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며 드물게 사람 사이에서도 감염됨.
 - H5N1 조류독감에서 제한적이지만 사람 간 전염이 발견됨에 따라 WHO는 3단계 전염병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 2005년 11월 당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121명이 감염되었고, 인체에 감염된 경우 51%의 높은 치사율을 보였으며⁵⁾, 2008년 현재 인체에 감염된 사례로 376건이 보고되어 있음.
-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라 감염된 미국인 환자에서 4종(북아메리카 멕시코 인플루엔자, 북아메리카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 인플루엔자, 돼지 인플루엔자)의 독립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됨.
 - 신종플루의 발현은 인간 인플루엔자와 돼지 인플루엔자 사이의 유전자 재배열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인플루엔자 4종 모두 H1N1의 아형임.
 -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잡종개에게서도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됨.

5) www.WHO.org

3. 신종플루의 경제적 영향

세계경제에 미치는 정도는 치사율이 낮아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대면접촉을 요구하는 분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재화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거나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신종플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전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로 불안심리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인 경제활동 둔화로 인해 기업들의 수입이 감소하여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금융위기가 채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충격과 함께 발생하여 더 큰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음.
 - 경기의 둔화가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 적자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존재함.
- 그러나 2009년 신종플루는 홍콩 독감보다 감염자 수가 적고 치사율이 낮아 경제에 미치는 정도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은 신종플루로 인해 세계 GDP가 1968년 홍콩독감과 유사한 수준일 경우 0.7%, 1957년 아시아 독감수준일 경우 2%, 1918년 스페인 독감과 같은 수준일 경우 4.8%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 동아시아 GDP는 각각 0.6%, 2.1%, 5.3%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세계은행은 조류독감(Avian influenza, H5N1)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세계 GDP의 2%에 달하는 8,000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음.
 - 아시아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SARS의 경우 2003년 상반기 홍콩의 경제성장을 2.6% 위축시켰고, 싱가포르도 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09년 신종플루의 확산정도와 치사율을 감안할 때 세계 GDP는 1% 미만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실물산업 부문에서는 높은 수준의 대면접촉을 요구하는 극장, 여행사, 항공사, 외식업체, 호텔, 공연 등의 분야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Trust for America's Health에 따르면 SARS 발생 당시 홍콩의 여행객은 66% 감소하였고, 영화산업의 경우 매출액이 50% 가량 감소함.⁶⁾
- 유통산업 또한 대면 접촉이 필요하므로 최종생산물과 중간재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공급망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생산 체제를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고량 감소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음.
 - 병원 역시 수요의 급증으로 인하여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통제조치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외부활동을 삼가 할 것이며, 일부 소비활동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행위로 대체될 것으로 봄.
-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대면 접촉이 적게 발생하고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은 완만할 것으로 봄.
 - 1918년 스페인 독감 사태 당시 미국 주식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918년 봄 미국은 세계 제1차 대전 중이었으며, 산업평균 다우존스지수는 1917년 4월 93.9에서 1918년 2월 79.95로 하락함.
 - 1918년 3월 전염병 유행의 첫 징후가 감지되었으나, 다우존스지수는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9월 81.95를 기록함.
 - 세계1차 대전이 끝나고 전염병의 위력이 가장 강했던 1918년 12월에도 다우존스지수는 82.5에 이름.
 - 2003년 SARS는 캐나다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병하였는데, SARS 발병환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던 2/4분기 캐나다의 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하였고, 미국 시

6) LLOYD's 홈페이지, LLOYD's emerging risks team report.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음.⁷⁾

- 상하이 종합지수는 해당 분기에 다소 하락하였으나, 항생지수는 미국 S&P 지수만큼 빠르게 상승하였음.

4.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보험수요의 감소와 보험금지급 및 보험사기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보임. 종목별로는 민영건강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되나, 연금보험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자산가치의 하락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됨. 재보험회사들이 신규계약의 체결을 주저하여 시장이 경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가. 보험상품에 대한 직접적 영향

- ☐ 대면접촉의 기피 등을 유발하는 신종플루는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내외 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
 - 보험상품을 판매하고자 해도 잠재적 수요가 줄어들어 보험료수입을 증대시키기가 어려운 보험수입의 경성화(hardening)가 발생함.
- ☐ 우리나라의 민영건강보험은 신종플루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하고 있어 신종플루가 확산될 경우 지급보험금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수익성의 악화가 예상됨.
 - 민영건강보험의 해약률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은 동일 보험료로 전염병 대유행까지 보장하는 것이 되어 수익성의 악화를 초래할 것임.
 -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확산될 때 까지 민영건강보험이 전염병 대유행에 의한 의료비 발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업무로 등장할 것임.
- ☐ 사망보장보험의 경우 전염병의 감염과 사망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신규수요가 증가하고, 해약률이 감소하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7) Steven Weisbart, 2006, Pandemic: Ca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Survive The Avian Flu?, www.iii.org.

- 일반적으로 전염병의 첫 번째 파동이 지나간 뒤에는 사망보장보험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나타남.
 -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신규보험계약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1919년 보고된 바 있음⁸⁾.
- 조류독감이나 SARS와는 달리 2009년 신종플루의 경우 저병원성⁹⁾으로 인해 치사율이 낮아 예방접종 백신이 확보된다면 일반독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
- 사망자가 늘어날 경우 연금상품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지급금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자연헤지(natural hedge)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의 경우 조기 사망하는 계약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망보장상품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전염병의 확산이 연금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나, 치사율이 상승할 경우는 연금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것임.
 - 거치연금¹⁰⁾은 최근 상당히 많이 판매된 최저사망금보증보험(GMDB,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나 치사율이 낮으므로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얼마나 하락할지, 그리고 하락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따라 손실의 크기가 결정됨.
 - 즉시연금의 경우 조기 사망하는 계약자가 발생함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즉시연금 계약자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예상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음.

8) Steven Weisbart, 2006, Pandemic: Can The Life Insurance Industry Survive The Avian Flu?, www.iii.org.

9) 병원체가 숙주를 감염시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성질을 말함.

10) 연금은 기본적으로 거치연금(deferred annuity)과 즉시연금(immediate annuity)으로 구분할 수 있음. 거치연금은 확정연금, 투자형 연금상품(equity indexed annuity), 그리고 변액연금(variable annuity)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제3자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면접촉을 필요로 하는 학교, 공연장, 호텔 등에 의해 배상책임이 증가할 수 있음.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충분한 대비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법률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그 외에도 전염병 대유행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부정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음.¹¹⁾

○ 여행자보험의 수요와 공급이 감소하여 산업의 위축이 예상되고, 기존의 여행자보험에 가입된 계약자가 감염된 경우 보험사는 여행에 복귀할 때까지 소요된 숙박비와 치료비를, 그리고 격리 조치된 경우에는 해제 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여행을 자제할 것이므로 수요의 감소가 예상되고, 예상을 뛰어넘는 전염의 발생을 우려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판매를 주저할 것임.

- 전염병 대유행이 확대되는 경우 예상을 뛰어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여행자보험산업이 회복하는데 장기간이 걸릴 수 있음.

○ 전염병에 의해 발생한 영업상 손해를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집회나 공연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행사 취소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높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음.

○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수 많은 회사들이 재무적인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신용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재보험회사들은 전염병 대유행과 관련된 재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것이므로 역시 충

11) 기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① 대규모 크루즈선의 경우 많은 인원이 고립된 공간에 지속적으로 거주함에 따라 전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선박이 전염병 발생지역에 정박하거나, 탑승 중인 감염자를 해당 국가에 통보하지 않고 하선시키는 경우에도 법률적인 책임이 발생함.

② 이상이 있는 공기정화시설을 건물 혹은 항공기 등에 설치하여 전염병의 확산에 기여하였다면 생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해야 함.

격을 받게 됨.

- 현재 미국의 경우 전염병 대유행과 관련된 재보험상품은 10개 재보험회사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
- 현재 재보험회사들의 재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 그 충격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음.
 - Howell Pugh에 의하면 1918년 수준의 독감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예상보다 큰 규모의 재보험사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¹²⁾
- 제2, 제3의 신종플루 파동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일부 재보험회사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신규계약의 체결을 주저할 수도 있음.

나. 보험상품에 대한 간접적 영향

- ☐ 자동차보험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감염 혹은 감염 위험을 이유로 외출을 삼가 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낮아지는 효과와 대중교통수단을 기피하고 자가운전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율이 증가하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손해율에 미치는 최종효과는 두 효과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될 것임.
- ☐ 사회질서의 붕괴는 전염병 대유행의 발생 시에도 가능하며, 경기둔화가 더해지는 경우 범죄율 증가가 예상되므로 도난보험에 대한 지급청구가 증가할 수 있음.
 - 신종플루가 경기둔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난보험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봄.
- ☐ 경기둔화가 심화될수록 보험사기가 자주 발생하므로 보험사기가 증가할 수 있음.

다. 자산운용에 대한 영향

- ☐ 주요 투자자로서 활동하는 보험회사에게 신종플루는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의 가

12) Howell Pugh, "Pandemic: The Cost of Avian Influenza", Contingencies, September / October 2005.

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임.

- 자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되지만 1918년 미국 주식시장의 사례와 2003년 SARS 사례를 감안할 때 그러한 충격은 적거나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하고 있는 투자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하기 힘들.

- 위험자산에서 국공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flight to quality”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공채 가격 상승에 의해 국공채수익률이 하락하더라도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될 것이기 때문임.

5. 결론 및 보험산업의 대응방안

전염병 대유행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경기 및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함. 보험종목 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종목 별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함. 전반적 보험수요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공공보험과 연계한 대응이 필요함.

□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전염병 대유행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일회성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전염병의 발생은 다양한 충격을 유발하며, 스페인 독감의 경우와 같이 최악의 경우 1억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경우보다 전염범위와 치사율이 현저히 낮고,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더 나은 대비 태세를 갖추었으므로 과거의 사례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봄.

- 그러나 인구의 증가, 도시화의 진행, 그리고 국가 간 이동의 증가로 인해 질병의 확산 위험 역시 증가하였음.

- SARS의 경험과 온라인 통신매체의 발전으로 전염병 대비에 관한 더 나은 준비

를 할 수 있게 됨.

□ 2009년 전염병 대유행의 경우 확산정도와 치사율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감안할 때 경제적 충격은 세계 GDP의 1% 미만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판단됨.

○ 대면접촉이 빈번한 분야의 영업환경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임.

○ 자산가치의 하락이 예상되지만 1918년 미국사례와 2003년 SARS 사례를 감안할 때 그러한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전반적인 보험수요의 감소와 보험금 청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전반적 보험수요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무건전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은 부정적인 다수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요구자본량을 계산하고 부족한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 보험회사의 건전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일부 재보험회사들은 재보험인수를 거절하여 재보험시장의 경성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화 등의 다양한 리스크 헤지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영향에 대비하여 보험종목별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시장은 물론, 일반손해보험시장, 의료소송보험시장 등 대부분의 보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건강보험은 빈번히 발생하는 전염병을 고려한 적정한 안전할증이 필요할 것이며, 재보험이나 유가증권화, 옵션 등의 활용을 통해서 지급보험금의 급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일반손해보험과 관련된 논점은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제적인 방지활동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제3자 책임보험의 경우 대면접촉을 필요로 하는 학교, 공연장, 호텔 등에 의해 보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대비 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가 제3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봄.

- 보험회사는 해당 회사들이 실질적인 대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예산 중 어느 정도를 사업영속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에 할애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고 추가적인 계획의 수립을 독려해야 함.
-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의 경우 경기침체기에는 보험사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집회나 공연 등이 취소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여행자보험은 신규인수에 신중을 기해야 함.

□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신종플루의 확산이 심화될 경우 범죄율 증가와 보험사기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전염병 발생 시에 경기둔화가 더해지는 경우 사회질서의 붕괴로 범죄율이 상승하고 도난보험의 청구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므로 치안의 강화가 필요함.
- 앞으로 신종플루의 확산이 심화되어 경기둔화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면 이로 인해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이나 지급심사 시 보험사기 여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

□ 공적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청구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부담할 충격이 작아지므로 그에 대한 사항을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종사자 및 집단수용시설종사자, 신종플루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신종플루 발생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 근로자, 기내에서 환자를 돌 본 사람 또는 안면마스크 없이 신종플루 환자와 같은 좌석열 혹은 앞뒤 3열까지의 좌석에서 1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 신종플루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의미 있는 접촉으로 감염된 자 등은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음¹³⁾.
- 특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절한 사전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가 보상책임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작용하므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13) 근로복지공단 신종플루 업무상질병판정지침, 2009년 09월 17일.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전망

김 해 식 전문연구위원

1. 서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부채의 공정가치(fair value)에 대하여 그동안 제시된 현행유출가치(current exit value)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고 있어 보험부채 평가를 둘러싼 논의들을 되짚어 보고자 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¹⁾는 보험부채가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2011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
- IASB는 1997년 공정가치(FV: fair value)를 금융회계의 기본 틀로 삼아 기존의 금융회계기준(IAS39와 IAS32)을 정비하고, 일반 금융상품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국제보험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IASB는 1999년 보험현안보고서를²⁾ 통해 각국 사례와 이슈를 검토하고, 2001년 보험회계기준서 초안³⁾에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잠정안을 제시함.
 -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는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로 정의됨.
 - 보험회사는 재보험사 등 제3자에게 계약을 이전할 경우를 가정하는 현행유출가치(CEV: current exit value)⁴⁾ 개념에서 미래현금흐름을 파악하고 현재가치를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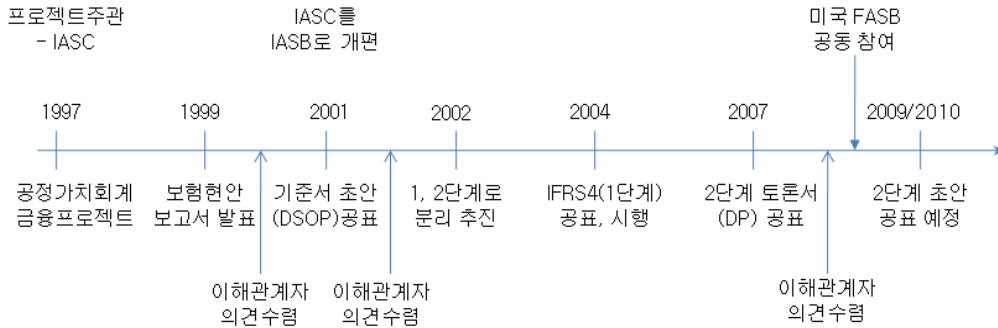
1) IASB는 기존의 비상임이사 체제(IASC)에서 2001년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한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로서 전환 이전에 제정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의 개정, 전환 이후 기준인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제·개정하고 있음.

2) IASC, *Issues Paper on Insurance Contracts*, 1999.

3) IASB,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DSOP) - Insurance Contracts*,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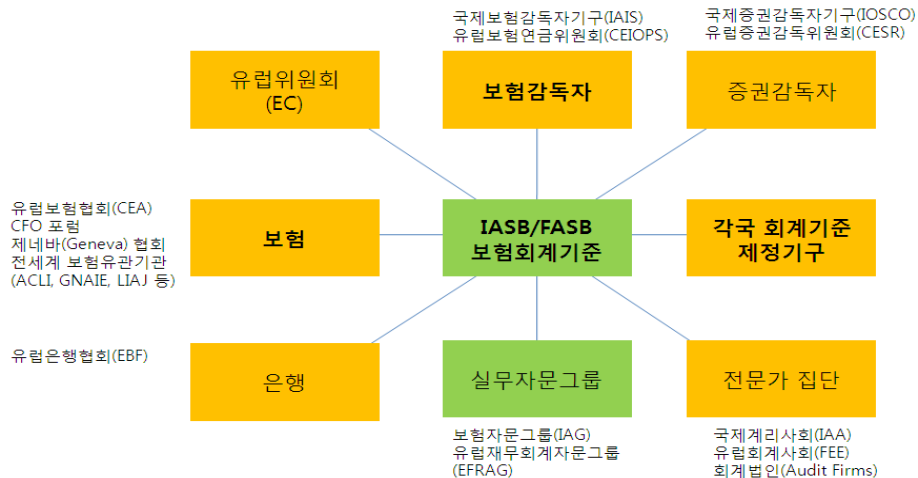
4) 현행가치(current value)란 역사적 원가 이외의 모든 가치를 의미하며, 이전가치(유출가치: exit value)는 거래가 활발한 시장에서는 판매가치(유입가치: entry value)와 동일.

<그림 1> 국제보험회계기준 프로젝트 추진 경과



-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그림 2> 참조) 간의 의견 차이가 지속되면서 보험 계약의 정의 등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 기준(IFRS4)을 2004년에 우선 제정하고,⁵⁾ 보험부채의 측정 기준은 제2단계에서 제시하기로 함.

<그림 2> 국제보험회계기준 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자료: Swiss Re, "The Impact of IFRS on the Insurance Industry", Sigma, 2004. 일부 수정

5) 국내에서 IFRS4는 K-IFRS 제1104호로서 채택되었으며, 동 기준은 2011년부터 보험계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으로서 현재의 보험회계처리준칙을 대체하게 됨.

- 한편, 다국적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내재가치(embedded value)⁶⁾ 공시 관행이 늘어나고 있고, 원칙중심접근법(principle-based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감독회계의 움직임도⁷⁾ IFRS4 2단계 논의와 더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CFO 포럼(The European Insurance CFO Forum)의 내재가치 산출 기준은 2단계 토론서와 비교하여 현금흐름 반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다국적 보험회사들의 채택이 늘어나면서 보험부채를 측정하는 국제적 관행으로 부상하고 있음.⁸⁾
- 유럽보험감독자기구(CEIOPS: Committee of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Supervisors)가 주도하고 있는 SolvencyII는 2단계 토론서와 입장을 같이하나, 신용등급을 부채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사안에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
- 한편, 미국 FASB도 공정가치에 대해서는 현행유출가치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으나(SFAS157), 리스크마진의 설정방식 등에서 2단계 토론서와 차이가 있음.
- 현재 2단계 논의는 그동안 반대가 많았던 현행유출가치를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논의하면서 IFRS4 2단계 기준의 완성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⁹⁾
- 그동안 IASB가 주도하던 2단계 작업에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2008년 공동참여를 선언하면서 새 전기를 맞이함.
- 실제로 2009년 7월 논의에서는 2001년 기준서 초안 발표 이후 2단계 토론서¹⁰⁾까지 유지되어 온 현행유출가치가 폐기되고 새로운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음.¹¹⁾
- 따라서 IFRS4 2단계 논의는 공정가치회계 기조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세부 내용에서

6) 내재가치란 보유계약으로부터 기대되는 주주의 가치를 의미하며, 보험부채의 가치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함.

7) Hay, L. J., "Global Perspectives: Convergence or Divergence?", *Life Actuarial Insights*, KPMG, 2008.

8) 국내에서도 상장사인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투자자설명회(IR)를 통해 장기손해보험의 보유계약가치에 대한 내재가치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고, 비상장사인 생명보험회사들 중 일부 회사들도 내부관리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9) Milliman, "International Accounting Update - 3rd Quarter", 2008.

10) IASB, *Discussion Paper - Preliminary Views on Insurance Contracts*, 2007.

11) IASB/FASB의 보험프로젝트 2009년 7월 회의자료 참조(<http://www.iasb.org>)

보험산업의 회계관행을 반영하려는 변화가 보이므로 재무회계기준 제정기구, 감독자, 보험회사의 논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전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

2. IFRS4 2단계 토론회

IFRS4 2단계 토론회는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구하고 여기에 불확실한 현금흐름에 대비한 리스크마진(risk margin)을 더한 값을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로 정의하고, 동 부채가 매기마다 일관되게 측정될 것을 요구함.

가. 보험회계관행과 공정가치 측정방식의 비교

- 현재의 보험회계관행은 보험계약에서 최초 설정한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기마다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보험부채를 인식하는 이연-매칭 회계모형(DM: deferral and matching model)을 사용하고 있음.
 - 회계기간 동안 미경과된(uneared) 수익을 다음 회계기간으로 이연시키고, 수익이연에 대응하여 준비금과 사업비 등의 관련 비용도 이연시켜 이익을 인식함.
 - 최초 가정이 전체 계약기간에 그대로 유지되므로(locked-in) 보험부채의 장부가치가 변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보험부채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에는 자산의 투자이익률 등을 할인율로 사용하여 현재가치를 측정하고 있음.¹²⁾
 - 보험상품 설계 시 예상했던 가정과 실제치 간에 차이가 나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망률 등에 안전할증(safety margin)의 형태로 마진을 보수적으로 부가함으로써 보험부채가 리스크마진을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2단계 토론회는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험부채의 가치가 매기마다 평가될 것을 요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 부채와 자산의 가치 변동이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자산부채 회계모형(AL: asset-liability model)을 제시하고 있음.

12) 현행 국내 보험회계기준인 보험업회계처리준칙(16. 보험료결손 예상시 회계처리)은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회계연도말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고 이러한 현상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보험료적립금 기말 잔액이 미래의 보험금부채의 현재가치에서 미래에 유입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즉 보험료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부채를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2단계 토론서는 자산은 물론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하여 그 변동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바로 인식하므로 수익과 비용의 이연 과정을 거치지 않음.
- 그 결과, 보험회계관행과 대조적으로 손익의 상당부분이 보험상품 판매와 동시에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 때문에 보험산업에서는 공정가치회계가 보험 회사 손익의 변동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¹³⁾

예시 1. 보험회계관행과 공정가치회계(2단계 토론서)의 사례 비교¹⁴⁾

※ 예시를 위한 기본 가정

1. 20x1년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일시납보험료 100, 신계약비 20, 보험금은 4차년도에 60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료와 신계약비는 계약개시 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반면, 기타 현금흐름은 연도말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2. 증권의 효력은 연간 평균인 연중(midpoint)에 개시된다고 가정
3. 자산운용이익률은 4%, 할인율은 3%로서 수익률곡선은 평평하다고 가정
4. 현행유출가치(CEV) 기준 리스크마진은 12로서 리스크는 2차년도에 1/3, 3차년도에 나머지 리스크의 1/2, 4차년도에는 모두 소멸될 것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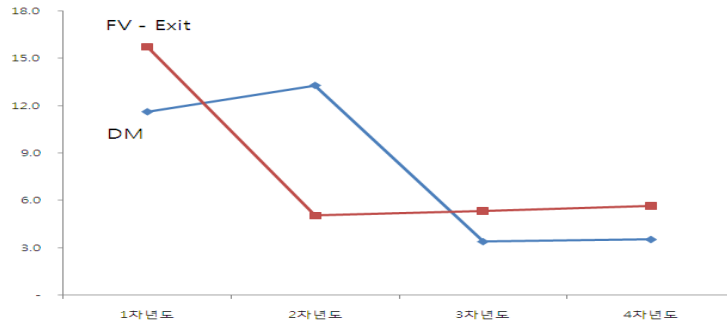
<표 1> 회계모형별 손익계산서 비교 예시

구분	회계관행(이연매칭모형: DM)					2단계 DP(자산부채모형: Exit)2)				
	20x1	20x2	20x3	20x4	합계	20x1	20x2	20x3	20x4	합계
보험료	100.0				100.0	100.0				100.0
경과보험료	50.0	50.0			100.0					
준비금적립	-30.0	-30.0			-60.0	-54.1				-54.1
신계약비	-10.0	-10.0			-20.0	-20.0				-20.0
리스크마진						-10.8	3.8	3.9	4.0	0.8
보험영업이익	10.0	10.0			20.0	15.1	3.8	3.9	4.0	26.7
투자영업이익	1.6	3.3	3.4	3.5	11.8	1.6	3.3	3.4	3.5	11.8
준비금증가액1)						-0.8	-1.6	-1.6	-1.7	-5.9
마진증가액1)						-0.2	-0.3	-0.2	-0.1	-0.8
당기순이익	11.6	13.3	3.4	3.5	31.8	15.7	5.1	5.4	5.7	31.8

주 : 1) 현재가치로 할인된 준비금과 미소멸리스크(마진)준비금의 시간에 따른 증가분
 2) 자산부채 회계모형 중 현행유출가치(current exit value)를 적용

- 13) 이기형 · 김해식,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CEO Report,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4. 참조
- 14) Murray et al., "Mind the GAAP: Fitch's View on Insurance IFRS", 2004.

<그림 3> 회계모형별 이익 인식 비교 예시



<표 2> 회계모형별 대차대조표 비교 예시

구분	회계관행(이연매칭모형: DM)				2단계 DP(자산부채모형: Exit)			
	20x1	20x2	20x3	20x4	20x1	20x2	20x3	20x4
총자산	91.6	84.9	88.3	31.8	81.6	84.9	88.3	31.8
운용자산	81.6	84.9	88.3	31.8	81.6	84.9	88.3	31.8
이연신계약비	10.0							
부채 및 잉여금	91.6	84.9	88.3	31.8	81.6	84.9	88.3	31.8
준비금	30.0	60.0	60.0		54.9	56.6	58.3	
미경과보험료	50.0							
리스크마진1)					11.0	7.5	3.9	
잉여금	11.6	24.9	28.3	31.8	15.7	20.8	26.1	31.8

주 : 1) 미소멸리스크(마진)준비금

- 2단계 토론서는 예상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을 보험부채와 분리하여 리스크마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험상품 판매와 동시에 이익의 상당부분이 인식되는 구조를 제시함(예시 1. 참조).
- 이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서비스 제공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익이 인식되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청산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함.¹⁵⁾

나. 보험부채의 현재가치와 리스크마진

- 2단계 토론서는 보험부채를 거래하는 유통시장의 유동성이 낮고 거래가격 관찰이 쉽지 않기에 보험부채 공정가치에 대한 최선추정치¹⁶⁾로서 현재가치를 제시함.
 - 2단계 토론서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측정에 필요한 현금흐름, 할인율, 마진이라는 측정 3요소를 제시하고, 이들 3요소에 대한 일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음.
- 보험부채의 가치 측정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인 현금흐름은 명시적이고 시장과 일관된 기대현금흐름이어야 함.¹⁷⁾
 - 현금흐름은 마진 등의 요소가 묵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시장에서 모든 가용한 재무정보들을 반영하여 보험회사 자체 경험률보다 덜 주관적이 되도록 요구됨.
 -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전 기간의 현금흐름 추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나, 2단계 토론서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
 - 또한,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려면 단 하나의 현금흐름 추정치(most likely estimate)가 아니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기대현금흐름(expected cash flows)일 것을 요구
 - 가능한 시나리오를 식별해내고 각 시나리오의 현재가치를 구한 후, 여기에 확률 분포나 시물레이션을 통해 각 시나리오별 확률을 적용시켜 불편(unbiased)기대 현금흐름을 산출하도록 함(예시 2. 참조).
- 보험부채의 가치 측정에 필요한 두 번째 요소인 할인율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현금흐름들 간의 경제적 차이, 즉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는 것임.
 - 2단계 토론서는 투자수익을 반영하지 않고 리스크마진과도 분리된 할인율을 제시
 - 투자이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는 것은 변액보험 등 실적연동형 보험상품처럼 자산가치의 변동이 부채가치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택된 자산

15) Durverne, D. and Douit, J. L., "IFRS Phase II and Solvency II: Key Issues and Current Debates", *The Geneva Papers*, 2009. 참조.

16) 본문의 최선추정치(best estimate)는 'unbiased'를 의미. 종종 'most likely'로도 쓰임.

17) DP, 90(a). "explicit, unbiased, market consistent, probability-weighted and current estimates of the contractual cash flows"

에 따라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할인율로 부적절함을 지적

- 현금흐름 추정치가 리스크마진 등을 통해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한 현재가치를 구하는데 적용할 할인율은 무위험이자율(risk-free rate)이어야 함.

예시 2. 현금흐름 및 할인율 : 보험회계관행과 2단계 토론서의 사례 비교

□ 기존 방식은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현금흐름('most likely')을 최선추정치로 보지만,¹⁸⁾ 기대현금흐름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므로 기존 방식과 차이를 보임.

- 기존 방식의 현재가치는 613.9인데 반해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742.0임.

<표 3> 기대현금흐름과 유효이자율 예시

(시장 할인율 5.00%)

시나리오	#1(best)	#2 (most likely)	#3 (worst)
부채 현금흐름	500.0	1,000.0	5,000.0
만기(년)	5	10	25
현재가치	391.8	613.9	1,476.5
발생 확률	20%	60%	20%
기대현금흐름1)	742.0		
유효이자율2)	3.03%		

주: 1) 시나리오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각 시나리오의 확률로 가중 평균함.

2) 명목현금흐름 1,000과 기대현금흐름 742.0이 같아지는 내부수익률(IRR)

자료: 한국회계기준원(KASB), FASB 재무회계 개념체계보고서 제7호 '회계측정에 있어 현금흐름정보와 현재가치의 사용'의 이해, Newsletter Vol. 8, 2001. 예시 수정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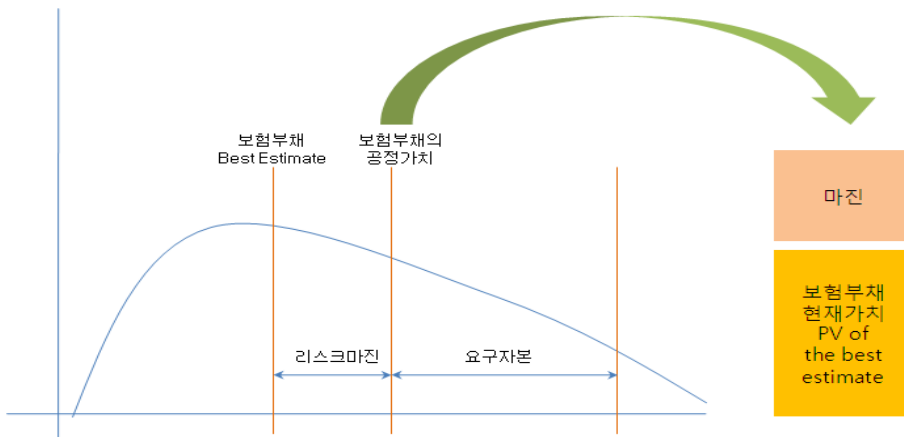
□ <표 3>은 기대현금흐름 742.0과 명목현금흐름 1,000이 같아지는 유효이자율 3.03%가 기존 방식에서 채택할 할인율이 됨을 보여줌.

- 그러나 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다른 부채의 수익률이 3%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는 한, 무위험이자율보다 낮은 3.03%는 해당 부채의 고유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18) 주식 16) 참조.

- 이 때, 리스크마진은 미래현금흐름의 유출을 늘리다가 점차 유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해지율은 현금흐름 유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현금흐름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 또한, 2단계 토론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지급능력을 의심할 경우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므로 할인율을 신용리스크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
- 보험부채의 가치 측정에 필요한 세 번째 요소인 리스크마진은 보험계약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함.
-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유효이자율의 사례처럼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과 현금흐름을 조정한 후 무위험이자율로 할인하는 방법이 있음.
- 2단계 토론서는 전자와 같은 기존의 암묵적 방식 대신 후자의 방법을 따라 보험부채의 최선 추정치 근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대현금흐름을 리스크마진으로 조정하는¹⁹⁾ 명시적 방식을 제시함.
- 리스크마진의 역할에 대해서는 리스크 인수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견해와 경험치의 변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shock-absorber view)가 있는데, 2단계 토론서는 전자를 선택함.

<그림 4>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부채의 현재가치와 마진



19) 따라서 리스크마진은 보험부채의 시장가치 마진(market value margin)으로도 불림.

- 리스크마진은 시장에서 관찰되지 않으므로 요구자본이나 백분위법을 이용하여 측정되며,²⁰⁾ 이와 같이 측정된 총 리스크마진의 변동이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됨.

3. 2009년 IFRS4 2단계 논의의 변화

2009년 IASB/FASB는 시장의 관점을 중시하는 현행유출가치를 2단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회사의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음.

가. 보험산업: 지급능력 및 내재가치 평가에 나타난 보험부채 측정

- 유럽보험감독자기구(CEIOPS)는 Solvency II를 추진하면서 보험부채 평가에 있어서 현행유출가치 방식 등에서 2단계 토론서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최근 IFRS4와 일정을 달리하면서 이슈별 불일치가 커질 가능성도 보임.
 - Solvency II는 보험부채 평가에 신용등급의 변동 반영, 보험계약 중 저축 및 투자서비스 부분의 인위적 분리를 제안하는 2단계 토론서에 반대 의견을 제시
 - 자기자본규제를 시행하고 보증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산업에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채무불이행 위험(nonperformance risk)이 보험회사의 부도위험(default risk)보다 낮으므로 신용등급 반영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임.²¹⁾
 - Solvency II와 2단계 토론서는 현금흐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2단계 토론서는 보험계약자 행동에 따라 좌우되는 미래보험료, 임의적인 배당과 같이 강제되지 않은 현금흐름 등을 부채 평가에서 배제하고 있음.
 - 비용에서도 보험회사의 실제 비용이 아닌 가상의 시장참가자 개념에 근거한 이론적 비용을 사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 CFO 포럼이 내재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원칙을 공표함으로써 내재가치가 보험부채 측정의 국제기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20) 시장에서는 요구자본방식이 선호되고 있음. 요구자본과 백분위법에 대해서는 이경희,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IBR, 제27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8. 참조

21) Kennedy, G., "Creating a New Accounting Standard", *Risk Management*, 2008.

- CFO포럼의 표준 제시와 함께 내재가치방식을 사용하는 보험회사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보험부채에 대하여 1단계 IFRS4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음.
- 내재가치 평가는 현금흐름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2단계 토론서와 달리 미래의 보험료와 배당 등 모든 현금흐름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평가됨.
 - 다만, 단일 현금흐름 추정치와 무위험이자율이 리스크마진으로 조정된 할인율(risk discount rate)을 이용하여 시장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음.
- 최근의 대표적 내재가치 평가방식에는 시뮬레이션(real world)방식과 확률모형을 이용하는 MCEV(marker-consistent embedded value)방식이 있음.
 - 시장데이터를 사용하고 리스크마진을 포함하는 MCEV는 2단계 토론서와 유사하며, CFO 포럼은 2010년 MCEV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임.

나. IASB/FASB: 시장의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관점으로 전환

- 2009년 2월 IASB/FASB는 2단계 토론서의 공정가치 측정의 기본 틀인 현행유출가치를 논의에서 배제함.
 - IASB와 FASB는 유통시장에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적은 보험부채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유출가치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함.
 - 그동안 IASB는 가상의 시장참가자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부채 측정 기준을 제시
 - 따라서 이번 현행유출가치의 폐기는 관찰할 수 없는 가상의 시장참가자가 아닌 보험회사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IASB와 FASB는 3요소에 의한 측정, 가용한 모든 정보의 반영, 상품판매 시 이익인식 금지(no gain at issue)²²⁾의 3원칙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고려하고 있음.
 - IASB와 FASB는 부채 측정의 새로운 틀로서 IAS37²³⁾에서 제시된 평가방식(이하 IAS37모형)과 현행이행가치(CFV: current fulfillment value) 방식을 논의 중임.
 - IAS37은 부채에 대한 최선추정치는 관련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화폐의 시간가치가 중요할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

22) IASB/FASB의 수익인식회계기준 프로젝트의 잠정 결론에 따른 것임.

23) IAS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현재가치 측정 효과가 크지 않은 손해보험에 대해서 미경과보험료방식 (UPM: unearned premium model)을²⁴⁾ 따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 중임.

- 한편, 그동안 보험산업에서 지적되어 왔던 상품판매와 동시에 이익이 인식되는 (positive day one difference or day one gain) 문제에 대해서 초기 이익 인식의 방식을 위한 세부 대안 도출에서는 IASB와 FASB가 이견을 보임.

- 현금흐름을 측정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FASB는 2단계 토론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시된²⁵⁾ 현행이행가치(CFV)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IASB는 IAS37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채평가모형을 선호함.

- CFV모형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까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청산개념(settlement value approach)에서 보험부채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임.

- 이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측정에서 제기된 신용등급의 반영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IAS37모형은 현재의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기업이 합리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험부채의 가치를 정의하고, 사업비 지급 등에 따른 손익(day one difference)을 기타마진(residual margin)에서 반영함.

- IAS37은 계약에 의한 부채는 물론 소송, 자가보험 등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형태의 부채도 포함하고 있으며, 부채의 가치를 판매자 입장에서 측정

- CFV모형과 IAS37모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진의 명시적 고려 여부이며, 이는 IAS37이 기존의 현행유출가치에 보다 근접한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음.

- IAS37은 마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고려하나, CFV 모형은 복합마진으로만 산출하여 리스크마진 등을 암묵적으로 고려함(<그림 5> 참조).

- IAS37모형은 부채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리스크마진(risk margin), 서비스 제공에서 기대되는 이익을 반영하는 서비스마진(service margin), 순보

24) 이 경우 공정가치(현재가치) 측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IFRS4 1단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부채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25) CFO 포럼과 CRO 포럼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협료에 대한 초기 조정항목으로서의 기타마진(residual margin)을 명시적으로 구분함.

- 그러나 IAS37모형과 CFV모형 모두 마진이 어떻게 수익으로 인식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그림 5> IASB/FASB의 새로운 대안 논의



자료: Deloitte, "Filing for the Divorce?" Insurance Accounting Newsletter, Issue 7, 2009.

- 한편, IASB와 FASB는 신계약비에 대한 당기비용 처리 원칙에는 동의하나,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신계약비가 다르게 지출되었을 경우 초과 지출된 신계약비의 처리에 대하여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마진 논의와 연계되어 있음.
- FASB는 서비스가 제공되었을 때만 수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서부터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동일한 리스크”에 동일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판매채널 등의 차이에 따른 사업비 차이를 조정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봄.
 -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영업보험료를 초과하여 지출한 신계약비는 손실(day one loss)로 인식되어야 함.

- 반면, IASB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일한 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초과 지출된 신계약비는 영업보험료에 합산하여 모두 수익으로 인식되며, 초과 지출된 부분을 기타마진에 반영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함.
- 초과 지출된 금액을 한도로 판매와 동시에 이득(day one gain)을 계상하는 방식임.
- 이 경우 이익 인식의 형태는 초기에는 현재의 보험회계관행과 유사하게, 후기에는 현행유출가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그림 3> 참조).

4. 향후 전망

IFRS4 2단계 논의는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로서 현재가치를 매기마다 일관되게 측정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상의 시장참가자의 기대 대신 보험회사의 관점을 반영하는 형태로 전환됨으로써 향후 논의의 진전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

- 2008년 FASB가 IFRS4 2단계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것은 IASB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정합성 제고(convergence) 노력은 물론 IFRS4 2단계 기준의 전망에도 좋은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IFRS4 2단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FASB의 공동 참여는 2009년말이나 최소한 2010년초에 2단계 초안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
- 더구나 IASB/FASB는 2단계 토론서에서 정한 측정 3요소와 가용한 시장정보의 반영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행유출가치의 틀을 바꾸는 변화를 시도하여 보험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
- IFRS4 2단계 논의가 보험권에 보다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향후 6개월 내에 기준서 초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보험회사들이 IFRS4를 준비하면서 부담할 불확실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보험부채를 제3자에게 이전한다는 기존 틀을 배제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의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새로운 대안은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구도로서,

- 이는 그동안 금기시되어 온 보험회사 경험치(entity-specific value)의 반영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보험권에서 제기된 이견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을 보임.
- 물론, 현재 검토되고 있는 IAS37모형이나 CFV모형 중 어느 모형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들 대안이 측정 3요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므로 2009/2010 논의를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Solvency II의 보험부채 측정 논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임.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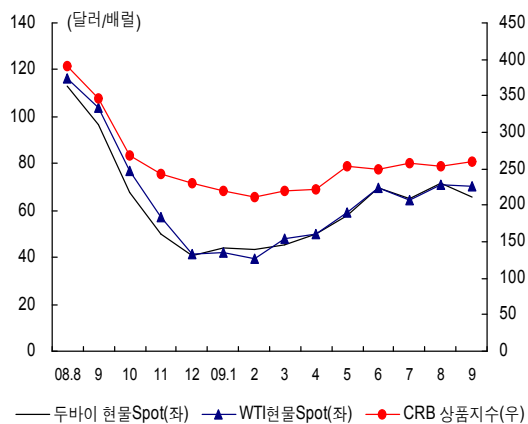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공조를 통한 경기진작 정책은 내수부문 회복과 세계교역의 회복에 기여하였고,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조기에 축소시키는 역할을 함.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와 투자보다는 경기진작 정책에 힘입은 회복추세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속가능여부가 주목되며 유동성확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의 불안정성과 고실업률은 빠른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세계경제는 경기진작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중국 등 신흥국에서는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플러스 성장 내지 감소세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모습임.
- 미국경제는 투자 부진, 주택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확대, 순수출 감소세 둔화 등으로 성장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주요 경기관련 지표들이 개선됨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유로경제는 순수출과 민간소비의 증가 및 투자 부진의 현저한 완화 등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금융위기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던 동구권 국가들은 내수 부진 지속과 고실업률 및 고물가까지 겹쳐 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일본경제는 아시아 지역 중심의 수출회복과 경기진작정책에 따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선진국 중에서는 비교적 빨리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나 높은 고실업률, 디플레이션 압박 등은 향후 성장에 제약요인 될 것으로 보임.
- 중국경제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진작정책에 의한 내수 회복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실현하면서 하반기의 회복 가속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시장의 과열 조짐도 상존하고 있음.
- 세계물가는 최근 주요 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유동성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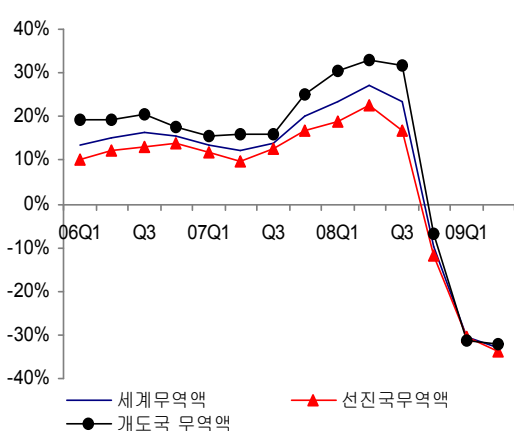
- 지난해 말 배럴당 42달러이던 국제 유가(WTI)는 9월말 현재 71달러로 상승하였고, 국제 원자재가격인 CRB지수¹⁾도 지난해 말에 비해 13.0% 상승함.
- 국제 원자재가격의 최근 상승추세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 약세로 인한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데 이와 같은 상승은 향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세계무역은 각국의 공공지출 확대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어 향후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줌.
- 2/4분기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33.0% 감소하여 하락폭이 축소되었고 전분기대비로는 6.6% 증가하여 세계 교역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임.
-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의 무역은 전분기대비 12.0% 증가하고 선진국은 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도국이 세계교역의 회복을 주도하는 모습임.

<그림 1>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자료: WTO

1)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22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가. 미국경제

2009년 2/4분기 미국의 실질 GDP는 0.7% 감소하여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분기 대비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안정되는 모습임.

7-8월 중에는 경기선행지수, 산업생산지수의 지속적 상승, 재고 감소 등 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는 등 고용사정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최근 동향 및 전망〉

- 미국의 2009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투자·순수출의 감소세 축소 및 정부지출의 증가가 민간소비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시켜 마이너스 성장폭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임.
 - 민간소비는 실업률 상승에 의한 임금소득의 감소 등으로 내구재 소비(-5.6%)를 중심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0.9% 감소함.
 - 설비투자는 기업의 실적 호전으로 노후 설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감소세가 크게 축소되었고, 주택투자 역시 세금혜택에 힘입어 감소세가 축소됨.
 - 수출과 수입은 전분기 대비 감소폭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순수출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실질 GDP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지출은 경기부양책으로 6.7%나 증가하면서 실질 GDP의 감소세를 크게 축소시킴.
- FOMC²⁾는 하반기부터 미국경제가 상승기조로 돌아설 것이며, 2010년에는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면서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함.
 - 실질 가처분 소득의 감소에 기인하는 최근 소비 부진은 금융자산가치 회복으로 상쇄되고 있으며, 재고조정도 끝나감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미국경기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신용경색 완화가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 확대도 당분간 지속될

2) FOMC,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09.8.11~12

것이므로 2010년에는 가계, 기업의 활력 회복으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표 1>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연율, 전기대비, %)

	2007	2008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실질GDP	2.1	0.4	-0.7	1.5	-2.7	-5.4	-6.4	-0.7
민간소비	2.6	-0.2	-0.6	0.1	-3.5	-3.1	0.6	-0.9
설비투자	6.2	1.6	1.9	1.4	-6.1	-19.5	-39.2	-9.6
주택투자	-18.5	-22.9	-28.2	-15.8	-15.9	-23.2	-38.2	-23.3
수출	8.7	5.4	-0.1	12.1	-3.6	-19.5	-29.9	-4.1
수입	2.0	-3.2	-2.5	-5.0	-2.2	-16.7	-36.4	-14.7
정부지출	1.7	3.1	2.6	3.6	4.8	1.2	-2.6	6.7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9.9.30

<고용과 물가>

□ 경기후행성을 보이는 실업률은 최근의 경기위축 완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고, 비농업취업자수도 감소세를 지속하는 추세임.

○ 상승세를 지속하던 실업률은 지난 7월에는 9.4%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8월에는 다시 상승하여 9.7%, 9월에도 9.8%로 상승함.

- 연령·성별로는 16~19세 남성의 실업률이 29.5%를 기록하여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비농업취업자수는 1월 이후 감소폭은 축소되고 있으나 계속 감소하고 있어 고용사정이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FOMC는 하반기에도 실업률의 상승은 지속할 것이며,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는 2010년에나 점진적인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2008	2008			2009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¹⁾
실업률	5.8	6.5	6.8	7.2	7.6	8.1	8.5	8.9	9.4	9.5	9.4	9.7
비농업취업자증감 ¹⁾	-3,078	-380	-597	-681	-741	-681	-652	-519	-303	-463	-276	-201
소비자물가 ²⁾	3.8	3.7	1.1	0.1	0.0	0.2	-0.4	-0.7	-1.3	-1.4	-2.1	-1.5
(근원 소비자물가)	2.3	2.2	2.0	1.8	1.7	1.8	1.8	1.9	1.8	1.7	1.5	1.4
생산자물가 ²⁾	6.4	5.2	0.4	-0.9	-0.9	-1.4	-3.4	-3.7	-5.0	-4.6	-6.8	-4.3
소매판매	3.3	-3.1	-2.1	-3.2	1.7	0.4	-1.2	-0.3	0.5	0.8	-0.1	2.7
재고/도매판매비율 ³⁾	1.17	1.21	1.29	1.32	1.34	1.31	1.32	1.31	1.28	1.25	1.23	1.20
주택착공호수	-33.3	-7.2	-14.2	-15.1	-12.2	17.6	-9.2	-8.1	15.0	6.5	-1.0	1.5
주택가격지수 ⁴⁾	208.7	203.4	199.6	199.1	201.0	201.6	198.8	198.0	199.2	199.4	200.1	-
소비자신뢰지수 ⁵⁾	58.0	38.8	44.7	38.6	37.4	25.3	26.9	40.8	54.8	49.3	47.4	54.1
미시간대체감지수 ⁶⁾	63.8	57.6	55.3	60.1	61.2	56.3	57.3	65.1	68.7	70.8	66.0	65.7
경기선행지수 ⁷⁾	101.0	99.4	98.9	98.8	98.6	98.2	97.9	98.9	100.2	101.0	101.9	102.5
산업생산지수 ⁸⁾	108.8	106.2	104.8	102.4	100.2	99.3	97.7	97.2	96.1	95.8	96.7	97.4
산업생산가동률	77.6	75.4	74.4	72.7	71.2	70.6	69.5	69.2	68.5	68.3	69.0	69.6
재고/출하비율	1.28	1.33	1.42	1.44	1.46	1.45	1.46	1.45	1.45	1.41	1.39	1.38
ISM제조업지수	45.5	38.9	36.6	32.9	35.6	35.8	36.3	40.1	42.8	44.8	48.9	52.9

주 : 1) 증가분 천명, 계절조정 2) 전년동기대비, 3) 제조업자 직거래 제외 4) 1991.1=100

5) 1985=100, 6) 1966 Q1=100, 7) 2004=100, 8) 2002=100.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 최근 미국의 물가는 경기침체로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유가 등 에너지관련 원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라 감소폭이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소비자물가는 7월에 에너지가격의 대폭적인 하락(28.1%)으로 -2.1%가 하락하였고, 8월에도 에너지가격의 상승(4.6%) 등의 영향으로 -1.5%로 하락폭이 축소됨.
- 생산자물가는 7월에는 기록적인 -6.8%를 기록하였으나, 8월에는 -4.3%를 기록하여 하락세가 둔화됨.
- 7월의 생산자물가 하락은 중간재(-15%)와 원자재(-44.8%) 가격의 대폭적인 하락에 기인한 반면, 8월에는 이들 가격의 상승세 반전으로 하락세가 둔화됨.
- FOMC는 최근의 원자재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고실업률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2010년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내수부문〉

- 최근 소매판매 및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재고/도매판매비율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내수부문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임.
 - 소매판매는 5월부터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8월에는 중고차보상정책(cash-for-clunkers)에 힘입은 자동차·부품판매의 증가(10.6%)로 인해 큰 폭(2.7%)으로 증가함.
 - 재고/도매판매비율도 5월부터 내구재 전반에 걸쳐 둔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도매판매가 개선되고 있음.
 - 주택착공호수는 7월의 일시적인 하락을 제외하고 5~8월에 걸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기존주택거래와 계류(pending)주택거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가격도 점차 회복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경기의 침체가 완화되는 모습임.
-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경기체감지수들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2/4분기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였고, 경기선행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하반기 경기전망을 밝게 해줌.
 -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신뢰지수는 5월 중 54.8로 반등한 이후 소폭 하락하다가 8월에 다시 54.1을 상승함으로써 경기확대에 대한 기대를 이어감.
 - 경기선행지수도 5월 중 100.2에서 8월 현재 102.5까지 상승함으로써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여줌.

〈생산부문〉

- 산업생산지수, 산업생산가동률은 6월을 저점으로 상승함으로써 생산부문의 회복기대를 높였고, 재고/출하비율도 점차 낮아짐으로써 하반기 생산 확대의 전망을 높여줌.
 - 산업생산지수는 6월의 95.8를 저점으로 8월에는 97.4까지 상승했는데 특히 최종소비재 생산 증가는 주목됨.
 - 산업생산가동률도 6월의 68.3%를 저점으로 8월에는 69.6%까지 증가했으며, 전기가스부문이 특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재고/출하비율도 6월부터 급격히 둔화됨으로써 하반기 생산수준의 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 ISM 제조업지수³⁾는 제조업의 고용부문을 제외한 생산관련 지표 중 대부분이 상승함으로써 경기회복을 기대하는 모습임.
- ISM제조업지수는 1월의 35.6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왔으며, 8월에는 경기확대 기준인 50을 상회하는 52.9까지 상승함에 따라 제조업 생산의 회복이 기대되는 모습임.

3)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ISM)가 미국 내 20개 업종 400개 이상 회사를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실시해 산출하는 제조업부문 생산체감지수로써 주문, 생산, 고용, 출하, 재고, 가격, 수출, 수입 등을 대상으로 함.

나. 유로경제

유로경제는 2009년 2/4분기에도 실질 GDP가 감소함으로써 5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순수출과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투자 부진이 크게 완화되는 등 극심한 경기침체 기조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임.

유로지역 전반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소비 및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내수부문의 하락세 둔화가 나타난 반면, 동구권 국가들에서는 고실업률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경제의 불안전성이 더욱 높아짐.

<최근 동향 및 전망>

- 2009년 2/4분기 유로지역의 실질 GDP는 0.2% 감소하였으나, 순수출의 증가, 민간소비 개선, 투자부진의 완화 등으로 경기하강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임.
 - 수출과 수입이 각각 -1.5%와 -2.9%로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을 크게 축소하여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2/4분기 실질 GDP 성장을 견인함.
 - 민간소비는 전분기의 -0.5%에서 0.1%의 증가세로 반전하여 실질 GDP 성장에 기여함.
 - 투자는 -15.%로 감소세를 지속함으로써 실질 GDP 하락에 주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감소폭이 크게 완화됨.
- 유로지역의 중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2/4분기 실질 GDP는 5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영국도 경기위축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임.
 - 독일은 민간소비 증가세 유지, 투자의 증가세 전환, 순수출의 증가 등 내수 및 대외부문의 회복으로 실질 GDP가 0.3%의 증가세 반전하면서 경기위축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임.
 - 프랑스 또한 민간소비 증가세 유지, 투자부진 축소 및 순수출의 증가로 인해 실질 GDP가 0.3%의 증가세를 시현함으로써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여줌.
 - 영국은 민간소비와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여 실질 GDP는 0.6% 감소하였으나,

4) 국가별 유로경제의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독일 26.8%, 영국 20.3%, 프랑스 19.7%임.

전분기(-2.5%)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크게 둔화됨.

□ EC⁹⁾는 최근 유로경기가 조기회복이 이루어지나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흥가동시설, 저채산성, 고실업률, 주택시장 회복 등이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독일경제는 3/4분기에 0.7%, 4/4분기에 0.1% 성장하며, 프랑스는 3/4분기에 0.4%, 4/4분기에 0.3%, 영국은 3/4분기에 0.2%, 4/4분기에 0.5%, 이탈리아는 3/4분기에 0.2%, 4/4분기에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

	2007	2008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EA16 실질 GDP	2.7	0.7	0.7	-0.3	-0.3	-1.8	-2.5	-0.2
민간소비	1.6	0.4	0.1	-0.3	0.0	-0.5	-0.5	0.1
고정자본형성	4.8	0.0	1.1	-1.3	-1.5	-3.5	-5.4	-1.5
정부지출	2.2	1.9	0.4	0.9	0.5	0.6	0.6	0.7
수출	5.9	1.0	1.6	-0.3	-1.0	-7.0	-9.2	-1.5
수입	5.3	1.0	1.1	-1.0	0.3	-4.6	-7.9	-2.9
독일 실질 GDP	2.5	1.3	1.5	-0.5	-0.3	-2.4	-3.5	0.3
민간소비	-0.4	-0.1	-0.4	-0.6	0.3	-0.4	0.6	0.7
고정자본형성	4.3	4.4	2.4	-2.4	0.6	-2.0	-7.7	0.8
영국 실질 GDP	3.0	0.7	0.3	-0.1	-0.7	-1.8	-2.5	-0.6
민간소비	3.0	1.4	1.2	-0.2	-0.4	-1.2	-1.5	-0.7
고정자본형성	6.8	-3.1	-1.7	-2.3	-3.6	-2.2	-7.3	-5.2
프랑스 실질 GDP	2.3	0.3	0.4	-0.4	-0.3	-1.4	-1.4	0.3
민간소비	2.4	0.9	-0.2	0.1	0.2	0.1	0.2	0.2
고정자본형성	4.9	0.4	0.9	-1.4	-1.2	-2.5	-2.6	-0.9

주: Euro Area는 2009.1부터 슬로바키아를 포함하여 15개 회원국에서 16개 회원국으로 변경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09.10.7

5) European Commission, September 2009 Interim Forecast, 2009.9.14

<표 4>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08	2008			2009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EA16												
ESI ¹⁾	91.2	81.6	76.8	68.9	67.2	65.3	64.6	67.3	70.2	73.3	76.0	80.6
실업률 ²⁾	7.6	7.8	8.0	8.2	8.6	8.8	9.0	9.2	9.3	9.4	9.5	9.6
소비자물가 ³⁾	3.3	3.2	2.1	1.6	1.1	1.2	0.6	0.6	0.0	-0.1	-0.7	-0.2
소매판매지수 ⁴⁾	102.7	102.0	102.0	101.8	101.4	101.0	100.9	101.1	100.6	100.6	100.4	100.2
소비자신뢰지수 ⁵⁾	-18.0	-23.5	-25.1	-29.7	-30.5	-32.9	-34.2	-30.5	-28.1	-25.1	-23.0	-22.0
제조업기대지수 ⁵⁾	-1.9	-13.2	-21.9	-30.3	-31.0	-31.7	-31.6	-25.2	-20.5	-15.8	-13.4	-7.7
산업생산지수 ⁶⁾	106.2	101.9	99.0	96.1	93.5	91.2	90.2	88.8	89.4	89.2	89.0	-
산업신뢰지수 ⁵⁾	-9.4	-18.2	-24.8	-33.0	-33.4	-36.1	-37.8	-35.0	-33.2	-31.7	-29.6	-25.4
독일												
ESI ¹⁾	96.0	88.9	82.5	77.3	74.3	72.9	72.2	73.3	74.4	77.6	80.8	85.9
실업률 ²⁾	7.3	7.1	7.1	7.2	7.2	7.3	7.4	7.6	7.6	7.7	7.7	7.7
소비자물가 ³⁾	2.6	2.4	1.4	1.1	0.9	1.0	0.4	0.8	0.0	0.0	-0.7	-0.1
소매판매지수 ⁴⁾	96.4	96.1	96.0	96.5	95.5	95.4	95.3	96.4	95.4	94.5	95.2	93.8
산업생산지수 ⁶⁾	111.5	109.6	104.9	100.2	93.6	90.1	90.3	87.5	91.9	92.7	92.0	-
영국												
ESI ¹⁾	84.7	75.4	67.8	67.5	60.1	56.6	56.2	61.3	66.1	68.8	73.8	83.5
실업률 ²⁾	5.6	6.1	6.3	6.5	6.8	7.1	7.3	7.5	7.7	7.8	-	-
소비자물가 ³⁾	3.6	4.5	4.1	3.1	3.0	3.2	2.9	2.3	2.2	1.8	1.8	1.6
소매판매지수 ⁴⁾	109.9	109.9	110.2	110.4	111.5	109.0	110.3	110.5	109.6	111.6	111.4	111.1
산업생산지수 ⁶⁾	93.8	95.1	92.9	91.5	89.1	88.4	88.1	88.2	87.8	88.3	89.0	-
프랑스												
ESI ¹⁾	95.4	85.4	84.0	75.2	74.8	74.1	73.4	74.6	77.5	80.9	81.3	83.2
실업률 ²⁾	7.8	8.0	8.2	8.3	8.6	8.9	9.0	9.2	9.4	9.5	9.7	9.9
소비자물가 ³⁾	3.2	3.0	1.9	1.2	0.8	1.0	0.4	0.1	-0.3	-0.6	-0.8	-0.2
소매판매지수 ⁴⁾	107.9	106.6	107.3	106.5	106.9	105.9	106.2	107.8	106.9	108.0	107.4	-
산업생산지수 ⁶⁾	99.9	95.7	93.0	91.6	87.3	87.0	85.4	84.2	86.8	87.0	87.1	-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 (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연간화, 4) 계절조정 2005=100, 5)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 2009.10.15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09.10.7

<고용과 물가>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되어 두 자리에 근접해가는 모습임.

- 실업률은 8월에 9.6%를 기록하여 199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연령별로는 25세 이하의 청년실업률이 19.7%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실업률이 6~8월 연속 7.7%를 기록함으로써 고용시장의 급격한 악화가 억제되는 모습이나, 프랑스는 5월부터 유로지역 평균 실업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8월에는 9.9%까지 상승하는 모습임.
- 8월 현재 유로지역내에서 실업률이 낮은 국가는 네덜란드(3.4%), 오스트리아(4.4%)이며, 라트비아(17.4%), 리투아니아(13.7%), 에스토니아(13.3%) 등 발틱 3국이 높은 국가에 속함.
-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6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에너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락폭이 소폭 변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7월 중 소비지물가는 에너지 가격의 큰 폭 하락(-14.4%)으로 0.7% 감소하였으나, 8월에는 에너지가격의 반등으로 0.2% 감소하는데 그침.
- 프랑스는 6월부터, 독일은 7월부터 소비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가격의 변동으로 하락폭이 다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8월까지도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임.

<내수부문>

-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실업률이 높은 발틱 3국의 판매 급감, 주요국의 하락세 전환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민간소비의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임.
- 7-8월 중 소매판매는 비식품부문의 판매감소가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여기에는 라트비아(-3.3%), 리투아니아(-2.3%), 에스토니아(-1.4%) 등 발틱 3국의 판매감소가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독일의 소매판매도 8월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영국과 프랑스의 소매판매도 7월부터 하락세로 반전됨.
- 유로지역의 소비자신뢰지수와 제조업기대지수는 계속 마이너스를 나타냄으로써 소비와 투자부문의 체감경기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들 지수의 감소세는 최근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4월 -30.5에서 8월 -22.0으로 하락률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제조업기대지수도 4월 -25.2에서 8월 -7.7로 감소폭을 둔화되는 모습임.

<생산부문>

-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하락폭이 크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월 중 산업생산지수의 하락은 에너지관련 재화와 자본재의 생산 감소가 주원인으로 작용함.
 - 국가별로는 독일의 산업생산지수는 5~6월의 반등 후 하락하는 추세이며, 프랑스와 영국은 6~7월에 반등하는 모습임.
- 생산부문의 전망을 나타내는 산업신뢰지수는 최근 하락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 하반기 생산 감소의 현저한 둔화가 예상되고 있음.
 - 산업신뢰지수는 3월 중 -37.8로 크게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폭이 축소되는 추세이며, 8월 현재 -25.4까지 축소됨.

다. 일본경제

일본의 2009년 2/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 순수출 증가에 힘입어 0.9%를 시현함으로써 5분기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높은 실업률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최근의 소비재 재고조정, 경기부양책의 효과 가시화, 세계경기 개선 등은 경기회복의 활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최근 동향 및 전망〉

- 일본의 2/4분기 실질 GDP는 공공투자 확대, 순수출 및 민간소비 증가, 설비투자의 감소폭 축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3.7%p 상승한 0.6%를 기록함으로써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으로 공공투자가 전기대비 7.5%나 증가하였고, 여기에 중국 등 아시아 중심의 경기회복과 글로벌 재고조정에 힘입어 수출이 6.4% 증가함으로써 실질 GDP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함.
 - 민간소비는 일본정부의 소비진작정책⁶⁾에 힘입어 0.8% 증가로 반전하였으나, 설비투자는 경기불확실성과 유희설비로 인해 감소폭의 축소에 그쳤으며, 주택투자는 수요부진으로 인해 감소세가 확대됨.
- 일본경제연구센터⁷⁾는 하반기에도 수출증가가 지속되며, 민간소비가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1%미만의 성장을 유지하여 2009년에 -3.3% 성장에 그치지만, 2010년부터는 내수회복으로 1.4% 성장을 전망함.
 - 하반기에도 민간투자는 계속 감소할 것이나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며, 세계경기의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민간소비의 개선 등으로 0.6%내외의 플러스성장이 예상되며, 2010년에는 내수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1.4%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6) 소비진작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eco-car) 감세 및 보조금 지급, 친환경포인트(eco-point)제도 도입, 정액급부금 지급 등을 추진함.

7) 일본경제연구센터, 단기경제예측, 2009.10.

<표 5>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

	2007	2008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2.3	-0.7	1.0	-1.1	-1.0	-3.5	-3.1	0.6
민간소비	0.7	0.6	1.3	-1.0	0.1	-0.7	-1.2	0.7
설비투자	5.7	-3.9	1.3	-1.7	-4.9	-7.1	-8.5	-4.8
주택투자	-9.7	-7.6	4.6	0.0	3.5	2.6	-5.7	-9.5
정부소비	1.9	0.8	-0.3	-0.7	-0.2	1.3	0.1	-0.3
공공투자	-7.3	-6.9	-3.4	-5.1	1.7	2.2	2.6	7.5
수출	8.4	1.8	6.0	-4.1	-0.8	-13.6	-22.5	6.4
수입	1.5	0.9	3.0	-3.1	0.2	2.5	-14.9	-5.1

자료: 내각부, 2009.9

<표 6>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

	2008	2008			2009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¹⁾	1.4	1.7	1.0	0.4	0.0	-0.1	-0.3	-0.1	-1.1	-1.8	-2.2
(근원소비자물가)	0.0	0.2	0.0	0.0	-0.2	-0.1	-0.3	-0.4	-0.5	-0.7	-0.9
실업률 ²⁾	4.0	3.8	4.0	4.3	4.1	4.4	4.8	5.0	5.2	5.4	5.7
소매판매액 ¹⁾	0.3	-0.7	-0.9	-2.7	-2.4	-5.7	-3.8	-2.8	-2.7	-2.9	-2.5
소비자태도지수 ³⁾	32.7	30.1	29.2	27.6	28.4	28.7	31.9	35.0	36.3	38.1	39.7
주택착공호수 ⁴⁾	109	104	99	100	96	87	89	78	76	75	75
민간기계수주액 ¹⁾	-6.0	-15.5	-27.7	-26.8	-39.5	-30.1	-22.2	-32.8	-38.3	-29.7	-34.8
수출 ¹⁾	-3.5	-7.9	-26.8	-35.0	-45.7	-49.4	-45.5	-39.1	-40.9	-35.7	-36.5
수입 ¹⁾	8.0	7.4	-14.4	-21.5	-31.9	-43.0	-36.6	-35.8	-42.4	-41.9	-40.8
광공업생산지수 ⁵⁾	103.8	100.1	93.1	85.3	76.7	69.5	70.6	74.8	79.1	80.9	82.6
광공업가동율	99.3	95.3	87.6	78.5	68.7	60.5	61.0	67.2	72.6	74.3	77.2
재고출하비율	108.6	113.6	124.6	132.1	150.3	158.5	150.1	143.0	143.1	128.8	123.6

주: 1)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 3) 기준치=50, 4) 만호, 5) 2005=100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최근의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민간소비의 회복 지연, 디플레이션의 압력 증가 등으로 인해 기업이 고용 확대를 억제하면서 더욱 악화되는 추세임.
 - 7월의 실업률은 5.7%로 통계작성(195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상승세도 전월대비 0.3%p로 빨라지는 모습이며, 특히 15~24세의 청년실업률이 9.9%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의 수출 증가로 인한 생산부문의 호조는 새로운 고용 창출보다는 기존 고용을 중심으로 시간외 노동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는 소비부진, 으로 큰 폭으로 하여하락폭을 기록하였고 근원소비자물가도 하락함으로써 일본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됨.
 - 7월의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의 하락(17.5%), 수도·광열의 하락(7.4%), 교통·통신의 하락(8.1%)에 기인하여 2.2% 하락함.
 - 8월에는 국제유가 하락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악화에 따른 소비부진과 기업서비스물가지수의 하락률 지속으로 소비자물가는 하락세를 유지함.
 - IMF는 소비자물가가 에너지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겠지만 하반기에도 수요부진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하락 압력은 커져서 2009년 -1.1%, 2010년 -0.8%의 하락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내수부문〉

- 소매판매액과 체감지수는 경기진작 정책에 힘입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등락을 반복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줘 민간소비부문의 회복에 불투명성이 증가되는 모습임.
 - 소매판매액은 4월과 6월에 감소세가 확대되고 5월과 7월에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등락을 반복 시현함.
 - 소비자태도지수는 연초부터 개선되는 추세로서 7월 중 39.7을 시현하였지만 여전히 경기확대기준(50)에는 미달한 상황임.

- 민간기계수주액, 자본재출하, 주택투자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부문 전반이 불투명해지는 모습임.
- 기업투자의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액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7월 현재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자본재출하 역시 7월 중 전월대비 1.3%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임.
- 주택투자부문의 신규주택 착공은 감소폭이 축소되고는 있으나 7월 현재 여전히 하락세에 해당함.

〈생산부문〉

- 광공업생산과 가동률은 최근의 수출 증가로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재고/출하비율도 하락추세를 보임에 따라 생산부문의 회복이 기대되는 모습임.
- 광공업생산과 가동률은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에는 미달하지만 최근 상승세가 빨라져 7월에는 각각 82.6과 77.2를 시현함.
- 생산부문의 선행지표인 재고/출하비율 역시 5월(143.1)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7월 중 123.6까지 하락함으로써 생산부문의 활력 회복이 기대됨.

라. 중국경제

2009년 2/4분기 중국경제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 및 소비가 회복되면서 실질 GDP가 7.9% 상승하는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함.

경기부양에 힘입은 내수부문의 회복세가 뚜렷해져 하반기 중국경제의 성장 가속화가 기대되고 있으나 최근의 유동성 급증에 따른 자산 버블은 이러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2009년 2/4분기 실질 GDP는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투자가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호전되고 소비도 견조세를 유지함에 따라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7.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와 투자는 중국정부의 재정·통화 정책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각각 15.0%, 33.6% 증가함으로써 2/4분기 실질 GDP의 상승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이 됨.
 - 수출은 전분기대비 23.5% 감소하여 실질 GDP를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수입 역시 20.2% 감소함으로써 하락폭을 크게 상쇄함.
 -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유동성 확대로 인해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시현함으로써 중국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임.
- IMF⁸⁾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중국경제는 수출이 증가하고 투자·소비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9년 실질GDP는 8.0%를 상회하며 2010년에도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IMF는 중국의 2009년 실질 GDP 성장률을 8.5%로 예상하였으며 2010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여 2008년 수준인 9.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함.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9.10.1

<표 7>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8	2008		2009		2009					
	연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질 GDP	9.0	9.0	6.8	6.1	7.9	-	-	-	-	-	-
고정자산투자 ¹⁾	26.1	27.6	26.1	28.6	33.6	28.6	30.5	32.9	33.6	32.9	33.0
소매판매	21.6	23.2	20.6	14.9	15.0	14.7	14.8	15.2	15.0	15.2	15.4
수출	17.2	23.0	4.3	-19.7	-23.5	-17.1	-22.6	-26.4	-21.4	-23.0	-23.4
수입	18.5	25.7	-8.8	-30.8	-20.2	-25.1	-23.0	-25.2	-13.2	-14.9	-17.0
산업생산	12.9	13.0	6.4	5.1	9.0	8.3	7.3	8.9	10.7	10.8	-
구매자관리지수	50.2	49.3	42.5	48.9	53.3	52.4	53.5	53.1	53.2	53.3	54.0
소비자물가	5.9	5.3	2.5	-0.6	-1.5	-1.2	-1.5	-1.4	-1.4	-1.7	-1.2
생산자물가	6.9	9.7	2.5	-4.6	-7.2	-6.0	-6.6	-7.2	-7.8	-8.2	-

주: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및 식료품가격의 하락으로 급락하였으나 최근에는 내수부문의 회복세에 힘입어 급락세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임.

○ 6월의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이 1.1% 하락하여 1.4% 하락하였고, 8월에는 주거, 의복 등 주요품목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어 소폭 반등함.

○ 부동산가격의 상승세 확대는 중국경제의 내수 회복세와 함께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에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IMF는 경기회복에 영향을 받아 소비자물가가 점차 증가하겠으나 단기간 내 급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IMF는 소비자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폭이 감소하여 2009년에 0.1% 하락하고 2010년에는 상승세로 전환되어 0.6% 상승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함.

<내수부문>

□ 소매판매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 정책에 힘입어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시차를 둔 소비진작 정책에 따라 지역적인 시차성을 시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정부는 5~8월 중 도시와 농촌지역에 대한 소비진작 정책을 차별적으로 시

행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식료품 및 가전제품의 판매가 급등하여 8월에는 전 지역의 소매판매가 15.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진작 정책으로 TV 등 5개 가전제품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에 대한 보조금 규모 증액 등이 시행됨.
- 고정자산투자 역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투자에 힘입어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함.
 - 고정자산투자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교통·전력 등 인프라투자가 이루어짐.
 - 6월의 급등이후 소폭 하락하다가 8월에는 금융위기이전의 수준으로 큰 폭 증가(33.0%)함.
- 중국의 주택시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주거용 빌딩을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다시 가속화되는 조짐임.
 - 6월 중 주택시장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2% 상승하여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는데 총 70개의 조사 대상 도시 중 34개의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시장의 개선은 부동산시장의 규제완화 조치, 최근 급증한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유입, 경기호조에 따른 기대심리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생산부문>

- 산업생산은 내수회복에 힘입어 2/4분기 실질 GDP 증가 속도보다 빠른 상승을 보여 주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임.
 - 산업생산지수는 2009년 1/4분기 중 5.1%에서 7월 중 10.8%까지 증가함.
 - 부문별로는 7월 현재 철강제품 생산이 19.4% 증가하고 자동차 생산이 51.6% 증가하여 산업생산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⁹⁾)는 최근 6개월 연속 기준치(50)를 상회함에 따라 생산부

9)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25%), 신규주문(30%), 취업(20%), 납품업체 배송(15%), 재고(10%)로 구성됨.

문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줌.

- 8월의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는 54로서 전월대비 상승폭이 커짐.
- 8월의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 구성부문 중 생산 및 신규주문 지수는 각각 57.9와 56.3을 시현하여 기준치를 상회하였고 수출주문지수도 4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여 수출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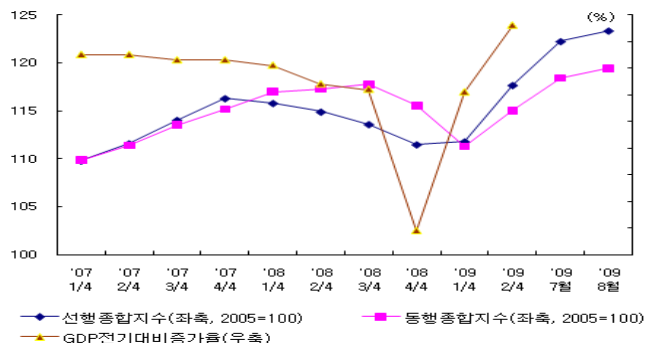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09년 2/4분기 중 실질 GDP는 실물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시현하였으나,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면서 경기침체속도는 점차 완화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소비관련 지표의 증가세 전환 등을 미루어 볼 때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9년 2/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였지만,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2.6% 증가함으로써 경기침체 속도는 완화되고 있음.
- 민간소비는 경기침체 및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민간의 소득여건 악화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8% 감소하였으나,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지출과 서비스 소비지출의 증가세에 힘입어 3.6%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 위축이 차츰 개선됨.

<그림 3> GDP와 경기지수 추이



주: 경기지수 분기증가율은 전월대비 증가율 평균임(2005년 연쇄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설비투자는 2/4분기 중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5.9%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 조짐 및 전분기 기저효과로 인해 기계류(계절조정 전기대비 6.7%)와 운수장비(계절조정 전기대비 21.2%)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시현함에 따라 계절조정 전기대비 10.1% 성장함.
- 건설투자는 정부의 지속적인 SOC 투자와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투자심리의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3.7% 성장하였고,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는 토목건설투자가 전분기의 높은 투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6.1% 감소한 반면,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9.1% 성장함.

<표 8> 실질 GDP와 수요 부문별 증가율¹⁰⁾

(전년동기대비, %)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5.5 (1.1)	4.3 (0.4)	3.1 (0.2)	-3.4 (-5.1)	2.2	-4.2 (0.1)	-2.2 (2.6)
- 민간소비	4.0	2.3	1.4	-3.7	0.9	-4.4	-0.8
- 설비투자	1.5	1.1	4.3	-14.0	-2.0	-23.5	-15.9
- 건설투자	-1.9	-0.3	0.2	-5.6	-2.1	1.6	3.7
- 재화수출 ²⁾	11.1	10.9	8.5	-11.6	4.1	-14.1	-4.2
- 재화수입 ²⁾	11.8	10.0	10.6	-11.6	4.6	-17.4	-14.3
국내수요 ³⁾	2.7 (0.3)	2.0 (0.2)	2.0 (0.2)	-3.6 (-4.3)	0.7	-3.8 (0.7)	-0.1 (3.4)

주: 1)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3) 국내수요=민간소비+정부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무형고정투자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 2/4분기 재화수출은 세계경제 침체의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4.2% 감소, 재화수입은 14.3%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기대로 점차 감소폭은 완화됨.
- 계절조정 전기대비 재화수출은 전기전자기기, 철강, 자동차 등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14.7% 성장함.
- 계절조정 전기대비 재화수입의 경우, 원유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금속제품, 전자부품, 전기전자기기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7.4% 증가함.

10)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2009년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경기선행지수가 2/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7~8월에도 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표 9> 소비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p	8월 ^p
소비재판매	4.4	2.9	1.4	-4.2	1.0	-4.9	1.6	1.8	2.0
- 내구재	9.5	8.7	0.0	-9.9	1.9	-13.6	4.0	0.1	5.5
승용차	9.6	7.1	-4.9	-19.5	-2.0	-21.3	18.4	9.9	19.4
- 준내구재	3.8	-2.1	0.6	-9.9	-2.4	-0.9	0.3	-2.2	0.2
- 비내구재	1.9	0.3	1.2	-0.4	0.7	-1.4	1.0	4.9	1.3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09년 2/4분기 소비재판매액지수는 경기회복 조짐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면서 지난 4/4분기 이후 지속되던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됨.

- 2/4분기 승용차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2/4분기 내구재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함.
- 의복 및 신발 등 준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였으나, 1~8월 중 판매액은 등락세를 반복하고 있고, 차량연료 등의 비내구재 판매도 2/4분기 들어 1.0% 증가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함.

□ 2/4분기 들어 나타난 경기회복 조짐에 따라 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설비투자 감소세는 지속됨.

- 지난 4/4분기부터 이어져 오던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에 대한 투자 감소세가 올 2/4분기 들어서도 뚜렷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7~8월에도 각각 전년 동월대비 24.4%, 22.0% 감소함.

-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1.3%가 증가하였으나, 7~8월의 증가세는 다소 약화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는 2/4분기 중 민간부문 발주량의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14.1%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다소 완화되고 있음.

<표 10> 투자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p	8월 ^p
설비투자	1.5	1.1	4.3	-14.0	-2.0	-23.5	-15.9	--	--
- 기계류	-5.4	-4.8	2.2	-14.5	-5.7	-21.9	-19.5	-24.4	-22.0
- 운수장비	3.7	7.3	6.4	-9.0	1.5	0.4	11.3	2.1	7.2
- 기계수주	22.7	-0.5	-15.2	-47.3	-12.8	-33.8	-14.1	7.3	-16.8
건설투자	-1.9	-0.3	0.2	-5.6	-2.1	1.6	3.7	--	--
- 건설기성	5.6	6.1	10.6	-2.2	4.7	4.5	7.0	-2.3	-6.8
건축	4.6	6.3	9.0	-10.6	1.7	-6.0	-3.1	-9.3	-10.5
토목	7.7	5.9	14.3	13.6	10.6	24.8	26.5	12.8	-0.1
- 국내건설수주	-3.7	-6.1	-22.7	-6.5	-9.0	-16.5	-2.0	2.9	-29.5
건축	5.3	-6.3	-37.2	-25.5	-17.4	-41.6	-48.6	-5.6	11.4
토목	-23.3	-5.2	16.2	50.7	13.9	58.3	133.6	19.2	-68.6

주: p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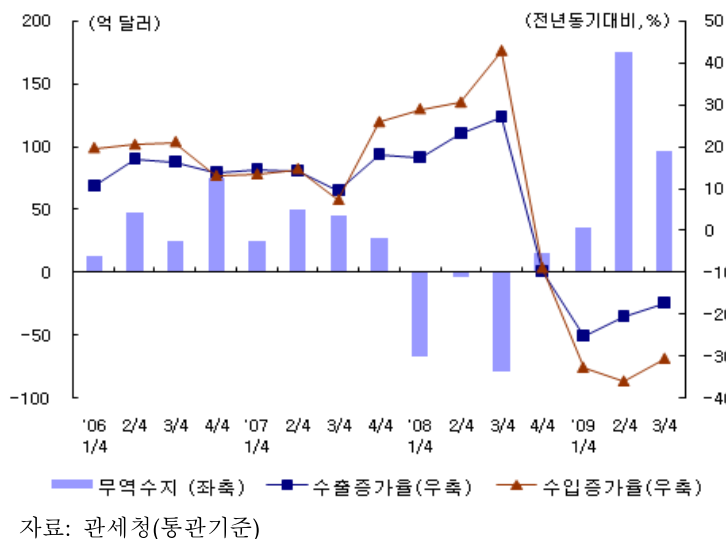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건설투자는 민간 건물건설의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공공 토목건설의 투자확대 지속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시현함.
- 건물건설은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 반면, 토목건설은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로 26.5% 증가하면서 2/4분기 건설기성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도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전분기보다 둔화됨.
- 공공부문의 토목건설 발주 증가로 인해 토목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133.6%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급증한 반면, 건물건설수주는 48.6% 감소로 그 감소폭도 증가하고 있음.

<대외거래>

-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2009년 3/4분기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7.4%, 30.6%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통관기준)는 수입 감소세가 수출보다 상회하면서 97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실현함.
-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4분기 25.0%의 최대 감소율을 기록한 이후 이번 3/4분기에 16.6% 감소하며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품목과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냄.
 - 품목별로는 금(74.6%), 정보통신기기(5.2%), 식료(2.9%), 반도체(1.5%) 등이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47.4%), 철강제품(-31.7%), 일반기계(-23.0%), 선박(-18.1%), 자동차(-5.2%) 등 수출 주력품목 대부분이 부진을 보임.
 - 지역별로는 EU(-29.7%), 중남미(-21.0%), 일본(-17.7%), 미국(-15.2%), 중동(-15.0%), ASEAN(-14.9%), 중국(-7.0%) 등 전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개도국(-16.7%) 보다는 선진국(-19.0%)의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수입은 2/4분기에 36.2% 감소한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른 주요 수입품목의 감소세 둔화로 3/4분기에는 -30.6%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됨.
 - 원자재(-38.8%), 소비자재(-28.7%), 자본재(10.6%) 등 주요 수입품목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라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 감소폭이 각각 4개월과 6개월 연속 둔화되는 등 전체 수입 역시 7월 이후 감소율이 다소 축소되고 있음. (7월: -35.6%, 8월: -32.2%, 9월: -24.6%)
 - 중동(-46.2%), 중국(-35.8%), 미국(-23.3%), EU(-22.3%), 일본(-21.0%), ASEAN(-16.8%), 중남미(-18.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7월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는 양상임.
- 3/4분기 무역수지는 수출입의 동반 상승세에서 수출회복세가 수입을 앞지르면서 9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작년 3/4분기 이후 무역수지는 4분기 연속 흑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월별로도 8개월 연속 흑자를 거두는 등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4> 대외거래 지표 추이



<산업생산>

□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면서 광공업생산의 감소폭이 둔화되었고, 서비스업생산은 증가세를 나타냄.

<표 11>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p	8월 ^p
광공업	10.9	8.9	5.6	-11.3	3.0	-15.5	-6.2	0.9	1.2
- 제조업	11.1	9.3	5.6	-12.1	3.0	-16.4	-6.6	1.0	1.2
- 중화학	13.2	11.6	6.8	-12.8	4.1	-17.0	-6.2	2.4	2.4
- 경공업	1.7	-1.2	0.0	-8.8	-2.2	-13.5	-8.8	-6.4	-5.2
- ICT	33.4	30.4	10.2	-24.2	9.4	-19.6	-1.1	9.5	14.2
서비스업	6.7	4.8	3.2	-0.4	3.4	-0.4	1.6	0.9	1.1
- 도매 및 소매업	4.0	3.1	3.6	-4.6	1.4	-4.0	-2.2	-1.6	-1.0
- 운수업	8.1	8.2	4.3	-3.2	4.3	-10.8	-9.5	-7.7	-5.2
- 숙박 및 음식점업	3.6	0.6	1.7	-3.0	0.7	-2.4	-0.3	-1.1	-5.4
- 부동산 및 임대업	5.7	2.7	-8.4	-7.5	-2.1	-3.1	1.5	7.7	10.6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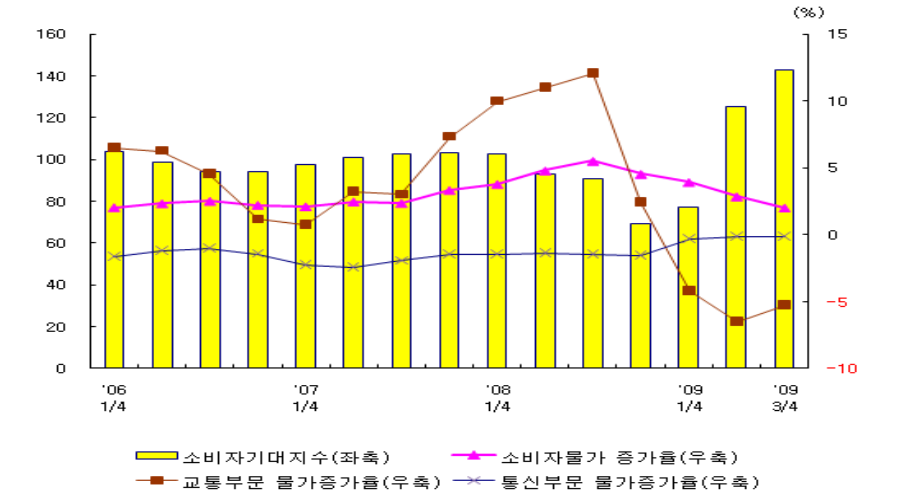
- 2/4분기 광공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하였으나, 제조업·중화학·경공업·ICT생산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세가 완화되었고, 7~8월 들어서는 경공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증가세가 나타남.
- 한편,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업, 운수업 등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임대업생산의 양호한 실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였고, 7~8월에도 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물가 및 고용〉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교통 및 통신 물가 하락세의 영향으로 2009년 3/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계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고용시장은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교통·통신 관련 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는 3/4분기 들어서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5.7%), 의복 및 신발(5.5%),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3.5%) 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교통(-5.2%), 통신(-0.1%) 부문에서 소비자물가가 하락함에 따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기대비 0.8%p 하락한 2.0%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2008년 1/4분기 이후 하락하던 소비자기대지수는 2008년 4/4분기를 저점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09년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과 주가 및 환율 등 거시금융지표들의 개선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소비자기대지수는 2008년 4/4분기를 저점으로 2/4분기에 125.1, 3/4분기에는 142.9까지 상승함.

<그림 5>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¹¹⁾



□ 고용시장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전분기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임.

- 2009년 2/4분기 중 총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6~8월 들어 감소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임.
- 2008년 59.5%를 나타냈던 고용률은 2009년 1/4분기 57.4%까지 하락한 후 2/4분기 들어 59.3%로 회복하였고, 7~8월에는 각각 59.4%, 58.8%를 기록함.
- 2008년 4/4분기 3.1%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전분기와 같은 3.8%를 기록함으로써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청년실업률은 2/4분기 들어 8.0%로 전분기대비 0.6%p 하락하며 다소 개선되었으나, 6~8월 들어 8.4%로 다소 악화되는 모습임.

11) 통계청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의 2008년 8월 소비자자기대지수 91.2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향후경기전망CSI의 8월치 77.0을 91.2가 되도록 환산한 다음 2008년 9월부터는 향후경기전망CSI를 소비자자기대지수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분기별로 단순 평균함.

<표 12> 고용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0.9	0.7	0.6	0.2	0.6	-0.6	-0.6	-0.3	0.0
- 청년취업자	-2.5	-2.1	-2.7	-4.0	-2.8	-5.1	-2.4	-2.7	-3.1
고용률	58.5	60.4	59.9	59.4	59.5	57.4	59.3	59.4	58.8
실업률	3.4	3.1	3.1	3.1	3.2	3.8	3.8	3.7	3.7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4.4	-2.9	-2.0	0.5	-2.1	1.0	-1.3	-1.2	-1.9
광공업	-0.3	-0.7	-1.1	-2.5	-1.1	-4.1	-3.8	-4.4	-3.5
- 제조업	-0.4	-0.8	-1.3	-2.6	-1.3	-4.1	-3.8	-4.3	-3.5
SOC 및 기타서비스업	1.6	1.4	1.3	0.8	1.3	0.0	0.2	0.7	1.0
- 건설업	-1.2	-2.4	-2.2	-2.2	-2.0	-2.5	-6.0	-7.0	-5.9
- 도소매음식숙박	-0.6	-0.7	-0.8	-1.1	-0.8	-2.0	-2.4	-2.9	-2.7
- 전기,운수,통신,금융	2.7	1.8	-0.7	-1.9	0.5	-2.6	-1.8	-2.0	-1.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8	4.0	4.5	4.0	4.1	3.2	4.5	6.1	6.0

주: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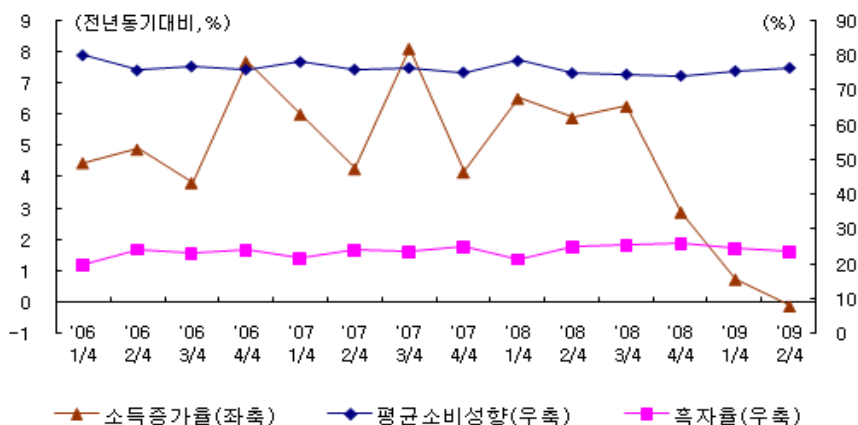
□ 2009년 2/4분기 산업별 취업자수는 농림어업 및 광공업에서 감소세를 시현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증가세를 나타냄.

- 농림어업의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가운데, 7~8월 들어서도 각각 1.2%, 1.9% 감소함.
-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부문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낮은 감소폭을 나타냈으나, 7~8월 들어서는 감소폭에 등락이 나타남.
-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였고, 7~8월에도 0.7%, 1.0% 증가함.

□ 2009년 2/4분기 가계동향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계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4분기 중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29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하였고,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득은 2.8% 감소함.
- 그러나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증가율은 207만원으로 전분기대비 4.9%p 증가한 1.4%를 나타냈고, 1.1% 감소한 실질소비지출은 전분기에 비해 5.7%p 증가함.
- 이는 2008년 2/4분기 이후 지속된 소비심리 위축의 심화가 2009년 2/4분기 들어 차츰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 소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2%), 주거 및 수도광열(2.6%), 보건(22.5%), 오락·문화(3.6%), 교육(4.4%) 등에서 증가한 반면, 주류·담배(-8.6%), 의류·신발(-2.9%), 가정용품·가사서비스(-3.3%) 등에서는 감소함.

<그림 6> 도시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 소득증가율(좌축) ◆ 평균소비성향(우축) ■ 흑자율(우축)

주: 흑자율 = 1 - 평균소비성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 한편 2/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70만 6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인 흑자액도 6.9% 감소함.
- 이는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소비지출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의 증가를 야기하는데 실제로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대비 1.6%p(74.9%→76.5%) 증가함.

3. 금융경제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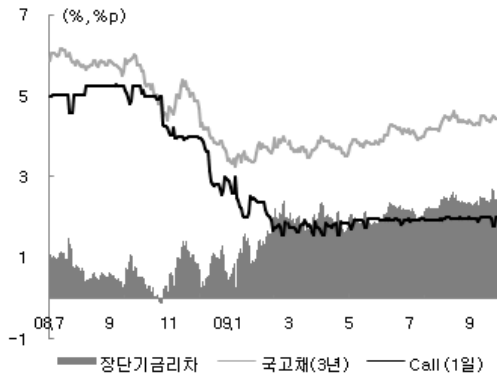
기준금리는 2009년 2월 이후 2.0%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하여 CD(91일)금리는 8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였으며, 국고채(3년) 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회사채금리는 상승세에서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는 모습임.

- 기준금리는 2.0%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연동되어 있는 콜금리도 대체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CD(91일)금리는 8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기준금리는 2.0%로 유지되고 있으며, 해외 주요국들도 경기부양을 위해 인하했던 기준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 CD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은행들의 단기자금 조달을 위한 CD 발행 증가로 상승하고 있음.
 - 지난 4월 중순 이후 8월 초까지 사상 최저 수준인 2.41%를 유지했던 CD금리는 8월 중순 급등하여 9월 30일 기준 2.75%까지 상승하였음.
 - 이는 8월 이후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금융위기 직후 은행들이 고금리로 판매한 예금들의 만기 도래에 따른 자금이탈에 대한 대응으로 CD 발행을 증가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국고채(3년)금리는 7월 초와 8월 하반기 하락 양상을 보였으나, 3/4분기 전체로는 국내외 경기지표 호전에 따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함.
 - 6월 말 4.16%였던 국고채금리는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7월 초 3.91%(7월 10일 기준)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미국의 주택판매 상승, 경기선행지수 상승, 제조업지수 상승과 더불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 IMF의 GDP 전망치 상향조정 등과 같은 국내외 경기지표들의 호전으로 급반등하여 연중 최고치인 4.61%(8월 14일 기준) 기록함.

- 국고채금리는 8월 중반 이후 발표된 미국 산업생산, 소매판매, 경기선행지수 등의 경기지표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 확산에 의해 9월 초 상승했다가 이후 다시 소폭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국고채금리와 콜금리 간 금리차이는 6월 말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9월 30일 기준 2.39%p).
-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는 상승하다 3/4분기 중반부터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비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BBB-)금리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6월 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3/4분기 전체로는 완만하게 상승함.
 - 2/4분기 상대적 고금리에 의한 매수세로 하락하였던 회사채금리는 고금리 메리트가 저하되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하자 8월 중순까지 큰 폭으로 상승함.
 - 이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로 9월 초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경기 상황 호전으로 전체적으로는 8월 중순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6월 말 11.47%였던 BBB-등급 회사채금리는 우량 등급 회사채금리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3/4분기동안 대체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AA-등급과 BBB-등급 간 회사채금리 차이는 6월 말 기준 6.08%p에서 3/4분기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여 9월 30일 기준 6.21%p임.
-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 간 신용스프레드는 3/4분기 초 소폭 증가하다 하락하는 추이를 보임.
 - 6월 말 1.23%p였던 국고채금리와 AA-등급 회사채금리 간의 차이는 7월 말 1.43%p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하락세를 보여 9월 30일 기준 1.14%까지 소폭 하락함.
 - TED 스프레드¹²⁾도 2/4분기동안 대체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되고 있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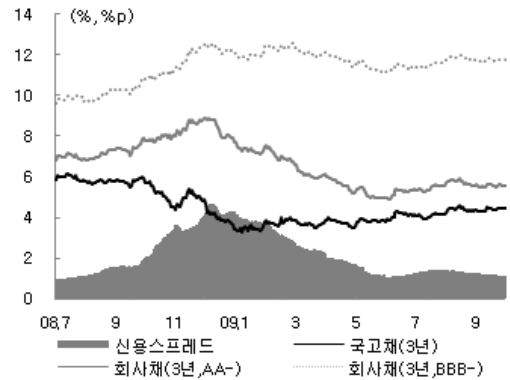
12) TED 스프레드는 런던 은행간 금리인 리보금리와 미국 재무부 채권(T-bill) 금리를 뺀 값으로 국제자금시장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그림 7>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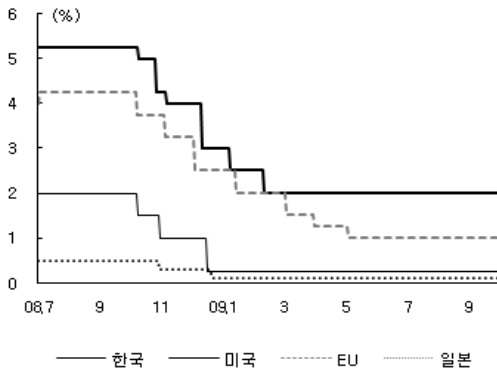
<그림 8> 신용 스프레드 추이



주: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3년,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간의 차이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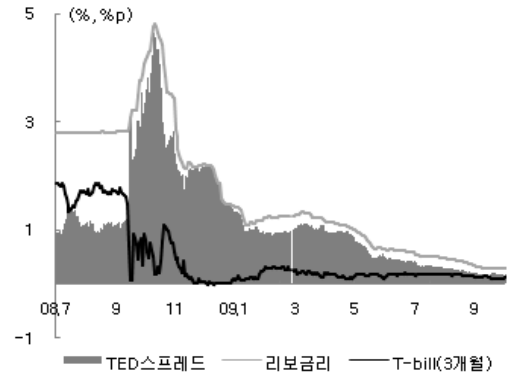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9>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0> TED 스프레드 추이



주: TED 스프레드는 리보금리(3개월)와 미국국채금리(T-bill, 3개월)금리간의 차이를 말함.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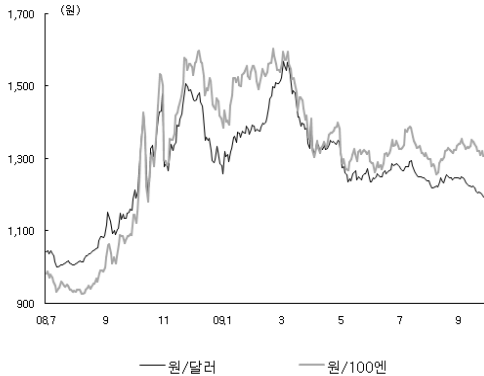
<환율>

원/달러 환율은 올해 7월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 상승하였으나, 이후 국내외 증권 시장 호조, 달러화 약세 등으로 인해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원/엔 환율도 3/4분기 초 큰 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8월 초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7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 상승하였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국내외 증권시장의 호조, 달러화 약세 등으로 인해 3/4분기 동안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 DDoS 공격으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어 7월 13일 원/달러 환율은 1315.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국내외 증권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함.
- 그러나 8월 중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와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중국의 유동성 회수 정책으로 인한 중국 증권 시장 불안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도 등락을 반복함.
- 이후 약세로 돌아선 달러화와 국내외 증권시장 호조,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원/달러 환율은 9월 30일 현재 달러당 1188.7원임.
- 원/엔 환율은 엔화 가치의 등락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8월 초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7월 초 미국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엔화의 가치가 급상승하자 큰 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외환시장에서 위험회피 성향 완화로 엔화가 약세가 되면서 원/엔 환율도 하락세를 유지함.
- 8월 중순 이후 일본 경상수지 흑자 확대, 미국 경제지표 부진, 일본 민주당 총선 승리에 따른 일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화가 강세를 띄면서 원/엔 환율은 상승세를 보여 9월 30일 현재 100엔당 1318.8원임.
- 중국 원/달러, 인도 루피/달러, 인도네시아 루피아/달러 등 신흥국 환율도 3/4분기 중반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잠시 급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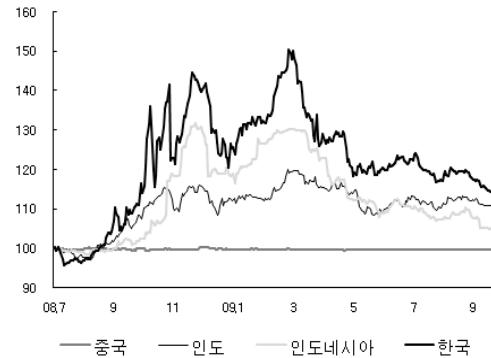
분기 동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1> 원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2> 아시아 개도국 환율 지수 추이



주: 2008년 7월 1일의 달러당 환율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함.
자료: Bloomberg

<주가지수>

2/4분기부터 이어온 미국 다우존스지수와 일본 니케이지수의 상승세는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으나 각종 경제지표들의 호전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으로 인해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주가지수도 이를 반영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주가지수는 전분기에 이어 3/4분기 동안에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상승세를 보이던 중국 주가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음.
- 7월초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6월 고용지표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잠시 하락하였다가 세계 경기 회복 기조가 유지되고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띄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현재 6월 말 대비 1265.28p 상승한 9712.28p를 기록함(9월 30일 기준).
- 6월 말 9783.47p이었던 니케이지수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급상승하다가 주춤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상승하여 9월 30일 기준 10133.23p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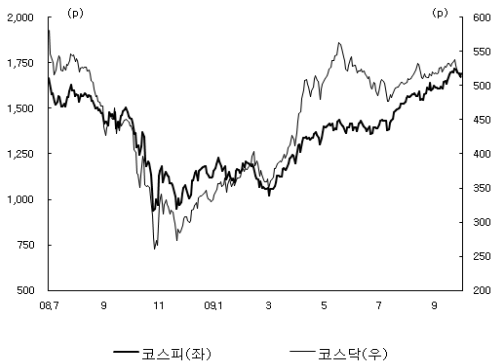
- 중국 상하이지수는 8월초까지 상승하였으나, 유동성 회수 정책 등으로 인한 중국 증권시장 불안으로 이후 하락하였다가 9월 들어 서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종합주가지수(KOSPI)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3/4분기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상승세를 보이던 종합주가지수는 7월 중순 DDoS 공격과 관련하여 부각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CIT그룹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잠시 1378.12p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6월과 2/4분기 산업활동동향, 6월 광공업생산 등의 호조에 힘입어 반등하여 상승세를 지속함.
- 이러한 상승세는 8월 중순, 중국 증권시장의 높은 변동성 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였으나, 이후 세계 증권시장 호조, UBS, S&P, 무디스 등 외국기관들의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외국인 매수세 확대 등에 의해 상승세를 지속하여, 9월 30일 기준 종합주가지수는 6월 말보다 283.07p 상승한 1673.14p를 기록함.

<그림 13> 해외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4> 국내 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자금흐름〉

1/4분기 MMF와 같은 단기금융상품에 유입되었던 자금이 유출되면서 2/4분기 동안 투신권의 순수신은 감소하였으며, 은행권의 순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 증가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함.

- 2/4분기 보험권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와 비교하여 2조 9,28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 및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하였으나, 저축성 상품인 생사혼합보험에 대한 신규가입이 증가하여 2/4분기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대비 2조 1,486억원 증가함.
 -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한 장기손해보험부문, 개인연금, 퇴직부문 등을 포함한 장기성 보험이 증가세를 보임.
- 은행권의 수신은 수시입출식예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분기와 비교하여 순수신이 증가하였으며, 전분기 MMF와 같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유입되었던 자금들이 유출되면서 2/4분기 동안 투신권의 수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4분기 감소했던 은행 순수신은 2/4분기동안 은행채와 수시입출식예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분기와 비교하여 7조 7,277억원 증가하였으며, 신탁계정의 경우 순유출을 보였으나 전분기와 비교하여 유출 규모가 감소함.
 - 투신권의 경우 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순유출을 나타냈으며, 특히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로 유입되었던 대규모의 자금이 2/4분기 동안 수익률 하락 등에 의해 큰 폭의 순유출을 보이면서 전분기의 투신권 순수신의 증가세가 큰 폭의 감소세로 전환됨.
 - 종금사는 CMA 예탁금의 순유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어음에 의한 자금 유입의 감소와 어음매출 순유출로 인해 2/4분기동안 6조 4,396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되었으며 이는 전분기와 비교하여 9조 9,222억원이 감소한 것임.

<표 13>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CY2007		CY2008				CY2009	
	3/4	4/4	1/4	2/4	3/4	4/4	1/4	2/4
보 험	-12,941	15,577	-23,583	20,865	-14,426	-4,352	-14,909	29,281
- 생 보	-12,974	14,054	-19,752	14,533	-12,340	-4,342	-10,321	21,486
- 손 보	33	1,523	-3,831	6,332	-2,086	-10	-4,588	7,795
은 행	-93,132	196,336	9,228	21,326	-87,115	48,920	-55,887	77,277
- 일 반	-156,856	229,843	-44,093	148,250	-145,756	73,106	-30,842	58,172
- 신 탁	63,724	-33,507	53,321	-126,924	58,641	-24,166	-25,045	19,105
증 권	-48,166	-51,161	19,789	41,239	-45,641	1,156	78,230	-44,155
투 신	-51,635	156,749	108,941	-138,816	-406,191	352,172	76,686	-377,027
총 금	-41,741	-23,234	20,424	8,467	-98,880	60,172	30,186	-99,22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9 1/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진 여파로 생명보험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시현한 손해보험의 약진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27조 6,362억원을 시현함.

□ FY2009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한 27조 6,362억원을 시현하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개인보험의 신규수요 감소와 해약을 증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한 17조 6,324억원에 그침.
- 이에 비해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은 장기성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고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한 10조 38억원의 원수보험료를 시현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연도 종목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184,684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5,168
	7.7	13.0	5.0	2.0	-8.9	-4.5	-2.0	-4.2
손해보험	86,658	339,818	89,550	91,512	99,218	94,674	374,954	100,038
	13.6	14.9	12.9	12.1	7.6	9.3	10.3	11.7
합 계	271,342	1,090,774	272,390	271,497	295,683	271,206	1,110,568	276,362
	9.5	13.6	7.5	5.2	-4.0	-0.1	1.8	1.5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9 1/4분기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특별계정자산 증가, 자산평가손실 감소 등 자산운용 여건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415조원을 기록함.

- FY2009 1/4분기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된 데 힘입어 전분기대비 3.3% 증가한 415조원을 시현함.
- 생명보험 부문의 총자산은 주식시장이 차츰 회복되면서 특별계정 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일반계정의 유가증권(국·공채 및 특수채)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3.2% 증가한 339조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역시 주가회복에 따라 주식가치가 증대되고 수익증권 및 채권가치도 상승하면서 자산 규모가 전분기대비 3.5% 증가한 77조원을 시현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원, %)

연도 종목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305	305	309	314	320	328	328	339
	2.7	11.8	1.3	1.5	2.1	2.4	7.5	3.2
손해보험	66	66	68	69	71	74	74	77
	3.4	15.9	3.1	1.5	3.5	3.5	12.1	3.5
합계	371	371	377	383	392	402	402	415
	2.8	12.5	1.6	1.5	2.4	2.6	8.3	3.3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FY2009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 감소한 17조 6,324억원으로 나타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한 16조 5,260억원임.

-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생존·사망·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FY2008 3/4분기 이후 줄곧 감소세를 나타내었고, FY2009 1/4분기 들어서는 사망 및 변액보험의 감소폭은 전분기에 비해 다소 확대됨.

- 반면, 저축성 상품인 생사혼합보험은 시중의 저금리로 인해 신규 가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분기에 이어 수입보험료의 증가세를 시현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한 9,908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일반단체보험과 신규 가입이 중단된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184,684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5,168
	7.7	13.0	5.0	2.0	-8.9	-4.5	-2.0	-4.2
총 자 산	3,053,998	3,053,998	3,093,354	3,138,783	3,205,462	3,283,321	3,283,321	3,388,638
	2.7	11.8	1.3	1.5	2.1	2.4	7.5	3.2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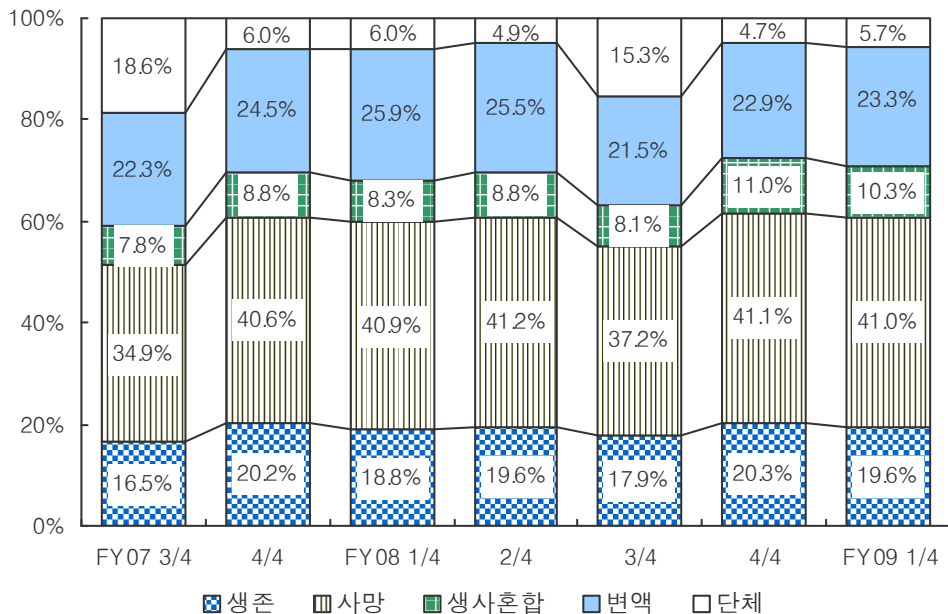
-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입보험료는 초회보험료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의 유입에 힘입어 전년동기에 비해 증가함.

□ FY2009 1/4분기 생명보험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3.2% 증가한 338조 8,638억 원을 기록하였고, 전분기에 비해 그 증가율은 0.8%p 상승함.

○ 일반계정자산은 유가증권 가치 증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2.3% 증가하였음.

○ 변액보험 관련 자산가치가 회복됨에 따라 특별계정자산은 전분기대비 7.7% 증가한 가운데, 그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1.8%p 상승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9 1/4분기 개인보험에서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단체보험에서 일반단체 및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급감하는 가운데 생사혼합보험의 성장률 약진이 두드러짐.
 -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생명보험에서 변액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전년동기대비 2.6%p 하락함.
 - 단체보험 비중의 경우 전년동기에 비해 수입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된 5.7%를 나타냄.
 - 생사혼합보험은 1/4분기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2.0%p 상승한 10.3%를 나타냄.
- FY2009 1/4분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신계약 감소 및 해약 증가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생존·사망·변액보험의 성장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한 16조 5,260억원을 시현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한 3조 4,389억원으로 나타남.
 - 일반계정의 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3% 감소에 그쳐 전분기(전년동기대비 5.5% 감소)에 비해 그 감소세가 둔화되었는데 이는 변액 연금 수요가 일정 정도 일반계정 연금상품으로 대체된 결과로 보임.
 - 일반계정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함.
 - 사망보험의 경우 FY2009 1/4분기 초회보험료는 15.4% 성장하였으나 해약률 증가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감소로 인해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하여 전분기에 이어 그 감소세가 심화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37,275	141,403	34,444	35,313	35,115	35,842	140,714	34,389
	성장률	2.8	8.6	-0.5	3.8	-1.1	-3.8	-0.5	-0.2
	구성비	20.2	18.8	18.8	19.6	17.9	20.3	19.1	19.6
사망	보험료	75,026	297,700	74,786	74,189	73,160	72,397	294,531	71,889
	성장률	2.8	4.2	1.4	0.6	-2.7	-3.5	-1.1	-3.9
	구성비	40.6	39.6	40.9	41.2	37.2	41.1	40.0	41.0
생사 혼합	보험료	16,193	66,043	15,267	15,762	15,870	19,467	66,365	18,096
	성장률	-8.1	-2.8	-9.3	-3.1	-5.3	20.2	0.5	18.5
	구성비	8.8	8.8	8.3	8.8	8.1	11.0	9.0	10.3
변액 보험	보험료	45,184	173,912	47,399	45,977	42,221	40,318	175,916	40,885
	성장률	47.1	50.9	27.8	5.7	-12.3	-10.8	1.2	-13.7
	구성비	24.5	23.2	25.9	25.5	21.5	22.9	23.9	23.3
개인 계	보험료	173,678	679,058	171,896	171,241	166,366	168,024	677,526	165,260
	성장률	10.2	13.4	5.9	2.2	-5.2	-3.3	-0.2	-3.9
	구성비	94.0	90.4	94.0	95.1	84.7	95.3	92.1	94.3
단체	보험료	11,006	71,898	10,945	8,744	30,099	8,299	58,087	9,908
	성장률	-21.2	9.7	-8.2	-1.2	-25.0	-24.6	-19.2	-9.5
	구성비	6.0	9.6	6.0	4.9	15.3	4.7	7.9	5.7
합계	보험료	184,684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5,168
	성장률	7.7	13.0	5.0	2.0	-8.9	-4.5	-2.0	-4.2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사망 중심의 보장성보험 판매의 확대에 따라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23.6% 성장한 반면, 질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및 암보험을 중심으로 초회보험료가 30.5% 감소함에 따라 그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함.
- 저축성 상품인 생사혼합보험은 시장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타금융권 상품에 비해 상대적인 금리경쟁력을 가지면서 초회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66.1% 성장하였고, 계속보험료까지 포함할 경우 18.5% 성장함.
- 임직원 및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생사혼합보험 신규 가입의 증가로 초회보험료가 급증함.
- 주식시장이 점차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7% 감소하여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고,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함에 따라 개인보험 전체 수입보험료 감소를 주도함.
- FY2008 3/4분기를 저점으로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FY2009 1/4분기에도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7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약률 또한 증가하여 계속보험료 증가율은 1.9%로 최저 수준에 그침.
- 종목별로 살펴보면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5%, 16.1% 감소하여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감소 폭이 더 큼.
- FY2009 1/4분기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부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부분의 부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한 9,908억원에 그침.
- 금융업권간의 경쟁 심화로 생명보험산업의 퇴직연금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1% 감소하였으나 계속보험료의 증가세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함.
-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체의 보험가입 여력이 낮아지면서 일반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5.5% 감소함.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9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사와 외국사가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한 가운데,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증가함.

- 국내 중소형사들은 1/4분기 중 생사혼합보험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판매실적을 기록한 결과 시장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1.6%p 상승함.
- 반면, 외국사의 경우 상품 포트폴리오에 있어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변액보험의 비중이 높고 외국사에 대한 평판이 하락하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임.
- 허핀달지수는 FY2009 1/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0.004p 하락한 0.1217을 기록함에 따라 생명보험시장의 경쟁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됨.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3사	수입보험료	100,335	425,838	99,358	96,978	112,229	93,958	402,522	93,949
	성장률	-3.6	2.9	-2.2	-2.4	-9.9	-6.4	-5.5	-5.4
	시장점유율	54.3	56.7	54.3	53.9	57.1	53.3	54.7	53.6
국내 중소 형사	수입보험료	40,579	155,882	42,779	42,225	45,566	44,721	175,292	43,808
	성장률	29.2	33.1	25.8	18.5	-0.2	10.2	12.5	2.4
	시장점유율	22.0	20.8	23.4	23.5	23.2	25.4	23.8	25.0
외 국 사	수입보험료	43,770	169,237	40,704	40,782	38,670	37,644	157,799	37,410
	성장률	21.6	26.7	5.6	-1.5	-15.0	-14.0	-6.8	-8.1
	시장점유율	23.7	22.5	22.3	22.7	19.7	21.3	23.8	21.4
허핀달지수		0.1268	0.1338	0.1257	0.1242	0.1365	0.1216	0.1271	0.1217

- 주: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9년 6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SH&C(2009년 10월 1일부터 사명을 카디프 생명으로 변경)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9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가 전년동기 수준으로 회복되고 투자영업수지도 다소 개선되었으며, 법인세도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한 6,914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는 보험영업수익과 보험영업비용이 모두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 수준보다 개선된 1조 7,848억원을 시현함.
 - 투자영업수지는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주식, 채권 가치가 회복되고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손실을 보여왔던 통화파생상품 관련 손익이 급격히 호전되어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한 3조 3,498억원을 시현함.
 -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전년동기대비 2조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영업외수지 증가 및 법인세 감소에 힘입어 당기순이익은 크게 증가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542,343	132,642	269,260	403,000	541,472	134,024
	투자영업	153,452	42,759	91,747	143,107	193,584	48,008
	영업외	23,099	6,482	14,385	24,500	33,276	8,353
	소계	718,894	181,883	375,392	570,606	768,332	190,386
총 비 용	보험영업	501,328	114,908	247,562	390,971	525,522	116,177
	투자영업	28,558	10,584	31,576	57,118	82,391	14,511
	영업외	6,691	1,196	2,835	5,334	7,439	1,501
	소계	536,577	126,689	281,973	453,423	615,352	132,188
수 지 차	보험영업	41,015	17,734	21,698	12,029	15,949	17,848
	투자영업	124,894	32,175	60,171	85,989	111,193	33,498
	영업외	16,408	5,285	11,550	19,166	25,838	6,852
	소계	182,318	55,194	93,419	117,184	152,980	58,198
책 임 준 비 금 전 입		153,417	47,126	83,510	107,029	144,221	49,455
법 인 세		7,846	2,287	2,436	2,545	3,056	1,829
당기순이익		21,054	5,782	7,473	7,610	5,703	6,914

주: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9 1/4분기 들어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입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면서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한 58.0%를 나타냄.

○ 생존, 생사혼합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감소하면서 보험금 지급률 또한 낮아진 반면,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 증대로 인해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짐.

○ 보험금 지급률은 지난 분기의 70.5%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FY2008 1/4분기 이후 계속된 지급률 증가 흐름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임.

□ FY2009 1/4분기 해약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상승한 3.5%로 나타났으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FY2008 3/4분기 및 4/4분기의 분기환산 해약률보다는 낮아짐.

○ 종목별 해약률을 살펴보면 일반단체보험과 사망보험의 해약률 상승이 두드러졌으며 생존보험 해약률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보험금 지급률	65.1	59.5	56.8	62.9	68.3	70.5	64.6	58.0
개 인 계	58.8	57.4	51.1	57.6	67.7	58.9	58.8	51.9
- 생 존	75.5	73.8	66.3	88.5	106.9	78.9	85.2	60.6
- 사 망	44.6	41.6	41.9	47.6	53.3	57.0	49.9	51.7
- 생사혼합	164.3	155.9	122.7	115.7	121.6	78.9	107.9	70.7
- 변 액	30.9	33.9	31.4	30.3	39.7	34.8	33.9	36.5
단 체	163.2	81.6	145.8	166.5	71.4	305.1	133.1	160.7
사 업 비 율	20.3	18.5	19.2	20.1	17.2	15.8	18.1	17.3
신 계 약 률	25.5	25.5	5.9	11.5	17.5	23.9	23.9	5.6
해 약 률	10.3	10.3	3.0	6.1	9.4	12.4	12.4	3.5

주: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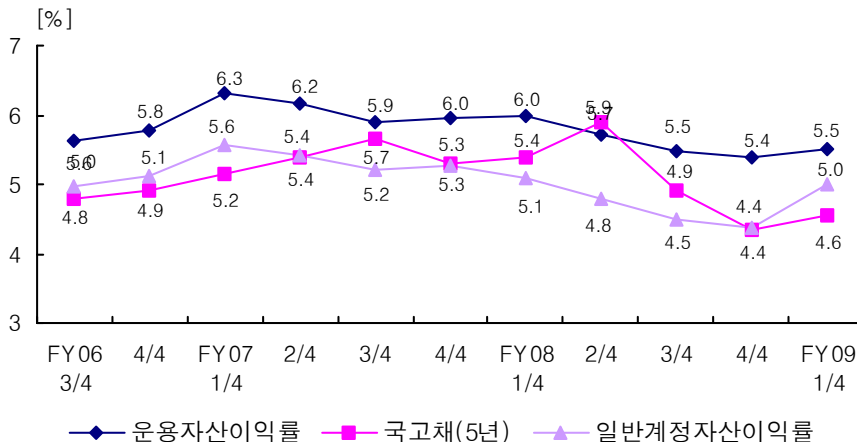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9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의 이익률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한 5.5%를 시현함.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지난 3월 이후 주가 회복(종합주가지수 2009.3월말 1,206→6월말 1,390)으로 인해 주식 및 수익증권 이익률이 증가하면서 6.5%p 증가한 7.0%의 이익률을 나타냄.
 - 반면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 채권 평가익은 상승하였으나 해외유가증권에서의 손실이 계속되면서 이익률은 각각 0.9%p, 0.8%p 하락한 4.4%, 4.7%를 기록함.
 - 부동산 이익률은 1.0%p 증가한 4.0%를 기록하였고, 대출채권 이익률은 전년동기와 같은 8.2%를 유지함.
- 비운용자산까지 고려한 일반계정자산 이익률의 경우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헤지 목적의 외환파생상품 손실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인 5.0%로 회복됨.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 환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한국은행 ECOS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0	4.7	3.5	4.0	4.6	3.8	4.4	3.8	3.5	3.1
유 가 증 권	59.3	5.4	58.6	5.0	57.8	4.5	58.9	4.3	60.8	4.8
○ 단기매매증권	1.4	0.5	1.2	-2.4	1.4	-6.2	1.4	-3.5	1.4	7.0
- 주 식	0.2	-8.2	0.1	-34.5	0.0	-37.7	0.0	-26.2	0.0	63.0
- 채권 등	0.6	-0.9	0.6	-3.0	0.5	-9.5	0.4	-7.3	0.3	8.9
- 수익증권	0.7	4.2	0.5	6.2	0.8	1.7	1.0	2.3	1.1	4.6
○ 매도가능증권	46.4	5.3	45.7	4.8	45.0	4.5	45.8	4.2	46.5	4.4
- 주 식	5.2	2.5	4.6	1.7	3.9	0.8	4.2	1.9	4.3	0.7
- 채권 등	37.8	5.0	37.8	4.6	37.8	4.7	38.4	4.3	38.8	4.8
- 수익증권	3.4	12.8	3.3	12.5	3.2	8.4	3.3	6.7	3.4	5.0
○ 만기보유증권	10.5	5.5	10.7	5.9	10.5	5.8	10.8	5.5	11.9	4.7
- 채권 등	10.5	5.5	10.7	5.9	10.5	5.8	10.8	5.5	11.9	4.6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	16.5	1.0	11.7	0.9	6.4	0.9	8.4	0.9	23.6
대 출 채 권	23.3	8.2	23.6	8.3	23.6	8.4	22.9	8.6	22.3	8.2
부 동 산	4.1	3.0	4.1	3.2	3.9	4.3	4.3	4.9	4.2	4.0
운 용 자 산 계	89.7	6.0	89.7	5.7	89.9	5.5	90.5	5.4	90.8	5.5
비 운 용 자 산	10.3	-2.6	10.3	-3.1	10.1	-3.6	9.5	-4.4	9.2	-0.5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82.5)	5.1	100.0 (82.5)	4.8	100.0 (83.0)	4.5	100.0 (82.5)	4.4	100.0 (81.7)	5.0
특 별 계 정 자 산	17.5	-0.4	17.5	-5.1	17.0	-5.4	17.5	-1.6	18.3	16.1
총 자 산	100.0	4.1	100.0	3.0	100.0	2.8	100.0	3.3	100.0	6.9
총 자 산 규 모	3,093,354		3,138,783		3,205,462		3,283,321		3,388,638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9 1/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임직원 비중이 증가하면서 방카슈랑스 비중은 감소함.
- 임직원에 의해 거수된 초회보험료는 국내사를 중심으로 한 생사혼합, 연금, 변액보험상품 등 개인보험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직원의 비중은 2.2%p 상승한 15.4%를 나타냄.
 - 방카슈랑스는 전분기에 이어 생사혼합보험에서 높은 초회보험료 성장률을 보였으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의 부진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0%p 감소한 39.5%의 점유율을 보임.
 - 설계사는 방카슈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액보험에서 선전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6.2%의 비중을 보이며 전년동기에 비해 소폭 상승함.
 - 대리점의 경우에는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한 개인보험 초회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에 비해 0.2%p 증가한 8.8%의 점유율을 보임.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임 직 원	12.4	14.4	13.2	18.9	29.5	11.8	17.8	15.4	
설 계 사	36.2	42.0	35.5	36.3	39.9	32.5	36.0	36.2	
대 리 점	7.5	9.4	8.6	7.9	9.7	9.1	8.8	8.8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43.9	34.2	42.5	36.7	20.7	46.5	37.3	39.5	
기 타	0.0	0.0	0.1	0.1	0.1	0.1	0.1	0.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744	107,478	20,072	17,429	14,364	15,510	67,375	12,973	

주: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9 1/4분기 모집조직은 보험회사들의 비용 감축 노력으로 임직원, 설계사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대리점 수는 증가함.
 - 임직원 수는 2만 7,421명으로 전분기대비 879명 감소하였으며, 주로 대형사에서 인원이 감축됨.
 - 생명보험 설계사 수는 지난 분기에 비해 2,473명 감소한 16만 8,874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형사와 외국사에서 전속설계사 수가 크게 감소함.
 - 대리점의 경우 전분기에 비해 468개 증가하였는데 이는 법인대리점 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를 전년동기와 비교해 볼 때 전속설계사 수가 감소하고 교차설계사, 대리점 등 비전속채널이 증가하면서 판매채널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전속설계사 수는 14만 8,642명에서 14만 3,588명으로 3.4% 감소한 반면 교차설계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비전속 설계사인 교차설계사 수가 2만명 이상 추가됨.
 - 또한 대리점 수도 1만 1,411개에서 1만 3,588개로 19.1% 증가하였는데 이중 개인대리점과 법인대리점이 각각 14.3%, 2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3/4	4/4	1/4	2/4	3/4	4/4	1/4
임 직 원	27,105	29,111	27,807	28,147	28,137	28,300	27,421
설 계 사	139,510	144,324	148,763	173,434	176,090	171,347	168,874
- 전속	-	-	-	-	-	145,834	143,588
- 교차	-	-	-	-	-	25,513	25,286
대 리 점	10,667	11,124	11,411	12,584	13,695	13,120	13,588
- 개인	7,456	7,776	7,888	8,924	10,311	9,357	9,014
- 법인	3,211	3,348	3,523	3,660	3,384	3,763	4,574

주: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정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7% 성장한 10조 38억원을 기록함.
 - 이는 최근 몇 년간 연평균 20% 내외의 고성장세를 지속한 장기손해보험의 판매 증대에 따른 것으로 장기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FY2002 이후 7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섬.
 -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질병 관련 보험 수요 증대에 힘입어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됨.
- 장기손해보험 및 개인연금, 퇴직 부문을 포함한 장기정보험의 FY2009 1/4분기 원수보험료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8.3% 성장한 5조 8,034억원을 시현함.
 - 이는 지난 4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제도 개선 발표를 전후해 모집조직이 실손의료보험 보장한도가 축소(100%→90%)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 시행일(10월 1일) 이전에 대기 수요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절판 마케팅의 특수 효과가 반영된 것임.
- FY2009 1/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한 2조 7,241억 원을 시현하여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임.
 - FY2007 3/4분기 이후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정부의 노후 차량 세금 감면책 및 개별소비세 인하책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량 및 운행 횟수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시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임.
-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6% 성장한 1조 4,763억원으로 나타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86,658	339,818	89,550	91,512	99,218	94,674	374,954	100,038
	13.6	14.9	12.9	12.1	7.6	9.3	10.3	11.7
- 장기성	47,492	183,822	48,993	50,260	57,058	55,456	211,812	58,034
	17.7	20.4	17.4	17.0	10.6	16.8	15.2	18.3
- 자동차	27,444	108,095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27,241
	9.3	12.0	6.0	3.5	-1.2	-3.2	1.2	-0.6
- 일반손해	11,723	47,904	13,114	13,301	14,482	12,874	53,771	14,763
	8.1	2.6	12.3	12.9	13.9	9.8	12.2	12.6
총 자 산	660,151	660,151	680,358	690,602	714,866	739,895	739,895	766,082
	3.4	15.9	3.1	1.5	3.5	3.5	12.1	3.5

주: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3) 장기성 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국·공채 및 외화유가증권 등 유가증권 가치가 증대되고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 지속에 따른 자산(미상각신계약비) 증대로 전분기대비 3.5% 성장한 76조 6,082억원을 기록함.

○ 전체 유가증권 가치가 1조 8,622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공채 및 외화유가증권의 가치 증대에 힘입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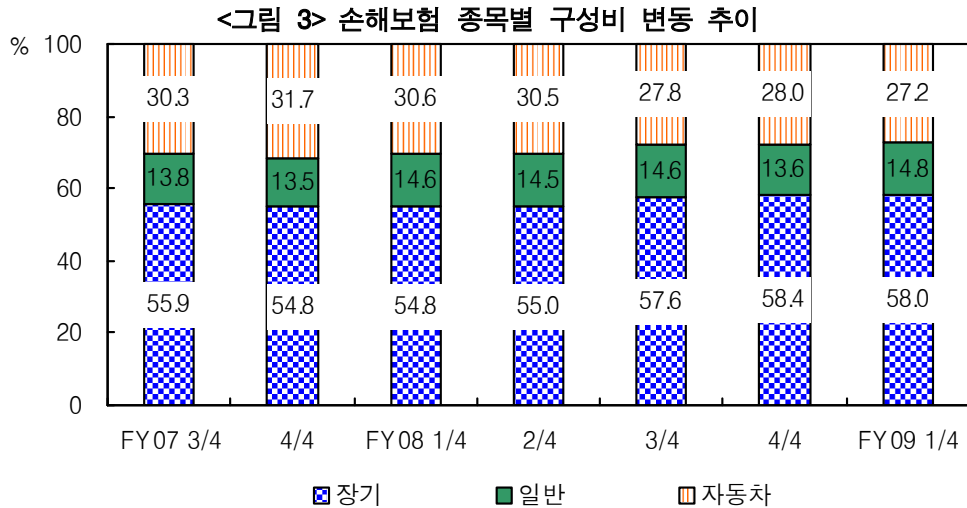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성 보험의 비중이 58.0%에 달해 장기성보험 비중 증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는 독립대리점(GA: General Agency)을 통해 실손형의료보험 판매가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판 마케팅의 효과가 작용한 것임.

○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특종보험 및 보증보험의 시장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1.2%p 상승한 14.8%를 차지함.

○ 반면, 자동차보험의 비중은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 가격 경쟁 심화 등에 기인하여 원수보험료가 정체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27.2%로 축소됨.



주: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성 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일반손해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중, 특종,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종목별 보험료 현황

1) 장기성보험 -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FY2009 1/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를 앞두고 소비자들의 손해보험회사 상품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8.3% 성장한 5조 3,088억원을 기록함.

○ 이는 대형사가 대형판매법인인 독립대리점(GA) 영업망을 활용한 절판 마케팅 전략을 취하면서 대기 수요가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의 부여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5.7% 성장한 3,654억원을 시현함.

○ 신계약 건수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5만 8천여건으로 나타남.

□ FY2009 1/4분기 퇴직시장 전체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 성장한 1,292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 퇴직보험은 46.4% 성장한 데 비해 퇴직연금은 29.4% 감소함.

- 손해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보험료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은 금융권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¹⁾.

<표 12> 장기성 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장기손해	보험료	43,308	163,436	44,812	46,357	47,656	49,958	188,829	53,088
	성장률	16.8	19.5	16.1	16.3	14.4	15.2	15.5	18.3
	구성비	91.2	88.9	91.5	92.2	83.5	90.1	89.1	91.5
개연금	보험료	2,713	9,995	2,907	3,104	3,394	3,449	12,853	3,654
	성장률	27.0	25.3	28.3	30.0	29.1	27.1	28.6	25.7
	구성비	5.7	5.4	5.9	6.2	5.9	6.2	6.1	6.3
퇴직보험	보험료	935	8,258	518	410	4,770	1,110	6,807	758
	성장률	-8.1	26.2	-32.4	-19.7	-21.1	18.7	-17.6	46.4
	구성비	2.0	4.5	1.1	0.8	8.4	2.0	3.2	0.8
퇴직연금	보험료	536	2,133	756	389	1,238	939	3,322	534
	성장률	308.1	61.0	-32.4	-19.7	-1.5	75.1	55.7	-29.4
	구성비	1.1	1.2	1.5	0.8	2.2	1.7	1.6	0.5
장기성보험계	보험료	47,492	183,822	48,993	50,260	57,058	55,456	211,812	58,034
	성장률	17.7	20.4	17.4	17.0	10.6	16.6	15.2	18.3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2)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I 의 자산연계형 실적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실적>

- FY2009 1/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질병 관련 상품 수요 증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8.3% 성장한 5조 3,088억원을 시현함.

- 부문별로는 상해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32.8%, 16.2% 성장한 1조 5,041억원과 8,479억원으로 나타남.

1) FY2009 1/4분기 금융권별 퇴직연금 적립금 구성을 살펴보면, 은행이 51.0%를 차지해 처음으로 점유율 과반을 넘었으며, 보험 36.5%, 증권 12.5%를 기록함. 손해보험의 적립금 비중은 2008년 12월말 6.4%에서 2009년 6월말에는 6.0%로 낮아짐.

<표 13>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0,726	39,614	11,324	11,928	12,618	13,563	49,433	15,041	
		성장률	23.2	24.8	23.7	24.9	23.9	26.5	24.8	32.8	
	운 전자	보험료	5,393	21,347	5,354	5,279	5,197	5,075	20,904	5,008	
		성장률	3.0	2.9	1.6	-0.5	-3.4	-5.9	-2.1	-6.5	
	재 물	보험료	4,466	17,625	4,486	4,531	4,519	4,539	18,113	4,550	
		성장률	4.0	3.8	4.5	4.3	1.6	0.8	2.8	0.4	
	질 병	보험료	7,215	27,406	7,511	7,966	8,762	9,785	34,023	10,568	
		성장률	14.0	10.3	16.0	18.8	25.0	35.6	24.1	40.7	
	저축성	보험료	7,169	27,268	7,299	7,491	7,369	7,480	29,639	8,479	
		성장률	13.6	21.9	10.2	11.8	8.7	4.3	8.7	16.2	
초 회 보험료	통합형	보험료	8,319	30,175	8,838	9,174	9,172	9,219	36,403	9,330	
		성장률	34.7	50.0	30.7	26.5	17.0	10.8	20.6	5.6	
	자산 연계형	보험료	-	-	-	-	104	209	314	112	
		성장률	-	-	-	-	-	-	-	-	
	소 계	보험료	43,308	163,436	44,812	46,357	47,656	49,958	188,829	53,088	
		성장률	16.8	19.5	16.1	16.3	14.4	15.2	15.5	18.3	
	상 해	보험료	512	1,728	452	492	597	824	2,365	645	
		성장률	22.6	20.7	16.8	14.5	49.7	60.9	36.9	42.8	
	운 전자	보험료	133	572	112	100	104	108	424	121	
		성장률	-9.3	0.7	-24.2	-32.1	-28.0	-18.6	-25.9	7.9	
계 속 보험료	재 물	보험료	161	624	172	136	149	166	622	172	
		성장률	13.5	13.6	7.0	0.7	-10.7	2.6	-0.2	0.1	
	질 병	보험료	215	767	222	326	495	719	1,762	513	
		성장률	44.4	52.3	33.4	69.5	156.2	234.5	129.8	131.3	
	저축성	보험료	842	2,552	643	648	462	652	2,405	1,091	
		성장률	4.2	-7.1	-7.3	12.9	4.4	-22.6	-5.8	69.7	
	통합형	보험료	306	1,107	265	216	151	219	851	181	
		성장률	-14.2	-16.3	2.8	-25.1	-40.6	-28.6	-23.1	-31.5	
	소 계	보험료	2,169	7,350	1,866	1,918	1,958	2,688	8,429	2,723	
		성장률	7.4	3.2	2.9	8.5	22.4	23.9	14.7	46.0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0,214	37,886	10,872	11,436	12,021	12,739	47,068	14,396	
		성장률	23.2	25.0	24.0	25.4	22.9	24.7	24.2	32.4	
	운 전자	보험료	5,260	20,775	5,242	5,179	5,093	4,967	20,480	4,887	
		성장률	3.4	3.0	2.4	0.4	-2.8	-5.6	-1.4	-6.8	
	재 물	보험료	4,305	17,001	4,314	4,395	4,370	4,373	17,491	4,378	
		성장률	3.7	3.5	4.4	4.4	2.1	0.8	2.9	0.4	
	질 병	보험료	7,000	26,639	7,289	7,640	8,267	9,066	32,261	10,055	
		성장률	13.2	9.4	15.5	17.3	21.3	29.5	21.1	37.9	
	저축성	보험료	6,327	24,716	6,656	6,843	6,907	6,828	27,234	7,388	
		성장률	15.0	25.9	12.2	11.7	9.1	7.9	10.2	11.0	
계 속 보험료	통합형	보험료	8,013	29,068	8,573	8,958	9,021	9,000	35,552	9,149	
		성장률	37.7	54.7	31.8	28.6	18.9	12.3	22.3	6.7	
	소 계	보험료	41,119	156,085	42,946	44,451	45,679	46,973	180,086	50,253	
		성장률	17.4	20.4	16.8	16.7	14.1	14.1	15.4	16.9	

주: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되지 않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09년 들어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상승하고 보장한도는 축소된다고 시장에 알려지면서 질병보험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되었음.
- 2009년 1/4분기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40.7% 성장한 1조 568억원을 기록해 분기별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함.
- FY2009 1/4분기 장기손해보험 실적을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해 및 질병,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통합형보험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상해 및 질병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2.8%(452억원→645억원), 131.3%(222억원→513억원)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보종의 손해보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음.
- 저축성보험도 실물경기 회복 조짐 및 금융시장 여건 개선에 따른 신규 판매가 증가되면서 초회보험료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69.7% 성장한 1,091억원으로 나타남.
- 반면, 통합형보험의 초회보험료는 31.5% 감소한 181억원에 그침.
- FY2009 1/4분기 종목별 계속보험료 추이를 살펴보면, 질병, 상해, 저축성 보험 순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 및 해약률>

- FY2009 1/4분기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은 질병 관련 상품 수요 증대 및 실손형 의료보험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9.2%를 시현함.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정을 앞두고 손보업계의 공격적인 절판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 효과에 힘입어 질병보험의 신계약률은 전년동기대비 3.7%p 증가한 15.4%로 나타남.
- 최근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던 상해 및 운전자보험의 신계약률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0.7%p, 2.0%p 증가하여 상승세로 전환됨.
- 이에 비해, 통합형보험의 신계약률은 전년동기 12.1%에서 6.2% 수준으로 둔화됨.
- FY2009 1/4분기 장기손해보험 해약률은 전년동기대비 1.1%p 상승한 5.4%로 나타났는데 모든 종목의 해약률이 증대됨.

<표 14>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 및 해약률

(단위: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신계약률	상 해	50.3	50.3	8.6	18.1	28.4	42.9	42.9	9.2
	운전자	28.0	28.0	5.6	10.9	16.7	22.9	22.9	7.6
	재 물	32.8	32.8	7.9	14.7	22.1	30.1	30.1	7.9
	질 병	59.5	59.5	11.7	29.4	49.6	82.6	82.6	15.4
	저축성	39.5	39.5	7.8	13.6	17.8	23.0	23.0	5.9
	통합형	86.3	86.3	12.1	22.9	29.8	40.7	40.7	6.2
	계	46.3	46.3	8.8	18.1	27.5	40.7	40.7	9.2
해약률	상 해	17.0	17.0	4.4	8.8	12.9	17.2	17.2	6.0
	운전자	14.6	14.6	4.4	8.6	13.1	17.6	17.6	5.5
	재 물	12.9	12.9	4.1	8.0	11.9	15.1	15.1	4.9
	질 병	15.7	15.7	4.1	8.1	11.5	14.8	14.8	4.6
	저축성	15.9	15.9	4.6	9.4	15.0	19.7	19.7	5.9
	통합형	10.6	10.6	2.8	5.4	8.0	10.1	10.1	4.6
	계	15.5	15.5	4.3	8.6	12.9	16.9	16.9	5.4

주: 1)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약률=(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자동차보험

- FY2009 1/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정체,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한 2조 7,241억원을 시현함.
- 담보별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원수보험료가 자동차보험 가입률 하락 및 작년 말 단행된 요율인하 효과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2% 감소한 8,424억원에 그침.
- 대인배상 I의 개인용과 업무용, 영업용 차량의 원수보험료 모두 전년동기대비 하락한 가운데 특히, 대인배상 I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의 원수보험료가 8.1% 감소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종합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II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1.2%, 1.0% 감소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반면, 자기신체 사고(자손)와 무보험차상해(무보험) 담보는 각각 1.2%와 1.3%로 소폭 증가함.

- 반면, 물적담보인 대물배상(대물)의 원수보험료는 차량의 대형화·고급화 경향에 따른 가입금액의 고액화, 대물사고 발생률 증가 등의 영향으로 8.1% 증가함.

<표 15>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인 I		9,212	36,867	9,077	9,190	9,090	8,565	35,923	8,424
중 합 보 험	대인 II	3,140	12,591	3,089	3,123	3,088	2,916	12,215	3,053
	대물	6,159	24,434	6,473	6,712	6,845	6,679	26,710	6,996
	자차	6,798	25,784	6,599	6,381	6,566	6,289	25,836	6,530
	자손	969	3,849	650	1,202	731	921	3,804	961
	무보험	281	1,126	268	282	280	268	1,098	272
	소계	17,346	67,784	17,380	17,700	17,511	17,073	69,664	17,812
외화표시		22	100	33	29	43	21	127	33
운전자		0	2	0	1	1	0	2	1
이륜자동차		88	350	127	129	106	98	460	145
기타		775	2,991	780	797	823	796	3,196	826
총계		27,444	108,095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27,24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1/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1.0%로 전년동기대비 2.9%p 상승함.

- 담보별로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의 손해율은 차량사고 증가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 대당 경과보험료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9%p, 2.8%p 상승한 68.1%, 72.5%를 시현함.
- 특히, 최근 유가안정과 경기침체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차량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사고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물적담보인 대물배상 손해율과 자기차량손해 손해율이 악화됨.
- 그 중 대물배상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5.1%p 상승한 76.9%를 시현해 종합보험 담보 중 가장 높은 손해율을 기록함.

<표 16>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인 I	66.7	72.3	65.2	65.5	74.7	61.3	66.6	68.1
종합보험	대인 II	85.9	78.1	91.4	74.4	57.7	70.9	73.5
	대물	74.0	79.1	71.8	74.9	78.4	76.1	75.4
	자차	68.0	68.6	62.4	66.4	72.1	74.5	68.9
	자손	56.1	58.7	49.3	58.3	56.8	82.2	60.6
	무보험	38.7	46.2	22.8	39.8	43.0	37.9	35.8
	소계	72.3	73.2	69.7	70.1	70.5	74.3	71.1
외화표시	75.9	74.2	59.7	72.6	58.5	58.2	62.3	63.4
운전자	36.7	58.3	-85.0	223.2	31.2	-42.0	29.3	112.0
이륜자동차	85.3	120.5	107.2	108.2	95.2	71.2	94.6	93.9
기타	65.0	68.9	60.5	73.4	72.3	67.8	68.6	66.0
총계	70.3	73.0	68.1	68.8	72.1	69.7	69.7	71.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일반손해보험

□ FY2009 1/4분기 일반손해보험은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른 토목건설의 투자 확대로 건설공사보험 등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2.6% 성장한 1조 4,763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함.

- 해상보험 실적은 FY2008 선박 건조보험의 실적 증가 및 환율 급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최근 환율의 하락하여 안정화되는 추세이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선가 하락 등으로 소폭 성장에 그침.
- 특종보험은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의 건축건설 등은 위축되고 있으나, 공공부문의 토목건설 투자 확대로 종합보험이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질병 및 상해부문 성장도 지속되고 있음.

<표 17>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775	3,075	701	632	792	710	2,835	654
	성장률	2.3	-1.8	-5.7	-6.9	-9.8	-8.4	-7.8	-6.6
	구성비	6.6	6.4	5.3	4.8	5.5	5.5	5.3	4.4
해 상	보험료	1,514	6,518	2,166	1,912	2,564	1,864	8,507	2,215
	성장률	15.2	3.1	24.9	7.2	72.6	23.1	30.5	2.2
	구성비	12.9	13.6	16.5	14.4	17.7	14.5	15.8	15.0
보 증	보험료	2,573	9,940	2,814	2,928	2,821	2,966	11,529	3,165
	성장률	-5.3	-13.0	16.1	25.1	8.4	15.3	16.0	12.5
	구성비	21.9	20.7	21.5	22.0	19.5	23.0	21.4	21.4
특 종	보험료	6,478	27,245	7,209	7,488	7,668	6,754	29,119	8,435
	성장률	10.3	9.0	9.5	11.3	2.8	4.3	6.9	15.8
	구성비	55.3	56.9	55.0	56.3	52.9	52.5	54.2	57.1
해 외 원보험	보험료	383	1,126	224	341	637	580	1,781	383
	성장률	108.7	36.8	16.9	34.2	113.9	51.3	58.1	71.1
	구성비	3.3	2.4	1.7	2.6	4.4	4.5	3.3	2.6
소 계	보험료	11,723	47,904	13,114	13,301	14,482	12,874	53,771	14,763
	성장률	8.1	2.6	12.3	12.9	13.9	9.8	12.2	12.6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화재보험 시장은 2005년을 정점으로 계속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FY2009 1/4분기 원수보험료도 전년동기대비 6.6% 감소한 654억원에 그침.

- 이는 의무가입대상 건물에 대해 보험계약과 관리 주체가 달라 보험 가입 자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가입 대상자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임.
- 또한 민영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공제 등에 보험을 가입하거나 1990년대 말 특수건물에 대한 기준이 점차 완화되면서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현격하게 떨어진 데 기인함.

□ 해상보험의 FY2009 1/4분기 원수보험료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선가 하락, 최근 환율의 하향 안정화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2% 성장한 2,215억원에 그침.

- 선박보험의 보험료 규모는 선박류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건조보험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선가 하락 및 환율 하락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성장한 1,088억원을 시현함.
- 적하보험은 수·출입 물량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감소한 가운데 수입물량이 수출 물량보다 더 크게 감소하여 보험료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한 606억원에 그침.
- 그 외 항공보험은 전년동기대비 24.3% 성장한 215억원의 보험료를 거수함.
- FY2009 1/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휴대폰 할부 보증 등과 같은 신용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한 3,165억원을 기록함.
- 계약실적에 있어서는 신계약이 전년동기대비 62.3% 상승한 335만건을 기록하였으나, 보유계약은 전년동기대비 20.4% 감소한 1,664만건을 나타냄.
- FY2009 1/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상해 및 종합보험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한 8,345억원을 기록함.
- 상해보험은 단체상해보험 시장의 고성장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상승한 2,260억원을 시현함.
- 종합보험의 원수보험료 역시 전년동기대비 26.4% 성장한 2,847억원을 기록함.
- 그 외 책임보험과 기술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9.0%,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4사와 외국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기타사의 비중은 증가함.
- 상위 4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67.9%와 3.4%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2%p, 0.3%p 감소한 반면, 기타사는 25.5%를 1.5%p가 증가함.
- 온라인사의 시장점유율은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한 3.3%로 나타남.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회사 시장점유율에 대한 허핀달지수는 0.1396을 나타냄.

- 이는 전년동기대비 0.0057p 감소한 수치로 손해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18〉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4사	69.4	70.1	69.1	68.7	68.6	67.8	68.5	67.9
기타사	24.3	23.7	24.0	24.4	24.8	25.4	24.6	25.5
전업사	3.0	3.0	3.2	3.2	3.0	3.2	3.2	3.2
외국사	3.2	3.1	3.7	3.7	3.6	3.6	3.7	3.4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	4.0	3.7	3.7	3.6	3.6	3.7	3.6	3.3
허 핀 달 지 수	0.1444	0.1487	0.1453	0.1441	0.1430	0.1384	0.1426	0.1396

주: 1) 온라인사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교보AXA손보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6사, 외국사는 교보AXA손보, 에르고다음다이렉트, AIG손보,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 동경해상화재보험 8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는 분기별 실적이며,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이 제외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지상황

〈당기순이익〉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증가로 매출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대되었으나, 판매 증가에 따른 지급 수당도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악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3.7% 감소한 5,591억원을 실현함.

- 실손형 의료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GA 채널에 대해 선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보험업계의 관행으로 인해 판매시점에서 수수료가 일시에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영업 수지가 적자로 반전됨.
- 반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자산운용 여건이 회복되면서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2.0% 상승한 8,784억원을 기록함.

<표 19>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원)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312,320	84,828	173,110	263,657	356,732	95,112
	투자영업	36,296	10,526	20,104	31,151	41,692	11,827
	기타	12,939	2,142	4,394	11,934	14,693	2,318
	소계	361,555	97,496	197,607	306,743	413,117	109,256
총 비 용	보험영업	314,449	83,687	172,648	266,425	365,166	96,254
	투자영업	9,598	2,684	6,692	11,789	15,398	3,043
	기타비용	14,217	2,211	4,507	12,078	14,739	2,662
	소계	338,264	88,582	183,848	290,292	395,302	101,959
수 지 차	보험영업	-2,129	1,141	461	-2,768	-8,434	-1,142
	투자영업	26,698	7,842	13,412	19,362	26,294	8,784
	기타	-1,278	-69	-114	-144	-46	-344
	소계	23,291	8,914	13,759	16,451	17,814	7,297
법 인 세		6,597	2,434	3,623	4,327	4,659	1,707
당기순이익		16,694	6,480	10,137	12,123	13,156	5,591

주: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2.2%p 상승하여 75.9%로 나타남.

- 손해율 상승은 보증보험과 해상보험의 부문에서 두드러졌으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71% 수준으로 악화됨.
- 보증보험의 손해율은 금융위기 이후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선박선수금 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보험 손실이 반영되고, 건설회사 부도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보상으로 높아진 것임.
- 지난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RG보험 부문의 지급준비금 증가가 반영된 이후에도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잔여 RG보험의 손실이 반영되면서 여전히 높은 손해율을 기록함(동부화재의 녹봉RG 보험 손실 163억원 반영, 흥국화재의 진세RG 보험 손실 432억원 반영 등).

<표 20>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율	화재보험	44.9	44.2	43.0	31.6	47.7	37.9	39.7	32.4
	해상보험	54.7	57.7	52.9	71.7	82.5	301.8	127.1	82.4
	자동차보험	70.3	73.0	68.1	68.8	72.1	69.7	69.7	71.0
	보증보험	24.6	19.5	23.7	47.5	78.5	43.6	48.9	66.1
	특종보험	65.7	60.4	57.8	62.5	69.0	68.3	64.7	61.4
	해외원보험	43.5	34.6	38.1	40.2	48.8	50.5	45.8	39.2
	장기손보	79.0	80.7	80.0	80.6	79.0	78.0	79.3	78.9
	개인연금	135.9	121.7	115.7	115.7	115.7	123.9	117.9	109.6
	전 체	75.2	75.7	73.7	75.4	77.3	77.9	76.1	75.9
사업비율		24.8	23.5	23.5	23.5	25.0	27.6	24.9	24.4
합산비율		100.0	99.2	97.2	98.9	102.2	105.5	101.0	100.3

주: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며, 분기 실적 기준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1/4분기 사업비율은 GA채널의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의한 선지급 수당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24.4%를 기록함.

□ 손해율 및 사업비율 증대로 인해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3.1%p 상승한 100.3%로 나타남.

○ FY2008 3/4분기 이후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라. 자산운용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이익률은 지난 3월 이후 주가 회복, 전년 동기대비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이익 등에 힘입어 6.0%를 기록함.

○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유가증권의 이익률은 FY2009 1/4분기 들어 6.7%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3%p 상승한 수치임.

- 유가증권의 이익률 상승은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 이익률이 각각 6.6%, 9.8% 수준으로 크게 개선된 데 기인한 것임.

- 그 외 만기보유증권과 투자주식 이익률은 각각 4.9%, 7.2%를 기록함.

<표 21>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6.3	6.1	6.6	7.3	7.0	7.1	5.9	7.1	5.3	1.5
유 가 증 권	53.3	5.4	51.8	4.4	51.1	4.1	52.1	3.8	52.8	6.7
○ 단기매매증권	4.5	1.7	2.9	-3.5	3.0	-1.7	3.5	1.5	3.1	9.8
- 주 식	0.4	-14.3	0.2	-62.3	0.1	-59.8	0.1	-34.1	0.1	104.0
- 채 권 등	0.8	3.4	0.6	2.7	0.7	5.0	0.6	5.5	1.2	6.8
- 수익증권	3.3	2.8	2.2	0.1	2.3	0.3	2.8	2.7	1.8	7.8
○ 매도가능증권	45.5	5.2	45.0	4.7	44.1	4.4	44.3	3.9	44.7	6.6
- 주 식	5.9	6.4	5.5	4.1	4.4	4.0	4.7	4.1	4.7	19.2
- 채 권 등	31.2	5.2	31.2	5.3	31.4	5.4	30.5	5.2	36.3	5.7
- 수익증권	8.3	4.5	8.3	3.2	8.2	1.0	9.0	-0.8	3.7	3.6
○ 만기보유증권	2.2	4.1	2.6	5.1	2.8	4.4	3.1	3.9	3.7	4.9
- 채 권 등	2.0	4.5	2.4	4.5	2.6	4.8	2.9	5.1	3.7	5.7
- 수익증권	0.2	1.0	0.2	10.3	0.2	0.7	0.3	-6.0	0.0	-5.8
○ 투자주식	1.1	30.9	1.2	17.7	1.2	10.5	1.3	7.4	1.2	7.2
대 출 채 권	18.3	6.8	18.9	6.8	19.1	7.0	18.5	7.0	18.0	7.2
부 동 산	6.0	8.8	6.1	4.1	5.9	2.9	6.7	1.9	6.7	0.5
운 용 자 산 계	84.0	6.0	83.3	5.1	83.1	4.9	83.2	4.6	82.8	6.0
비 운 용 자 산	16.0	-0.1	16.7	-0.1	16.9	-0.1	16.8	-0.1	17.2	0.0
일반계정 자산계	100.0	4.9	100.0	4.2	100.0	4.0	100.0	3.7	100.0	4.9
일 반 계 정 자 산	96.3	4.9	96.4	4.2	96.4	4.0	96.2	3.7	96.4	4.9
특 별 계 정 자 산	3.7	-	3.6	-	3.6	-	3.8	-	3.6	-
총 자 산	100.0	4.7	100.0	4.0	100.0	3.8	100.0	3.6	100.0	4.7
총 자 산 규 모	680,358		690,602		714,866		739,895		766,082	

주: 1)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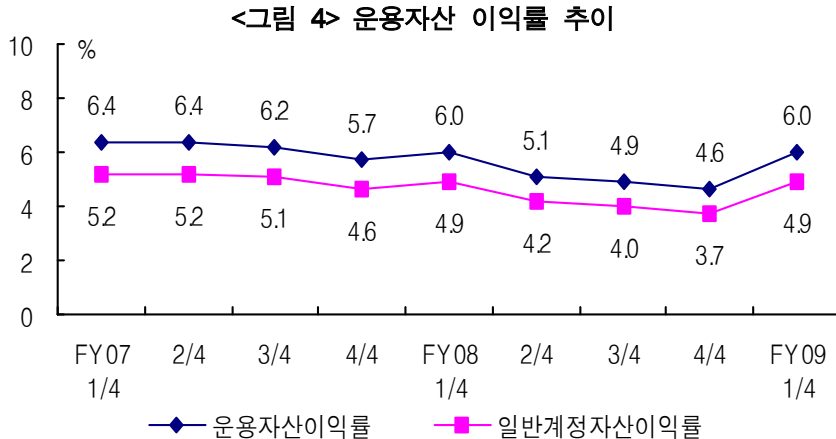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일반계정의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대출채권의 경우, 약관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부문의 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이익률 7.2%를 시현하였음.

- 부동산의 투자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8.3%p 감소한 0.5% 수준으로 크게 낮아짐.
- 손해보험회사의 FY2009 1/4분기 비운용자산을 포함한 일반계정 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4.9% 수준으로 나타나 최근 하락세에서 반전됨.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text{운용자산 이익률} = (\text{운용자산손익} \times 2) / (\text{기초자산} + \text{기말자산} - \text{운용자산손익}) \times \text{연기준환산}$
 (손익=수익-비용)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비중 증대에 따라 자산-부채 만기 매칭을 위한 채권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일반계정 매도가능증권 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나타났으며, 단기매매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는 채권 비중도 각각 1.2%와 3.7%를 차지해 전체 채권의 비중은 총자산 대비 41.2%로 크게 확대됨.

마.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손해보험회사의 모집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FY2009 1/4분기에 들어 회사직급과 중개사, 방카슈랑스 채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확대된 반면, 설계사와 대리점의 비중은 소폭 감소함.

○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은 대리점 45.8%, 보험설계사 33.1%, 회사직급 14.3%, 방카슈랑스 5.8% 등의 순으로 나타남2).

○ 전속채널(회사직급, 보험설계사)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47.4%로 확대된 반면, 비전속채널(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의 보험료 비중은 0.6%p 감소한 52.4%를 기록함.

<표 22>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회사직급	9,916	39,230	11,098	11,269	12,118	10,961	45,446	14,087
	11.6	11.9	12.6	12.4	13.0	11.8	12.5	14.3
보험설계사	29,219	113,090	30,067	30,976	31,672	31,680	124,395	32,723
	34.3	34.3	34.1	34.1	34.0	34.1	34.1	33.1
대 리 점	40,246	154,833	41,416	42,178	43,258	44,048	170,900	45,217
	47.2	47.0	46.9	46.5	46.4	47.5	46.8	45.8
중개사	654	2,759	644	761	813	716	2,935	820
	0.8	0.8	0.7	0.8	0.9	0.8	0.8	0.8
방카슈랑스	4,597	17,724	4,723	5,181	5,005	5,085	19,993	5,721
	5.4	5.4	5.4	5.7	5.4	5.5	5.5	5.8
공동인수	555	1,790	328	348	344	281	1,301	207
	0.7	0.5	0.4	0.4	0.4	0.3	0.4	0.2

주: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보험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를 포함한 실적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방카슈랑스를 통해 모집한 원수보험료 규모는 5,721억원에 달함.

<모집조직 규모>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 설계사 수는 16만 1,615명을 기록하였으며, 2008년 8월말 교차모집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7.0% 증가한 8만 7,963명이며, 교차 설계사 수도 7만 3,652명에 달함.
- FY2009 1/4분기 대리점 수는 독립대리점(GA)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전분기대비 1.3% 증가한 4만 6,607개를 기록함.
 - 개인대리점의 경우 전분기대비 0.5% 감소한 3만 5,513개를 기록한 반면, 법인대리점은 7.5% 증가한 1만 1,09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리점의 대형화 현상이 진전되고 있음.
- FY2009 1/4분기 임직원 수는 2만 8,271명으로 전분기대비 0.1% 늘어남.

<표 23>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1/4	2/4	3/4	4/4	1/4
임직원	27,394	27,278	27,876	28,425	28,250	28,271
보험설계사	71,423	73,698	116,758	145,214	155,809	161,615
- 전속	-	-	-	-	82,201	87,963
- 교차	-	-	-	-	73,608	73,652
대리점	42,311	42,443	43,647	44,859	45,998	46,607
- 개인	36,020	35,714	35,763	35,424	35,675	35,513
- 법인	6,291	6,729	7,884	9,435	10,323	11,094

주 : FY2008 2/4분기 보험설계사 수는 교차모집설계사 수를 포함하며,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반영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해외보험시장 동향

■ 「해외보험시장 동향」 신설 목적

- 보험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해외보험시장의 동향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외보험시장 동향」 부문을 신설해 이번호부터 연재함.
- 주요 해외보험시장을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를 바탕으로 권역별 및 분기별로 집적해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업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해외보험시장의 최근 동향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북미, EU(유럽), 일본, 중국 등 총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수집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통계를 집적해 분기별로 분석하며, 향후 안정적인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는 대로 신흥보험시장에 대한 분석도 게재할 계획임.
- 한편, 그동안 보험 및 금융 관련 법규 변경을 다루었던 「국내제도 동향」과 「해외제도 동향」은 주요 언론사와 금융기관의 최신 기사 및 보고서 등을 인용·번역한 KiRi Weekly 「국내금융뉴스」와 「해외금융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며, 제도 변경과 관련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임.

미국 동향1)

가. 생명보험

- 2009년 2/4분기(4~6월)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에 대한 연간화 보험료2)는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1/4분기 26% 감소에 이어 두 분기 연속 20%가 넘는 감소세를 보임.
- 가장 큰 신규보험료 감소를 나타낸 종목은 변액보험(변액유니버설보험+기타변액보험)으로 50%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유니버설보험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27% 감소함.
 - 유니버설보험의 신규보험료 감소는 설계사들이 고액계약자인 부유한 노년층보다는 보험가입률이 낮은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영업에 집중했기 때문임.
 - 실제로 유니버설보험의 가입건수는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당 보험료 규모가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간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

(단위: %, 백만달러)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비중
유니버설	8	0	-12	-23	-8	43	-33	-27	40
기타변액	-26	-21	-41	-41	-33	0	-62	-79	0
변액유니버설	-6	-8	-33	-18	-17	15	-61	-49	9
정기	-3	-1	0	-3	-1	22	-4	-3	27
종신	-1	1	7	2	2	20	-5	-3	24
계	1	-2	-11	-14	-7	100	-26	-20	100
연간화 보험료	2,680	2,801	2,619	2,827	10,945		1,987	2,228	

주: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LIMRA, 2009.6.

-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 2) 연간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일시납보험료 10%+정기납보험료

-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모두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변액보험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두 상품이 타 상품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특히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여 경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는데 기인함.
- 회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유니버설보험 판매회사의 1/3, 변액보험 판매회사 중 3개사만이 신규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각각 조사대상 보험회사의 60%, 50%가 신규보험료 증가를 시현함.
- 신규보험료 기준 종목별 분기 점유율을 살펴보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각각 27%, 24%인데 비해 유니버설보험은 40%, 변액보험은 9%를 차지함.
- 변액보험 점유율은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각각 1991년,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함.
- 보험종목별 비중을 신규 계약건수별로 보면,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의 계약건수가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종신보험이 38%의 비중을 차지함.

<표 2> 미국 신규 보험계약건수 성장률 추이

(단위: %, 천 건)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비중
유니버설	7	-3	2	-9	-1	15	-7	8	14
기타변액	-22	-31	-51	-55	-40	0	-23	-99	0
변액유니버설	-11	-18	-22	-33	-21	3	-51	-50	2
정기	-5	-2	-2	-5	-4	46	-5	-4	46
종신	1	2	4	-14	-2	36	-5	-4	38
계	-1	-1	-1	-10	-4	100	-8	-4	100
보험계약건수	1,499	1,456	1,408	1,424		5,789	1,323		1,342

주: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LIMRA, 2009.6.

- 신계약에 대한 연간화 보험료를 기준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한 유니버설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건수로는 1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당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나. 연금보험

- 2009년 2/4분기 미국 연금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0% 감소한 605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종목별로는 확정연금이 10.9% 증가한 반면, 변액연금은 24.4% 감소함.
- 그러나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1/4분기와 비교해보면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8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냈고, 확정연금은 전분기대비 20% 감소해 2007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표 3>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10억 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변액연금	금액	42.1	42.2	37.8	33.8	155.90	30.7	31.9
	성장률	0.7	-11.7	-18.5	-29.9	-15.4	-27.1	-24.4
	비중	66.4	62.1	57.3	49.3	58.6	46.3	52.7
확정연금	금액	21.3	25.8	28.2	34.8	110.10	35.6	28.6
	성장률	30.7	44.1	46.9	79.4	51.2	67.1	10.9
	비중	33.6	37.9	42.7	50.7	41.4	53.7	47.3
합 계	금액	63.40	68.00	66.00	68.60	266.00	66.30	60.5
	성장률	9.1	3.5	0.6	1.5	3.5	4.6	-11.0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U.S. Individual Annuities, LIMRA, 2009.6.

- 확정연금 중 거치연금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한 253억원을 기록하였음.
- 이중 자산연계형 거치연금과 장부가치상품(Book Value)이 각각 17.4%, 16.9% 증가하면서 81억 달러, 138억 달러의 신규보험료를 시현함.
 -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신규보험료는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함.
- 확정거치연금의 경우 전년동기대비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신규보험료가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판매채널별로 살펴보면, 전속설계사가 21%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은행 20%, 재무설계사·독립중개인 19% 등의 비중을 차지함.

<표 4>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CY2008				CY2009	
	1/4	2/4	3/4	4/4	1/4	2/4
은행	19	20	19	19	19	20
설계사	19	19	19	20	21	21
직접판매	7	7	7	7	9	8
재무설계사·독립중개인	19	19	19	19	18	19
독립 설계사	16	17	18	18	17	17
증권 중개인	14	13	14	13	14	12
기타	5	5	4	4	3	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U.S. Individual Annuities, LIMRA, 2009.6.

다. 장기간병보험 및 소득보상보험

- 2009년 2/4분기 미국 장기간병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7.8% 감소한 1억 1,062만 달러를 기록하며 신규보험료의 급격한 감소세를 이어감.

<표 5> 미국 장기간병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명, 천달러)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계약자 수	적격	전수	68,602	71,297	71,239	62,513	273,651	48,070	5,1628
		성장률	-0.7	-2.1	-1.1	-18.2	-5.8	-29.9	-27.6
		구성비	99.0	98.9	98.8	99.3	99.0	99.2	99.0
	비적격	전수	714	804	890	441	2,849	368	527
		성장률	-33.6	-26.0	12.7	-45.2	-24.2	-48.5	-34.5
		구성비	1.0	1.1	1.2	0.7	1.0	0.8	1.0
	전체	전수	69,316	72,101	72,129	62,954	276,500	48,438	5,2155
		성장률	-1.2	-2.5	-1.0	-18.4	-6.0	-30.1	-27.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보험료	적격	금액	152,477	153,289	155,218	138,482	599,466	102,550	11,0624
		성장률	3.3	-0.2	0.5	-19.4	-4.5	-32.7	-27.8
		구성비	99.3	99.2	99.5	99.1	99.3	99.5	99.2
	비적격	금액	1,125	1,292	1,411	691	4,519	557	842
		성장률	-31.3	-22.9	7.9	-58.4	-28.1	-50.5	-34.8
		구성비	9.7	9.8	0.9	0.5	0.7	0.5	0.8
	전체	금액	153,602	154,582	156,028	139,773	603,985	103,108	11,1465
		성장률	2.9	-0.5	0.2	-19.4	-4.7	-32.9	-27.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U.S. Individual LTC Insurance, LIMRA, 2009.6.

- 전체 장기간병보험 신규보험료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세제적격(qualified) 상품은 27.8% 감소했으며 세제비적격상품(non-qualified)은 34.8% 감소함.
-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는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2009년 2/4분기에는 16% 감소한 1억 1658만 달러를 기록함.
- Guaranteed Renewable³⁾의 경우 신규보험료가 1/4분기 소폭 증가한 바 있으나 2/4분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Noncancellable⁴⁾의 경우는 1/4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13.7%의 감소율을 보임.

<표 6>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명, 천달러, %)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계 약 자 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109,559	68,813	77,252	79,864	335,488	105,053	72,326
		성장률	4.9	3.8	-12.6	23.2	3.6	-4.1	5.1
		구성비	72.4	61.3	62.7	65.4	65.9	75.8	66.6
	Noncancellable	건수	41,769	43,492	46,018	42,872	174,151	33,452	36,295
		성장률	5.9	-3.6	2.9	-8.6	-1.2	-19.9	-16.5
		구성비	27.6	38.7	37.3	35.1	34.2	24.2	33.4
	전체	건수	151,328	112,305	123,270	122,147	509,050	138,505	108,621
		성장률	5.6	0.3	-7.4	9.3	1.8	-8.5	-3.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금액	59,700	49,634	49,518	52,334	211,186	61,198	42,849
		성장률	1.5	15.0	-10.3	21.1	5.4	2.5	-13.7
		구성비	43.5	36.8	36.7	37.8	38.7	47.6	36.8
	Noncancellable	금액	77,414	85,405	85,332	86,235	334,386	67,345	73,739
		성장률	5.1	2.5	4.7	-3.8	1.9	-13.0	-13.7
		구성비	56.5	63.2	63.3	62.3	61.3	52.4	63.2
	전체	금액	137,115	135,039	134,850	138,384	545,388	128,544	116,588
		성장률	3.5	7.2	-1.8	4.1	3.2	-6.3	-13.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LIMRA, 2009.6.

-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 4) Non-cancellable :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라. 손해보험

□ 미국의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경쟁심화와 경기불황 등으로 2007년 2/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표 7>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달러, %)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110,528	111,727	114,043	98,642	434,940	106,383	106,335
	성장률	-0.7	-0.3	-0.1	-4.4	-1.3	-3.8	-4.8
지급보험금	금액	78,029	84,225	96,375	80,407	339,036	78,722	75,277
	성장률	11.0	16.1	26.3	3.2	14.1	0.9	-10.6
보험영업수익	금액	-177	-4,718	-13,960	-385	-19,240	-2,216	726
	성장률	-102.1	-172.8	-419.6	-117.4	-188.7	1152.0	-115.4
계약자 배당금	금액	385	341	282	948	1,956	329	344
	성장률	22.2	11.4	-48.7	-25.3	-19.8	-14.5	0.9
보험영업이익	금액	-561	-5,059	-14,242	-1,333	-21,195	-2,545	382
	성장률	-106.8	-181.9	-473.1	-240.5	-210.2	353.7	-107.6
투자영업이익	금액	12,653	13,050	12,217	13,138	51,058	11,731	11,854
	성장률	-2.1	-1.4	-9.0	-14.9	-7.2	-7.3	-9.2
세전 영업이익	금액	12,335	7,982	-1,568	11,043	29,792	9,541	12,730
	성장률	-36.4	-59.6	-108.9	-32.7	-59.3	-22.7	59.5
실현자본수지	금액	-472	-655	-8,645	-10,086	-19,858	-7,987	-3,185
	성장률	-122.7	-131.5	-315.7	-1421.9	-322.3	1592.2	386.3
투자영업수지	금액	12,181	12,395	3,572	3,052	31,200	3,744	8,670
	성장률	-18.8	-19.1	-79.5	-81.2	-51.2	-69.3	-30.1
세후손익	금액	8,234	5,535	-9,867	-1,687	2,215	-1,309	7,089
	성장률	-49.3	-66.3	-158.5	-113.1	-96.5	-115.9	28.1
자기자본(surplus)	금액	515,583	507,556	478,494	455,571	1,957,204	437,097	462,995
	성장률	4.0	-1.0	-8.3	-12.0	-4.4	-15.2	-8.8
지급준비금	금액	537,469	546,856	563,968	555,601	2,203,894	554,413	553,396
	성장률	4.2	5.3	7.1	4.4	5.2	3.2	1.2
합산비율		99.9	104.1	112.3	103.6	105.1	102.2	99.5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보험영업이익+투자영업이익+기타이익

자료: P/C Industry's Net Income and Overall Profitability Tumbled In First-Half 2009,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09.6.

- 2009년 2/4분기에도 4.3%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 3/4분기 이후 최악의 성장을임.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에 비해 9.2% 감소한 119억 달러를 보였으며, 2008년 2/4분기 0에 가까웠던 기타이익은 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실현자본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5억 달러 감소한 3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투자영업이익과 실현자본수지의 합인 투자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30.1% 감소한 87억 달러를 기록함.
- 미국 손해보험 산업의 세전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9.5% 증가한 12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보험영업이익 4억 달러, 투자영업이익 119억 달러, 기타이익 4억 달러로 구성됨.
- 4억 달러의 보험영업수지는 2008년 2/4분기 51억 달러 적자에서 무려 55억 달러나 개선된 것이며, 이는 대재해 손실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기 때문임.
 - 2009년 2/4분기 미국 지역에서 발생한 대재해의 직접적 피해액은 43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28억 달러 감소함.
- 2009 2/4분기 미국 손해보험산업의 세후손익은 전년동기대비 28.1% 증가한 71억 달러를 실현하였으며, 자기자본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2.0%p 증가한 6.3%를 기록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보험사들의 경우 자기자본 이익률은 2008년 2/4분기 -45.6% 보다 개선된 -22.1%를 나타냈으며, 세후손익은 6억 달러의 적자로 나타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보험사들을 제외한 손해보험사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한 7.0%를 나타냈으며, 세후손익은 6.9% 증가함.
- 합산비율은 99.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7년 3/4분기 95.9% 이후 가장 양호한 실적임.

■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사망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에 대한 분기별 통계의 입수가 가능함.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단체인 Blue Shield, Blue Cross 와 지역의료공급제도(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제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확정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기관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LIMRA
-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PCI, ISO, III

◆ 일본 동향¹⁾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09 1/4분기 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 등 개인정보보험의 성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의 극심한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1.3% 감소한 17조 3,931억엔으로 나타남.
 -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 부문의 부진에 따라 55.9% 급감한 8,765억엔을 시현하여 전체 생명보험 침체를 주도함.
 - 작년 부진을 면치 못하던 개인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사망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세 회복, 판매건수 급증(전년동기대비 38.0%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한 14조 4,789억엔을 시현함.
 - 생존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 신규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1.5%, 30.2% 증가하여 개인보험의 성장을 견인함.
 - 사망보험에서는 종신보험과 정기종신보험의 신규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6.0%, 26.1% 증가한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기보험은 2.4%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주력 종목인 양로보험의 신규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3배 이상 급증한 데 힘입어 30.2%의 고성장을 보임.
 - 개인연금보험의 신규계약액은 변액연금보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확정연금보험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2조 329억엔을 기록하여 작년 2/4분기 이후 지속된 하락세가 증가세로 전환됨.

1)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표 1>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엔, %)

구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개인성 보험	개인	금액	136,578	149,366	145,609	135,135	566,688	144,789
		성장률	-0.2	-5.2	-7.1	-9.5	-5.6	6.0
		구성비	77.5	83.6	86.4	83.3	82.7	83.2
	- 사망	금액	113,156	122,672	121,503	111,963	469,295	114,906
		성장률	1.3	-3.7	-4.9	-6.6	-3.6	1.5
		구성비	64.2	68.6	72.1	69.0	68.5	66.1
	- 생사혼합	금액	21,986	25,277	22,644	21,413	91,320	28,635
		성장률	-7.9	-12.3	-17.8	-22.9	-15.5	30.2
		구성비	12.5	14.1	13.4	13.2	13.3	16.5
	- 생존	금액	1,435	1,416	1,462	1,759	6,073	1,249
		성장률	12.4	9.4	5.7	5.5	8.0	-13.0
		구성비	0.8	0.8	0.9	1.1	0.9	0.7
	개인연금	금액	19,682	22,640	14,926	16,903	74,150	20,329
		성장률	2.5	-2.0	-18.5	-17.9	-8.7	3.3
		구성비	11.2	12.7	8.9	10.4	10.8	11.7
단체성 보험	단체	금액	19,861	6,715	7,931	10,209	44,112	8,765
		성장률	58.2	-35.8	-20.7	-41.5	-11.4	-55.9
		구성비	11.3	3.8	4.7	6.3	6.5	5.0
	단체연금	금액	10	3	9	17	39	41
		성장률	-92.2	-89.1	74.0	173.1	-77.3	303.0
		구성비	-	-	-	-	-	-
	기타*	금액	4	4	3	3	14	7
		성장률	-16.2	12.5	-64.2	-8.5	-28.3	52.4
		구성비	-	-	-	-	-	-
생보 계		금액	176,135	178,727	168,476	162,267	685,004	173,931
		성장률	4.4	-6.5	-8.9	-13.4	-6.4	-1.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기타는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의 실적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통계 자료를 편집

<자산 현황>

□ FY2009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 증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0.9% 증가한 314조 6,548억엔을 시현함.

○ 2분기 연속 감소하던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1.2%의 증가세로 전환됨.

○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가증권은 전분기대비 2.4% 증가함.

- 유가증권 중 국채와 사채가 각각 0.4%, 0.2% 소폭 감소한 반면, 지방채와 주식, 외국증권은 각각 3.3%, 16.5%, 3.5% 증가함.

<표 2>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엔, %)

구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현금 및 예금	36,899	1.1	46,067	1.4	43,055	1.4	50,268	1.6	38,250	1.2
단기자금	29,273	0.9	34,641	1.1	35,480	1.1	27,807	0.9	27,602	0.9
매입금전채권	44,420	1.4	44,235	1.4	41,894	1.3	33,662	1.1	32,425	1.0
금전신탁	46,353	1.4	32,491	1.0	29,501	0.9	25,888	0.8	27,085	0.9
유가증권	2,385,363	73.7	2,400,668	74.1	2,318,383	73.5	2,302,089	73.9	2,358,325	74.9
- 국채	1,187,103	36.7	1,212,542	37.4	1,207,632	38.3	1,238,910	39.7	1,234,172	39.2
- 지방채	90,666	2.8	92,467	2.9	94,965	3.0	98,160	3.1	101,358	3.2
- 사채	290,570	9.0	282,991	8.7	280,192	8.9	274,568	8.8	274,146	8.7
- 주식	198,376	6.1	223,403	6.9	164,802	5.2	156,319	5.0	182,101	5.8
- 외국증권	459,543	14.2	435,995	13.5	420,944	13.3	400,362	12.8	414,305	13.2
대출금	535,816	16.6	523,674	16.2	521,169	16.5	511,181	16.4	505,579	16.1
유형 고정자산	65,836	2.0	65,986	2.0	66,455	2.1	66,038	2.1	66,794	2.1
운용자산	3,162,080	97.7	3,164,007	97.6	3,064,651	97.2	3,028,928	97.2	3,066,225	97.4
총자산	3,236,314	100.0	3,241,049	100.0	3,154,007	100.0	3,117,200	100.0	3,146,548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비중은 총자산 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통계 자료를 편집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한 2조 173억엔에 그침.

○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각각 3,398억엔, 2,733억엔에 그쳐 전년동기대비 -0.5%, -8.6%의 성장률을 시현함.

<표 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엔, %)

구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화재	보험료	3,416	3,353	3,740	3,515	14,023	3,398
	성장률	-4.5	2.4	1.6	0.6	0.0	-0.5
	구성비	15.9	16.9	19.0	18.7	17.6	16.8
해상	보험료	644	638	555	457	2,295	479
	성장률	1.9	4.7	-9.4	-26.7	-7.4	-25.6
	구성비	3.0	3.2	2.8	2.4	2.9	2.4
운송	보험료	191	167	174	160	692	171
	성장률	2.9	1.4	-0.6	-6.9	-0.8	-10.6
	구성비	0.9	0.8	0.9	0.8	0.9	0.8
자동차	보험료	8,935	8,410	8,687	8,443	34,475	8,772
	성장률	-1.2	-1.3	-1.5	-1.5	-1.4	-1.8
	구성비	41.7	42.4	44.1	44.8	43.2	43.5
상해	보험료	2,990	3,189	2,607	2,312	11,099	2,733
	성장률	-4.0	1.6	-16.2	-14.0	-7.9	-8.6
	구성비	13.9	16.1	13.2	12.3	13.9	13.5
특종	보험료	2,359	2,138	1,981	2,056	8,534	2,512
	성장률	1.4	6.3	3.8	1.0	3.0	6.5
	구성비	11.0	10.8	10.1	10.9	10.7	12.5
자배책	보험료	2,899	1,961	1,934	1,890	8,684	2,108
	성장률	-2.4	-28.7	-31.2	0.3	-16.6	-27.3
	구성비	13.5	9.9	9.8	10.0	10.6	10.4
합계	보험료	21,434	19,855	19,679	18,834	79,801	20,173
	성장률	-1.9	-3.0	-6.8	-3.2	-3.7	-5.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통계 자료

- 특히, 손해보험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과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1.8%, 27.3% 감소해 손해보험 침체를 주도함.
-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배상책임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6.5% 증가한 2,512억엔 을 기록함.

〈지급보험금 현황〉

<표 4> 일본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억엔, %)

구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화재	보험금	871	963	1,077	1,069	3,979	822
	증가율	-9.8	-8.1	5.1	14.1	0.1	-5.6
	구성비	8.4	8.9	9.7	9.3	9.1	7.8
해상	보험금	241	268	312	325	1,145	243
	증가율	-9.3	1.5	19.7	5.2	4.3	1.2
	구성비	2.3	2.5	2.8	2.8	2.6	2.3
운송	보험금	67	82	74	68	291	64
	증가율	-9.8	12.2	-8.4	-10.6	-4.3	-3.5
	구성비	0.6	0.8	0.7	0.6	0.7	0.6
자동차	보험금	5,207	5,264	5,574	5,515	21,559	5,196
	증가율	0.3	2.7	-0.5	-0.7	0.4	-0.2
	구성비	50.2	48.9	50.0	48.0	49.2	49.6
상해	보험금	836	856	908	831	3,430	861
	증가율	6.7	11.4	5.2	1.3	6.0	3.0
	구성비	8.0	8.0	8.1	7.2	7.8	8.2
특종	보험금	1,118	1,308	1,100	1,679	5,305	1,321
	증가율	15.2	25.1	-8.0	48.2	19.1	18.2
	구성비	10.8	12.2	10.8	14.6	12.1	12.6
자배책	보험금	2,043	2,018	2,006	2,009	8,077	1,976
	증가율	0.7	-1.0	-4.3	-3.3	-2.0	-3.3
	구성비	19.7	18.8	18.0	17.5	18.4	18.8
합계	보험금	10,381	10,758	11,151	11,497	43,787	10,483
	증가율	1.0	3.8	-0.7	5.4	2.3	1.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금, 신종보험을 각각 지급보험금,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통계 자료를 편집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지급보험금은 특종보험 부문에서 지급보험금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조 483억엔을 시현함.
 -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과 두 번째로 큰 비중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2%, 3.3% 감소함.
 - 이에 비해, 특종보험의 경우 보증보험 부문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8.2% 상승한 1,321억엔을 시현함.
 - 한편, 화재보험과 운송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5.6%, 3.5% 감소한 반면, 해상보험과 상해보험은 각각 1.2%, 3.0% 증가함.

〈자산 현황〉

- FY2009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유가증권 가치 증대로 전분기대비 3.7% 증가한 31조 585억엔을 시현함.
 - 유가증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 가치가 전분기대비 17.7% 증가함.
 - 국채와 외국증권 가치도 각각 7.8%, 3.1% 증대됨.
 - FY2007 2/4분기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던 운용자산은 FY2009 1/4분기에 6.1% 확대되어 회복세를 보임.

<표 5>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엔, %)

구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현금 및 예금		6,580	1.9	7,377	2.3	6,747	2.2	8,896	3.0	7,365	2.4
단기자금		5,169	1.5	4,269	1.3	5,609	1.8	5,775	1.9	3,282	1.1
현선거래자금		1,553	0.5	2,132	0.7	1,784	0.6	4,149	1.4	4,354	1.4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	-	-	-	158	0.5	-	-	-	-
매입금전채권		12,000	3.5	12,722	3.9	370	1.2	4,048	1.4	8,861	2.9
금전신탁		1,904	0.6	1,507	0.5	1,273	0.4	953	0.3	1,053	0.3
유가증권	국채	47,366	13.7	46,837	14.4	44,855	14.7	43,936	14.7	47,378	15.3
	지방채	6,950	2.0	7,033	2.2	6,966	2.3	6,548	2.2	6,305	2.0
	회사채	41,522	12.0	41,988	12.9	40,189	13.2	39,153	13.1	38,984	12.6
	주식	100,362	29.1	81,773	25.1	65,369	21.5	61,469	20.5	72,367	23.3
	외국증권	53,236	15.4	50,118	15.4	50,541	16.6	48,687	16.3	50,184	16.2
	기타증권	6,817	2.0	6,373	2.0	5,505	1.8	4,875	1.6	4,861	1.6
	소계	256,252	74.3	234,123	71.8	213,427	70.2	204,668	68.4	220,080	70.9
대출금	약관대출	715	0.2	707	0.2	697	0.2	688	0.2	684	0.2
	일반대출	25,741	7.5	25,960	8.0	25,985	8.5	24,818	8.3	24,500	7.9
	소계	26,456	7.7	26,667	8.2	26,683	8.8	25,506	8.5	25,184	8.1
부동산		11,344	3.3	11,269	3.5	11,208	3.7	11,173	3.7	11,120	3.6
운용자산		321,258	93.2	300,066	92.1	271,978	89.4	265,168	88.6	281,299	90.6
기타자산		23,615	6.8	25,865	7.9	32,168	10.6	34,243	11.4	29,285	9.4
총자산		344,874	100.0	32,593.2	100.0	30,414.7	100.0	29,941.1	100.0	310,585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비중은 총자산 대비임.

2) 기타자산은 현금, 건설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 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통계 자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會社總合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 중국 동향1)

가. 주요 경영지표

〈수입보험료 현황〉

□ 2009년 2/4분기(4~6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는 손해보험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인(人)보험의 부진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2,709억 위안에 그침.

<표 1>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료	658	541	496	2,337	719	793
	성장률	15.6	15.8	11.2	17.0	12.0	20.6
인보험	보험료	1,981	1,781	1,348	7,447	2,558	1,916
	성장률	67.2	55.9	6.9	47.8	9.4	-3.3
- 생명보험	보험료	1,729	1,596	1,202	6,658	2,359	1,701
	성장률	66.9	60.1	7.7	49.2	10.7	-1.6
- 건강보험	보험료	199	132	103	585	140	154
	성장률	104.2	44.3	-1.0	52.4	-7.2	-22.6
- 상해보험	보험료	53	52	43	204	59	61
	성장률	3.3	-2.9	4.3	7.1	5.6	15.0
합계	보험료	2,639	2,322	1,844	9,784	3,277	2,709
	성장률	50.5	44.2	8.0	39.1	10.0	2.7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계 자료를 편집

○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한 793억 위안의 실적을 보이면서 2006년 2/4분기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함.

○ 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상해보험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주력 종목인 생명보험

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과 건강보험의 침체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한 1,916억 위안에 그쳐 2004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시현함.

〈지급보험금 현황〉

□ 2009년 2/4분기 지급보험금은 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2.1% 늘어난 784억 위안을 시현함.

○ 손해보험 부분의 지급보험금은 36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에 머물며 2001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인보험의 경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시현해 전체 지급보험금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함.

<표 2> 중국 보험산업 지급보험금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금	337	356	437	1,418	351	363
	증가율	40.9	40.1	36.4	39.0	21.7	7.7
인보험	보험금	363	328	307	1,553	472	421
	증가율	63.3	41.1	1.8	24.8	-15.0	16.2
- 생명보험	보험금	305	266	240	1,315	403	355
	증가율	69.1	43.0	-4.4	23.5	-20.1	16.4
- 건강보험	보험금	46	45	50	175	54	52
	증가율	68.8	52.5	51.2	50.0	56.9	12.8
- 상해보험	보험금	12	17	17	63	15	15
	증가율	-17.9	-0.2	-3.4	-1.4	-9.2	24.3
합계	보험금	700	683	744	2,971	824	784
	증가율	51.7	40.6	19.6	31.2	-2.4	12.1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위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보험으로 의역함.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계 자료를 편집

〈주요 경영실적〉

- 2009년 2/4분기 총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에 그친 반면, 사업비는 9.2% 증가하며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
- 총자산 규모는 투자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한 3조 7,072억 위안에 달함.
- 전분기에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투자금은 금융환경 개선 및 주식시장 회복 등에 힘입어 5.0% 상승한 반면, 작년 4/4분기 이후 급증하던 은행 예치금은 4.4% 증가에 그침.

〈표 3〉 중국 보험산업 주요 경영실적 현황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총수입보험료	보험료	2,639	2,322	1,844	9,784	3,277	2,709
	증가율	50.5	44.2	8.0	39.1	10.0	2.7
사업비	금액	257	260	327	1,080	262	281
	증가율	21.6	2.4	7.5	13.9	11.5	9.2
예치금	금액	6,978	7,040	8,088	8,088	10,005	10,445
	증가율	1.0	0.9	14.9	24.1	23.7	4.4
투자금	금액	20,086	21,722	22,465	22,465	22,178	23,280
	증가율	2.0	8.1	3.4	11.2	-1.3	5.0
총자산	금액	30,236	31,854	33,418	33,418	35,435	37,072
	증가율	2.7	5.4	4.9	15.2	6.0	4.6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총수입보험료, 사업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계 자료를 편집

나. 지역별 및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지역별 시장점유율〉

- 2009년 2/4분기 수입보험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둥성이 220억 위안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강소성과 산둥성이 각각 199억 위안, 177억 위안으로 2, 3위를 차지함.

<표 4> 중국 지역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 위안, %)

구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북경	156	5.9	139	6.0	125	6.8	586	6.0	169	5.2	173	6.4
천진	55	2.1	37	1.6	28	1.5	176	1.8	42	1.3	38	1.4
하북	139	5.3	114	4.9	89	4.8	481	4.9	177	5.4	160	5.9
료닝	102	3.9	80	3.4	57	3.1	329	3.4	95	2.9	86	3.2
대련	30	1.1	25	1.1	21	1.1	107	1.1	33	1.0	28	1.0
상해	157	6.0	138	5.9	119	6.4	600	6.1	201	6.1	150	5.5
강소	186	7.1	159	6.8	142	7.7	775	7.9	315	9.6	199	7.3
절강	130	4.9	104	4.5	93	5.1	489	5.0	153	4.7	136	5.0
영파	23	0.9	21	0.9	19	1.0	87	0.9	29	0.9	27	1.0
북건	64	2.4	58	2.5	43	2.4	244	2.5	87	2.6	68	2.5
하문	13	0.5	12	0.5	9	0.5	47	0.5	17	0.5	14	0.5
산둥	161	6.1	142	6.1	113	6.1	571	5.8	178	5.4	177	6.5
칭도	30	1.1	24	1.0	21	1.2	103	1.0	30	0.9	30	1.1
광둥	236	8.9	210	9.0	148	8.0	884	9.0	284	8.7	220	8.1
심천	65	2.5	59	2.6	53	2.9	241	2.5	73	2.2	67	2.5
해남	9	0.3	7	0.3	5	0.3	30	0.3	9	0.3	9	0.3
산서	73	2.8	63	2.7	45	2.4	261	2.7	88	2.7	73	2.7
길림	44	1.7	43	1.9	29	1.6	159	1.6	52	1.6	52	1.9
흑룡강	71	2.7	63	2.7	48	2.6	251	2.6	88	2.7	78	2.9
안휘	71	2.7	72	3.1	55	3.0	297	3.0	127	3.9	76	2.8
강서	44	1.7	39	1.7	30	1.6	171	1.8	65	2.0	43	1.6
하남	144	5.4	130	5.6	91	4.9	519	5.3	155	4.7	137	5.1
호북	83	3.2	80	3.5	61	3.3	317	3.2	110	3.4	90	3.3
호남	86	3.2	77	3.3	62	3.4	312	3.2	104	3.2	87	3.2
중경	52	2.0	50	2.1	37	2.0	201	2.0	79	2.4	56	2.1
사천	116	4.4	134	5.8	96	5.2	494	5.1	175	5.3	123	4.5
귀주	23	0.9	20	0.8	16	0.9	80	0.8	25	0.8	24	0.9
운남	46	1.8	38	1.6	33	1.8	165	1.7	57	1.7	44	1.6
티벳	1	0.0	1	0.0	1	0.0	3	0.0	1	0.0	1	0.0
섬서	58	2.2	49	2.1	44	2.4	218	2.2	73	2.2	66	2.4
감숙	26	1.0	22	0.9	22	1.2	97	1.0	34	1.0	29	1.1
칭해	4	0.2	3	0.1	3	0.2	14	0.1	5	0.1	5	0.2
영하	9	0.3	8	0.3	7	0.4	32	0.3	11	0.3	11	0.4
신강	52	2.0	31	1.3	26	1.4	153	1.6	41	1.3	50	1.8
내몽고	39	1.5	39	1.7	28	1.5	141	1.4	43	1.3	45	1.7
광서	36	1.4	29	1.3	24	1.3	133	1.4	48	1.4	36	1.3
그룹본사	2	0.1	2	0.1	3	0.2	15	0.2	4	0.1	3	0.1
합계	2,639	100.0	2,322	100.0	1,844	100.0	9,784	100.0	3,277	100.0	2,709	100.0

주: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그룹본사는 특정 지역에 귀속되지 않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계 자료

- 중국에서 가장 큰 보험시장인 광둥성의 경우 손해보험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14.1% 성장했으나, 12.7% 감소한 인보험 부문의 부진 여파로 전체적으로는 6.7% 감소하여 중국보험산업 전체 성장률인 2.7%를 크게 하회함.
- 강소성과 산둥성의 수입보험료는 인보험과 손해보험 부문 모두 6~7%대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각각 6.7%, 10.3% 증가함.
- 북경시의 수입보험료 역시 인보험과 손해보험 부문이 각각 7.6%, 21.4% 성장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함.
 - 반면, 상해시의 경우 인보험 부문이 8.0% 감소한 영향으로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도 4.5% 감소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09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5개사와 외자계 보험회사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감소함.
 - 상위 5개사와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77.2%, 5.0%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p, 0.6%p 상승함.
 - 최대 인보험회사인 중국생명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4.5%p 감소한 36.5%를 보인 반면, 2위사인 핑안생명은 4.4%p 상승한 17.9%를 시현함.
 - AIA(友邦保險)는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한 1.0%를 점유하여 외자계 보험회사들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임.
- 손해보험의 경우, 상위 3개사와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상승함.
 - 상위 3개사와 외자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64.8%, 1.0%로 전년동기대비 0.1%p씩 하락함.
 - 최대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의 시장점유율은 41.7%로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함.

<표 5> 중국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분			CY2008				CY2009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6.2	77.2	77.1	78.5	80.2	77.2
		중소형사	19.4	18.4	16.9	16.5	15.3	17.8
		중국계 합계	95.6	95.7	94.0	95.1	95.4	95.0
	외자계 합계		4.4	4.3	6.0	4.9	4.6	5.0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4.9	62.3	61.1	63.9	67.3	64.8
		중소형사	34.0	36.4	37.6	35.0	31.6	34.2
		중국계 합계	98.9	98.7	98.7	98.8	98.9	99.0
	외자계 합계		1.1	1.3	1.3	1.2	1.1	1.0

-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소형사와 현격한 점유율 차이가 나는 회사들로 중국생명(CY09 2/4분기 기준 36.5%), 타이평양생명(8.1%), 평안생명(17.9%), 신화생명(7.9%), 타이강생명(6.8%) 등임.
 3)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소형사와 현격한 점유율 차이가 나는 회사들로 중국인민재산(CY09 2/4분기 기준 41.7%), 타이평양재산(11.3%), 평안재산(11.8%) 등임.
 4)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5)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6)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계 자료를 편집

■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지역별 시장점유율 분석은 전국수입보험료현황표(全國各地區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를 활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로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유럽 동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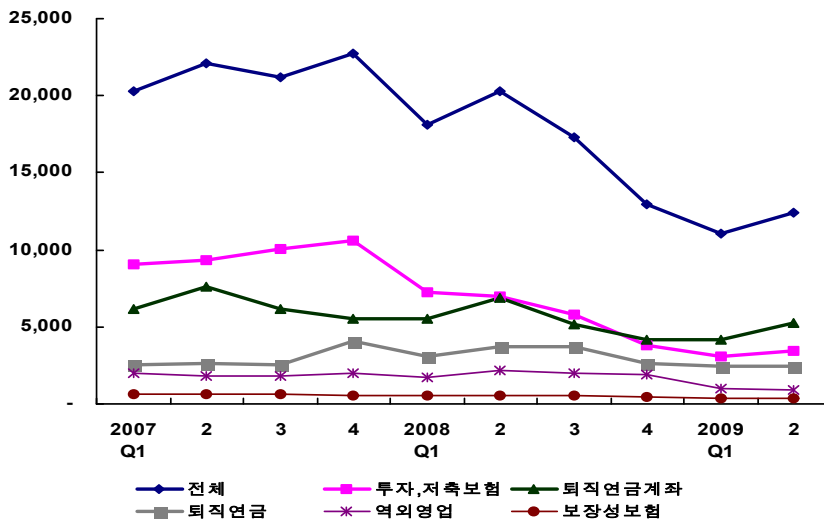
가. 영국의 생명보험시장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 영국의 생명보험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2/4분기 이후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임.
- 신규보험료는 2008년 2/4분기에 203억 파운드를 기록한 후 감소추이가 지속되어 2009년 2/4분기에는 124억 파운드를 시현하는 데 그침.
- 신규보험료 감소는 일시납 보험료 급락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일시납 보험료는 2008년 1/4분기 168억 파운드에서 2009년 2/4분기에는 110억 파운드로 크게 하락함.

<그림 1>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종목별 추이

(단위 : 백만파운드)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1) 유럽 보험시장 동향은 영국과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 2009년 2/4분기 신규보험료는 급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의 계절적 요인으로 소폭 반등함.

○ 신규보험료는 4/4분기에 반등하는 투자·저축보험의 계절적 요인이 2008년부터 사라진 대신 퇴직연금계좌의 영향으로 신규보험료가 2/4분기에 반등을 시현함.

〈종목별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 2009년 2/4분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투자 및 저축성보험의 감소폭이 두드러짐.

〈표 1〉 영국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파운드, %)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7,287	6,952	5,816	3,788	23,844	3,049	3,425
	증가율	-19.3	-25.7	-42.1	-64.1	-38.8	-58.2	-50.7
	비중	40.2	34.3	33.7	29.3	34.7	27.7	27.6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5,518	6,892	5,174	4,167	21,751	4,184	5,234
	증가율	-10.2	-9.5	-15.6	-24.8	-14.5	-24.2	-24.1
	비중	30.4	34.0	29.9	32.2	31.7	38.0	42.2
퇴직연금	보험료	3,043	3,691	3,746	2,605	13,085	2,439	2,431
	증가율	22.0	40.7	45.4	-36.7	10.8	-19.9	-34.1
	비중	16.8	18.2	21.7	20.1	19.1	22.2	19.6
역외영업	보험료	1,723	2,173	1,998	1,902	7,796	988	946
	증가율	-14.5	17.9	10.5	-2.4	2.4	-42.6	-56.5
	비중	9.5	10.7	11.6	14.7	11.4	9.0	7.6
보장성보험	보험료	565	587	543	472	2,167	346	354
	증가율	-10.3	-10.3	-11.7	-14.5	-11.6	-38.8	-39.6
	비중	3.1	2.9	3.1	3.6	3.2	3.1	2.9
합계	보험료	18,137	20,295	17,278	12,935	68,644	11,006	12,390
	증가율	-10.7	-8.1	-18.4	-43.1	-20.5	-39.3	-39.0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투자·저축성보험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0억 파운드에서 34억 파운드로 50.7% 급감함.
 - 투자·저축성보험의 감소는 일시납 보험료 감소가 주요 원인임.
- 퇴직연금계좌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9억 파운드에서 52억 파운드로 24.1% 감소함.
- 퇴직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4.1% 감소한 24억 파운드로 감소함.
 - 퇴직연금의 월납 신규보험료는 2009년 2/4분기에 2.9억 파운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역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9.6% 감소한 3.5억 파운드를 시현함.
- 역외투자채권, 역외개인채권 등으로 구성된 역외영업은 2008년 극심한 경기변동으로 인한 저조한 투자환경의 영향을 받아 2008년 2/4분기 21.7억 파운드에서 2009년 2/4분기 9.5억 파운드로 크게 감소함.

나. 이탈리아

<생명보험>

□ 2009년 2/4분기 이탈리아의 생명보험 신계약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5.1% 상승한 164억 유로를 기록하였음.

- 연납과 일시납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5.1%, 39.3% 성장세를 보인 반면, 분할납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7.6% 감소함.
- 전체 신계약 보험료 중 일시납보험료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2.9%p 상승하여 95.7%를 차지함.

<표 2> 이탈리아 생명보험 신계약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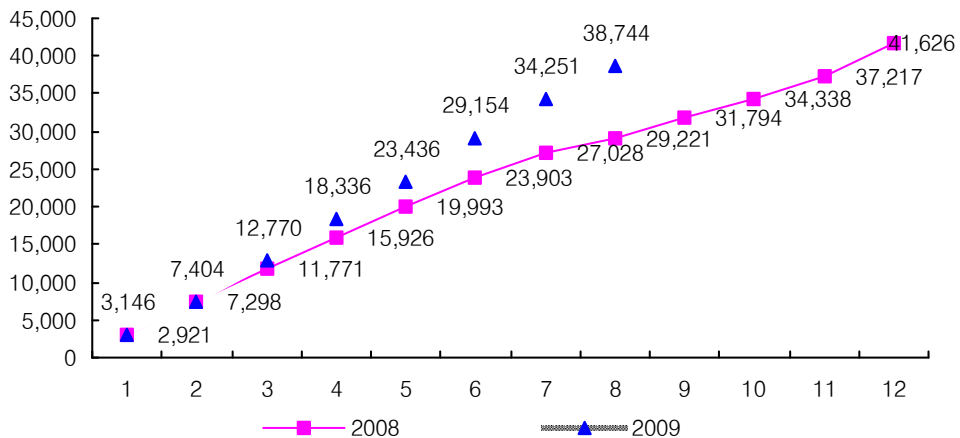
구분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연납 (Annui)	보험료	163	160	128	184	635	165	184
	증가율	-6.0	-10.1	-4.5	-0.7	-5.3	0.8	15.1
	구성비	1.4	1.3	1.6	1.9	1.5	1.3	1.1
일시납 (Unici)	보험료	10,888	11,256	7,378	8,796	38,318	12,079	15,681
	증가율	-25.5	-22.6	-7.4	-14.8	-19.3	10.9	39.3
	구성비	92.5	92.8	93.5	89.5	92.1	94.6	95.7
분할납 (RSP)	보험료	718	715	384	851	2,668	525	517
	증가율	-1.4	-17.8	-23.5	-0.5	-9.7	-26.9	-27.6
	구성비	6.1	5.9	4.9	8.7	6.4	4.1	3.2
전 체	보험료	11,771	12,131	7,891	9,832	41,625	12,770	16,383
	증가율	-24.2	-22.2	-8.3	-13.5	-31.2	8.5	35.1

주: 보험료는 생명보험(개인)의 신규실적이며, 연납(Annui; Annual premiums), 일시납(Unici: Single premiums), 분할납(Ricorrenti; Recurrent single premiums)으로 구성됨.
 자료: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수입보험료 월별 누적실적을 보면,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전년에 비해 수입보험료 규모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8월 수입보험료 실적은 387억 유로로 전년동기간 대비 43.3%의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2> 이탈리아 월별 생명보험 보험료 실적(누적)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 2009년 2/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과 카피탈리자시용(Ramo V)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전통형 상품 및 투자형 상품(Ramo III)과 기타 부문(Ramo VI)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과 카피탈리자시용(Ramo V)의 보험료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4.4%, 131.6% 성장한 137억 유로, 5억 유로를 시현함.
- 반면, 전통형 및 투자형(Ramo III)과 기타 부문(Ramo VI)의 보험료는 21억 유로로 전년동기대비 70.2%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신계약 보험료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CY2008					C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 I)	보험료	4,279	4,834	3,022	7,214	12,135	10,032	13,747
	성장률	7.3 ^{A)}	5.6	31.5	78.9	29.9	134.4	184.4
	구성비	36.4 ^{B)}	39.9	38.3	73.4	46.5	78.6	83.9
전통형 및 투자형 (Ramo III)	보험료	7,225	7,061	4,570	2,221	18,856	2,099	2,102
	성장률	-31.7	-31.9	-24.7	-68.6	-38.2	-70.9	-70.2
	구성비	61.4	58.2	57.9	22.6	50.6	16.4	12.8
- 전통형	보험료	3,530	4,139	1,549	1,701	9,218	1,328	1,191
	성장률	-7.0	2.9	-31.6	-42.0	-16.1	-62.4	-71.2
	구성비	30.0	34.1	19.6	17.3	26.2	10.4	7.3
- 보장성	보험료	18	43	72	7	133	14	27
	성장률	-98.6	-80.4	-40.6	-88.8	-91.6	-21.3	-35.8
	구성비	0.1	0.4	0.9	0.1	0.3	0.1	0.2
- 보 증	보험료	0.3	333	67	34	400.3	21	81
	성장률	-18.9	27.2	-28.7	-76.7	-16.2	-93.6	-75.5
	구성비	2.9	2.8	0.9	0.4	1.9	0.2	0.5
- 변 액	보험료	3	2,543	2,8808	477	31,354	734	800
	성장률	-34.4	-56.6	-19.8	-87.8	-50.0	-78.0	-68.5
	구성비	28.3	21.0	36.5	4.9	22.2	5.7	4.9
기타 (Ramo IV)	보험료	1.2	0.1	0.2	0.4	1.5	0.2	0.3
	성장률	3,207.3	46.8	255.1	48.9	322.9	-84.5	157.1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카피탈리자- 시용 (Ramo V)	보험료	239	227	290	378		633	527
	성장률	-74.9	-54.4	30.4	57.3	-40.7	163.9	131.6
	구성비	2.0	1.9	3.7	3.9	2.7	5.0	3.2
기타 (Ramo VI)	보험료	25.4	7.7	7.4	17.4	40.5	5.6	5.6
	성장률	220.6	-94.8	-1.7	-10.8	-68.5	-77.9	-27.6
	구성비	0.2	0.1	0.1	0.2	0.1	0.0	0.0
합 계	보험료	11,771	12,131	7,891	9,832	31,793	12,770	16,383
	구성비	-24.2	-22.2	-8.3	-13.5	-18.5	8.5	35.1

주: 이탈리아 생명보험은 크게 Ramo I-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 Ramo III-펀드,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 Ramo V-카피탈리자시용(순수투자형 상품), Ramo VI&VI-기타로 구성되며, A)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B)는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09년 2/4분기 생명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총 195만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9만 건이 감소하였음.

- 가장 큰 비중(87.7%)을 차지하고 있는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의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카피탈리자시용(RamoⅢ)과 기타 부문(RamoⅥ)의 계약이 감소하면서 전체 계약이 전년동기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이탈리아 종목별 누적 계약건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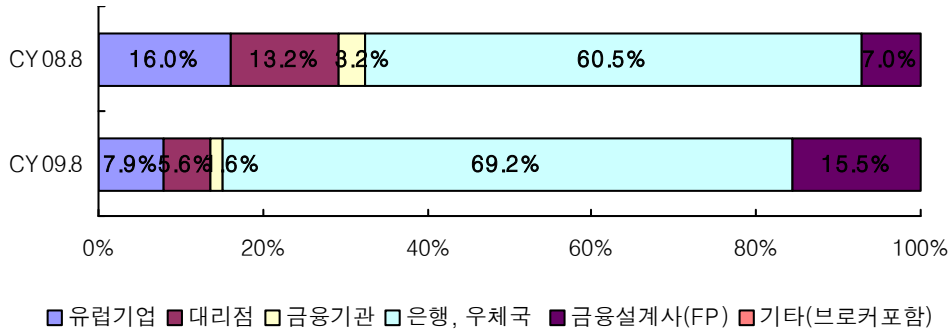
(단위: 건, %)

구분	2008년 8월		2009년 8월		성장률
	계약건수	비중	계약건수	비중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 I)	1,351,768	63.0	1,709,403	87.7	26.5
전통형 및 투자형 (RamoⅢ)	768,926	35.8	202,633	10.4	-73.6
- 전통형	289,196	13.5	118,592	6.1	-59.0
- 보장성	3,720	0.2	4,402	0.2	18.3
- 보증	55,825	52.6	17,363	0.9	-68.9
- 변액	420,185	19.6	62,276	3.2	-85.2
기타 (RamoⅣ)	248	0.0	518	0.0	108.9
카피탈리자시용 (Ramo V)	13,682	0.6	30,379	1.6	122.0
기타 (RamoⅥ)	11,360	0.5	6,508	0.3	-42.7
합 계	2,145,984	100.0	1,949,441	100.0	-9.2
연금(개인)	170,130	7.9	109,766	5.6	-35.5
순수보장성	538,410	25.1	389,443	20.0	-27.7
기타	1,437,443	67.0	1,450,234	74.4	0.9

자료: ANIA(Associazion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이탈리아 생명보험 상품의 주요 판매채널은 은행 및 우체국이 6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설계사 15.5%, 유럽기업 7.9%, 대리점 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은행 및 우체국, 금융설계사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7%p, 8.5%p 상승한 69.2%, 15.5%인 반면, 유럽기업과 대리점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1%p, 7.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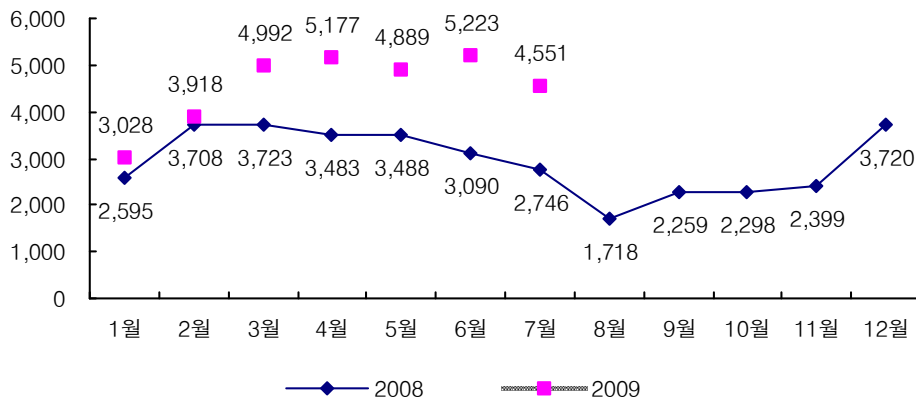
<그림 3> 이탈리아 주요 판매채널



□ 회사그룹별 월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사의 경우 전년대비 보험료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외국사의 경우 보험료 규모가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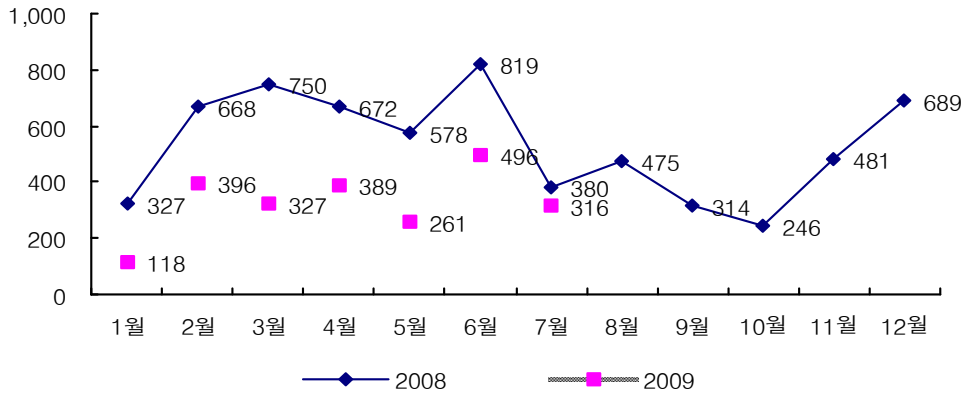
<그림 4> 국내사 월별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유로)



<그림 5> 외국사 월별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www.abi.org.uk)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계약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의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현황 분석은 일시납 신규계약 종목별 통계와 월납 신규계약 종목별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함.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 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이탈리아 보험산업은 이탈리아보험협회(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www.ania.it)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통계(Statistica mensile sulla 'nuova produzione' dei rami vita)를 바탕으로 기술함.
 - 상품구분은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 Assicurazioni sulla durata della vita umana), 펀드 및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Ramo III; Assicurazioni connesse a fondi, indiciazionari o altri valori di riferimento), 기타(Ramo IV & Ramo VI; Assicurazioni complementari), 카필탈리자시옹(Ramo V; Capitalizzazione) 등으로 함.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7호 (2009. 7. 6)	16개 국내은행의 구속성 행위(꺾기) 적발 · 4월 28일~5월 22일까지 국내 16개 은행들의 중소기업 금융비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실태를 현장 검증한 결과 총 2,231건이 적발되고 피해규모만 4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은행의 구속성 행위 검사결과 및 근절대책」, 금감원, 7/1)
제37호 (7. 6)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보험 모집 준수사항 및 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 완화, 금리연동형 상품 이율 산정 기준 개선 등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7/1)
-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 현황 및 환급절차 안내 등 · 2009년 3월말 기준 휴면보험금은 금융감독 당국의 휴면보험금 발생 억제 노력 및 보험가입자의 휴면보험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말대비 477억원이 감소한 4,278억원(총 592만건)으로 조사됨. (「보험회사의 휴면보험금 현황 및 환급절차 안내 등」, 금감원, 7/6)
-	보험모집수당 선지급의 문제점 및 향후 감독방안 · 보험사는 우수 모집조직 유치, 영업규모 확대 등을 위해 모집수당 선지급(Up-front) 방식을 운용 중이지만 고액 수당을 선지급 받은 보험설계사들이 잠적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 (「보험모집수당 선지급의 문제점 및 향후 감독방안」, 금감원, 7/7)
제38호 (7. 13)	소액서민금융재단, 저소득층 소액보험에 40억원 지원 ·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소액대출과 저소득층의 소액보험 지원 사업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시행하기로 함. (「전통시장 소액대출 및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 전국 확대 시행」, 금융위, 7/7)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8호 (7. 13)	자동차사고 시, 가지급보험금 제도 활용해보세요 ! 금융감독 당국은 자동차사고 처리과정 중 가지급보험금 청구 사항을 포함한 안내가 전체 손보사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가지급보험금 청구시점에서 개별 추산을 통해 부당하게 과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임. (「자동차사고시 가지급보험금 지급 실태 및 개선방안」, 금감원, 7/9)
제39호 (7. 20)	해외여행 사고 시, 보험회사 도우미서비스 활용을!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휴가철을 맞아 금융감독 당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 휴대폰 손해 등 개인의 각종 보험 사고에 대한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적극 지원함. (「해외보험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금감원, 7/10)
제39호 (7. 20)	집중호우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자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풍수해(집중호우, 강풍 등)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 피해를 보상함에 있어 재난지원금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권유함. (「집중호우 피해주민-풍수해보험금으로 크게 도움」, 소방방재청, 7/10)
제40호 (7. 27)	6세 미만 ‘선천성 기형’ 증가 정부는 최근 4년간 6세 미만의 선천성 기형환자 수가 연평균 3%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선천성 기형 질환에 대한 조기 검진 및 치료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할 방침임. (「6세 미만 ‘선천성 기형’ 환자 연평균 3%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7/21)
제40호 (7. 27)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리스크관리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사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한 자기자본 산출 내부모형 승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보험사 고유리스크인 보험금리리스크 산출을 위한 내부모형을 2009년까지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2010년까지 시장신용리스크 모형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추진」, 금감원, 7/21)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41호 (8. 3)	금융상담 및 민원 28.5% 증가 · 2009년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은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증권부문의 상담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민원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8.5% 상승한 20만 2,435건을 기록함. (「2009년 상반기 중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 금감원, 7/27)
-	2009년 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 · 2009년 6월말 기준 보험업계의 대출채권 연체율은 3.81%로 전월말대비 0.28%p 하락하였으며, 이는 최근 신규연체감소 및 연체채권 정상화 등에 힘입어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감소한 데 기인함. (「'09.6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잠정)」, 금감원, 7/28)
제41호 (8. 3)	손보사 해외지점 당기순이익 1.6% 감소 · 국내 손보사들은 미국 등 8개국을 중심으로 FY2008 기준 총 41개 해외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료 수익은 현지점포의 현지 영업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3.4% 상승한 118.8백만 달러를 시현한 반면, 영업이익은 17.7백만 달러로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FY08 손보사 해외지점 등의 영업실적 현황」, 금감원, 7/30)
제42호 (8. 10)	스트레스 진료환자, 갱년기 이후 여성이 최고 ·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질환의 실진료환자수가 2005년 6만 6천명에서 2008년 10만 천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15.3% 증가함.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50대 여성이 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7/31)
-	FY08 외국 손보사 국내지점 등의 영업실적 현황 ·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회사(현지법인 3개, 지점 14개)의 FY08 원수보험료 실적은 1조 3,399억원(국내 손해보험시장의 3.6%)으로 보험영업에서는 손실(-649억원)을 입었으나, 투자영업이익(714억원)에 힘입어 17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 (「FY08 외국 손보사 국내지점 등의 영업실적 현황」, 금감원, 7/31)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42호 (8. 10)	상수도 고액채납자, 보증보험으로 처분 유예 · 최근 용인시는 택지개발 등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수도수용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채납사례도 급증함에 따라 8월부터 500만원 이상 고액채납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증권제도를 운영함. (「용인시 상수도 채납액 보증보험증권 발급 운영」, 용인시, 8/4)
제43호 (8. 17)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 최근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정부는 진출대상 국가의 금융관련 법규, 인허가 제도 및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금융위, 8/14)
제 43호 (8. 17)	개성공단 입주기업 '교역보험'으로 손실 보장 · 정부는 지난 7월 1일 남북경협보험제도에 이어 교역보험제도 개선안을 2009년 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함. (「교역보험 취급기준 개정안 본격 시행」, 통일부, 8/10)
-	고의 고도장해에 대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검토 · 금융당국은 보험가입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보험 표준약관상,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고의 고도장해에 대한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검토」, 금감원, 8/18)
제44호 (8. 24)	FY08 보험회사 모집채널 생산성, 설계사 하락 - 대리점 상승 · 보험사 모집조직 규모는 FY2008 기준으로 전년대비 확대되었으나, 보험설계사 정착률, 보험계약 유지율 등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FY08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 분석」, 금감원, 8/18)
제44호 (8. 24)	FY09 1/4분기, 생·손보사 실적 희비 엇갈려 · FY2009 1/4분기 생보사의 수입보험료와 손보사의 보유보험료는 각각 17조 5,167억원(4.2% 감소), 9조 7,291억원(11.5% 상승)을 시현했으며, 총 22개 생보사 중 18개사가 흑자를 거두었고 손보사는 총 30개사 중 23개사가 흑자를 기록함. (「FY09 1/4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금감원, 8/20)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45호 (8. 31)	‘09년 상반기 보험사기 금액 34% 상승 · 2009년 상반기 보험사기 실적은 정부의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무직, 실용직 등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해 전년동기대비 33.6% 상승한 1,460억원으로 나타남. (「2009년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현황」, 금감원, 8/21)
제45호 (8. 31)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88.7%, 9월에 발생 · 최근 20년간 9월 중 발생한 태풍, 호우, 폭풍의 총 발생횟수는 26회, 인명피해 450명, 재산피해 금액은 5조 6,7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난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됨. (「가을철 태풍피해 예방 및 별쏘임 등 안전사고 주의」, 소방방재청, 8/25)
제46호 (9. 7)	‘09년 상반기, 갑상샘암 진료인원 큰 폭으로 증가 · ‘2009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의 총진료비는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등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1.5% 상승한 19조 1,108억원을 기록함. (「09년 상반기 진료비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2)
제46호 (9. 7)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 발표 · 10월 1일부터 시행될 실손의료보험상품 표준화는 개정된 감독규정을 반영하여 보장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대신, 구성이 복잡한 보험회사 각각의 상품을 단순화해 소비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중복 가입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방안」, 금감원, 9/2)
-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 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 추진 · 금감원은 중소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차량수리시 중고부품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 (「자동차 중고부품 재활용시 보험료 할인상품 도입 추진」, 금감원, 9/8)
제47호 (9. 14)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 8조원 돌파 · 2009년 상반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138만 1,209명으로 누적 계약건수는 64,148건, 적립금액은 8조 2,59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퇴직연금 적립금에 83.8%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안전성향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2009년 상반기 퇴직연금 시장현황 및 향후 전망」, 금감원, 9/8)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47호 (9. 14)	10월부터 종신·정기보험료 인하 vs 질병·연금보험료 인하 · 2009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생보사들이 새로운 참조위험률을 단계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소비자는 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에 근거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보험상품의 새로운 참조위험률 적용시기 안내」, 금감원, 9/11)
제48호 (9. 21)	건강보험 이의신청 큰 폭으로 증가 · ‘2009년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0.6% 증가한 533건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로 시행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건강보험 이의신청 대폭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9/14)
제48호 (9. 21)	하이브리드카 구매 시 세금·채권 감면 혜택 · 2009년 10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카 구매자들에게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 (「하이브리카 구매시 세금-채권 감면 혜택」, 금감원, 9/15)
제49호 (9. 28)	생명보험 가구가입률 하락 · ‘제12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률은 84.5%로 우리나라 10가구당 8곳 이상이 민영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연간보험료도 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 2006년 가구당 민영생명보험 가입률인 85.7%보다는 1.2%p 하락함. (「제12차 생명보험 성향조사」, 생명보험협회, 9/22)
제49호 (9. 28)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100만대에 육박 · 지난 7월말 기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이 10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가입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전남 7.56%, 울산 1.6%)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시도별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현황」, 국토해양부, 9/23)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7호 (2009. 7. 6)	미국 손보산업 당기순이익, 1/4분기 13억 달러 적자 · 2009년 1/4분기 미국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008년 1/4분기 85억 달러 흑자에 비해 무려 98억 달러의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Insurance Journal, 6/29)
제38호 (7. 13)	AIG, 자회사 매각을 통한 자구노력 지속 · AIG가 핵심 사업부문으로 꼽히는 자회사 알리코(Alico)의 매각 협상을 미국 보험사 메트라이프(Metlife)와 재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함. (Financial Times, 7/8)
제39호 (7. 20)	미 민주당, 의료보험개혁법안 발표 · 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개혁법안을 발표했으며 동 법안은 1조 5천억 달러 수준의 지출을 수반할 것으로 알려짐. (USA Today, 7/14)
제40호 (7. 27)	미국 의료보험제도 개혁 논의 · 상원 보건위원회(Senate Health Committee)는 상원 의료보험 개혁안을 승인하였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하원의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8월회기 내에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양 의회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Insurance Journal, 7/17)
제41호 (8. 3)	미국, 친환경 건축을 위한 보험약관 마련 · 미국 보험연구기관 AAIS(American Association of Insurance Services)는 친환경 건축과 관련된 손실을 보전해주는 건설공사보험(Builder's Risk Insurance)의 표준화 약관을 개발했다고 발표함. (Insurance Journal, 7/23)
제42호 (8. 10)	미 상원, 운전 중 문자메세지 사용금지 법안 제출 ·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Insurance Journal, 7/29)
제43호 (8. 17)	미국, 보험산업 고용자수 감소세 지속 · 지난 7일 발표된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계절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보험산업 고용자수는 7월에만 4,800명이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Insurance News Net, 8/7)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44호 (8. 24)	미국, 원금보장 연금 수요 크게 증가 · 2009년 2/4분기 미국 자산연계형 연금(Fixed Index annuity)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21.2% 증가한 8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분기실적으로 사상최고치를 달성했다고 어드벤처지 그룹(Advantage Group Associate)은 발표함. (Insurance News Net, 8/17)
제45호 (8. 31)	미국, 경기회복 대비 보험사 자산운용전략 수정 필요 ·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와 피치(Fitch)는 각각 리포트를 통해 미국 손해보험산업이 투자자산의 변동성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나 이자율과 인플레이션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함. (Business Insurance, 8/26)
제46호 (9. 7)	미국, 2/4분기 개인생명보험 신규판매 20% 감소 · 2009년 2/4분기 미국 개인생명보험 신규판매가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했다고 미국 생명보험기관 LIMRA는 발표함. (Insurance News Net, 8/31)
제47호 (9. 14)	미국, 상반기 손해보험사기 조사의뢰 증가 · 2009년 상반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손해보험금 지급청구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보험범죄방지국(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은 밝힘. (Insurance Journal, 9/9)
제48호 (9. 21)	미국, 가족건강보험료 큰 폭 증가 지속 · 직장에서 제공하는 가족건강보험의 평균보험료가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한 1만 3,37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보험료 증가율이 근로소득 증가율 및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됨. (McClatchy Newspaper, 9/15)
제49호 (9. 28)	미국 변액연금 판매실적, 회사마다 엇갈려 · 미국 리서치 회사인 모닝스타(Morningstar)는 변액연금 판매동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변액연금 신규판매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몇몇 회사들의 변액연금 매출은 늘고 있으며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Insurance News Net, 9/25)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7호 (2009. 7. 6)	ING, 'Back to Basics' 전략 구체화 • ING금융그룹은 자국내 3개 보험자회사를 통합하며 조직을 단순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소비자 지향 보험사로 재탄생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발표함. (ING, Financial Times, 7/1)
제38호 (7. 13)	2008년 유로지역 생명보험시장 대폭 축소 • 2008년 세계보험시장(인플레이션 감안)은 2.0% 하락하였는데, 이는 선진국 특히, 유로지역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대폭적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힘. (Swiss Re, 7/1)
제39호 (7. 20)	영국 보험사, 지방정부와 홍수피해 공동대책 협정 • 영국보험협회는 홍수피해가 잦은 웨일즈정부와 홍수리스크관리 개선 및 홍수피해 복구 신속화에 협정을 맺고 홍수피해를 민영보험에 의해 담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함. (BBC News, 7/11)
제40호 (7. 27)	영국 보험사 스트레스·시나리오 테스트 실시 •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은 금년 중 보험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시나리오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변수들을 달리하여 동일 테스트를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FSA Statement, Financial Times, 7/21)
제41호 (8. 3)	영국보험협회 (ABI), 손해보험사기 규모 발표 • ABI는 '적발되지 못한(undetected)' 손해보험사기 규모가 2008년 19억 파운드에 달해 2006년의 16억 파운드보다 24% 증가하였다고 분석함. (ABI Research Brief, 7/16)
제42호 (8. 10)	2009년 상반기 글로벌 자연재해 보험금 크게 상승 • Munich Re는 2009년 상반기 중 글로벌 자연재해와 기상 악화로 전 세계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11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과거 10년간 평균치를 상회한다고 밝힘. (Munich Re, 7/27)
제43호 (8. 17)	영국 생보업계, 재편 가능성 제기 • 영국의 Friends Provident는 Resolution의 18억 6천만 파운드 인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Resolution은 구조 조정되는 보험사에 대해 추가적인 인수 계획이 있다고 발표함. (Financial Times, The New York Times, 8/12)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44호 (8. 24)	비보험 리스크, 글로벌 보험사에 타격 • 2009년 상반기 ING, Aegon, Prudential plc 등 글로벌 보험사의 실적이 저조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보험부문 보다는 비보험부문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AM Best, 8/20)
제45호 (8. 31)	ING 그룹, 15억 유로 규모의 자산매각 추진 • 1월에 ING 캐나다의 지분(14억유로)을 매각하고, 7월에 칠레의 연금 사업부문(3억5천만달러)을 매각한 바 있는 ING금융그룹은 스위스·아시아의 Private Banking 사업부문(최소 15억 유로)에 대한 매각도 추진한다고 밝힘. (Financial Times, 8/27)
제46호 (9. 7)	네덜란드 보험시장 재편 • 네덜란드 전통적 대형 보험그룹들은 자국 M&A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위축되는 한편, Delta Lloyd 등과 같은 신흥보험사가 향후 네덜란드 보험시장 재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Reuters, 8/28)
제47호 (9. 14)	Solvency II 시행을 둘러싼 공방 • Solvency II의 시행에 대해 영국보험협회, 독일보험협회 등 대다수 유럽 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 스위스계 보험사인 Zurich Financial Services는 처음으로 지지를 표명하여 Solvency II의 시행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됨. (Financial Times, 9/1, 9/7)
제48호 (9. 21)	영국 보험시장, “Resolution: 돌풍의 핵” • 영국 생명보험시장의 M&A를 주도하고 있는 Resolution이 강력한 자본을 바탕으로 유로 금융시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아래, 손보사 및 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로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됨. (Times online, 9/14)
제49호 (9. 28)	EU 금융시스템감독 개혁에 대한 의구심 지속 • 지난 3월 EU 금융시스템 개혁(안)이 각국에 전달된 이후 9월 23일 유로지역 정상들이 전폭 동의함으로써 유로의회 상정만 남겨놓고 있으나, 각국은 감독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임. (Financial Times, 9/24)

■ 일본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7호 (2009. 7. 6)	손보업계, 정신 · 위생 관련 서비스로 불황 타개 · 미즈이스미토모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은 신성장 분야로 보험과 연계한 정신 · 위생 관련 서비스 강화 전략으로 불황 타개를 적극 시도하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7/1)
제38호 (7. 13)	손보업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예정 · 일본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자보시장 침체로 인한 손보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참고순율을 평균 5.7% 인상한다고 발표함. (FujiSankei Business I, 7/8)
제39호 (7. 20)	니혼생명, 토요일 선택 근무제로 불황 타개 · 니혼생명은 영업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선택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토요 근무제'를 올해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FujiSankei Business I, 7/15)
제40호 (7. 27)	AIG 일본사업부 매각 급진전 · AIG의 일본사업부 매각 협상이 난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FujiSankei Business I, 7/20)
제41호 (8. 3)	아리코재팬, 고객정보 대량 누출 · AIG 산하 아리코재팬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지불한 자사 고객들의 정보가 외부에 대량 유출되었다고 발표함. (시사통신, FujiSankei Business I, 7/26)
제42호 (8. 10)	손보재팬과 니혼고아손보, 통합 계약서 최종 체결 · 손보재팬과 니혼고아손보는 내년 4월 경영통합에 합의하는 내용의 계약을 최종 체결함. (로이터, FujiSankei Business I, 7/29)
제43호 (8. 17)	손보업계, 순이익 불구 시장 상황 여전히 불투명 · FY2009 1/4분기 손보업계는 자보시장 침체로 인한 수입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환경 개선 등의 효과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순이익을 기록함. (마이니치신문, FujiSankei Business I, 8/12)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44호 (8. 24)	AIG에디슨생명, 업계 최초 재택 콜센터 시스템 구축 · AIG에디슨생명은 대부분이 여성인 콜센터 직원들이 자택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첨단 IT 기술이 집약된 재택 콜센터를 업계 최초로 도입함. (FujiSankei Business I, 8/12)
제45호 (8. 31)	미츠이스미토모해상, 학교 전용 신종 플루 컨설팅 개시 ·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은 최근 학교 전용 신종 플루 컨설팅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실시함. (마이니치신문, 8/21)
제46호 (9. 7)	금융청, 솔벤시 마진 비율 산정 엄격화 · 금융청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솔벤시 마진 비율 산정을 현행보다 엄격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표함. (아사히신문, 8/29)
제47호 (9. 14)	손보업계, 날씨 파생상품 인기 ·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날씨 파생 손보상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8/29)
제48호 (9. 21)	일본고아손보, 카본 오프셋 확대 실시 · 일본고아손보는 카본 뉴트럴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감축을 보험상품 및 서비스와 연계하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음. (Business Media, 9/9)
제49호 (9. 28)	니혼생명, 푸르덴셜에 대규모 추가 출자 · 니혼생명은 최근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푸르덴셜 자회사에 5억 달러를 추가 출자했다고 발표함.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9/18)

■ 중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7호 (2009. 7. 6)	자보업계, 회사간 차량사고 정보 공유 움직임 활발 · 보험사기 감소와 자보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자보업계의 차량 사고 정보 공개 및 회사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음. (현대캐보, 6/24)
제38호 (7. 13)	중국보험업협회, 2008년 자보시장 분석 결과 발표 · 중국보험업협회는 '2008년 중국자동차보험 경영실적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금융위기의 악재 속에서도 비용 절감과 같은 자구책을 통해 주요 자보사들이 전반적으로 이익을 실현했다고 분석함. (21세기경제보도, 7/1)
제39호 (7. 20)	2008년 중국 보험시장 규모 세계 6위 도약 · 스위스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보험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중국 보험시장은 전년대비 30% 이상 확대되었으며 세계 6위 규모로 도약했다고 발표함. (상하이증권보, 7/2)
제40호 (7. 27)	중국보험업협회, 생보사 면책사항 명문화 · 중국보험업협회는 생보 면책사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약관 내용에 이를 반영하도록 보험업계에 요청함. (신화망, 7/9)
제41호 (8. 3)	보험업계 상반기 자산운용 수익률 개선 · 상반기 보험업계 자산운용수익률이 연평균 6%를 상회하며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인민일보, 상해증권보, 7/20)
제42호 (8. 10)	생보업계, 상반기 장기보장성상품 판매 주력 · 생보업계는 상반기에 투자형상품에서 장기보장성상품으로 주력상품을 전환하는 등 전략 변화를 통한 업무 조정에 적극 나선 것으로 나타남. (증권시보, 7/27)
제43호 (8. 17)	외자손보사, 상하이 책임보험 · 운송보험 시장에서 선전 · 외자계 손보사들은 상하이 책임보험 및 운송보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방일보, 7/27)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44호 (8. 24)	보감회와 공안부, 보험범죄 퇴치 위해 공조 강화 · 보감회와 공안부는 보험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3대 짝퉁(가짜 보험회사·계약서·지급보험금)과 같은 보험범죄의 퇴치를 위해 상호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21세기경제보도, 8/13)
제45호 (8. 31)	평안생명, 방카슈랑스 채널 강화로 고성장 · 평안생명은 방카슈랑스 판매 증가에 힘입어 1~7월까지의 수입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약 35%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일재경일보, 8/13)
제46호 (9. 7)	생보업계, 2위 그룹 경쟁 본격화 · 타이칸생명과 최근 영업력 강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화생명이 상위 3개사에 이어 업계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21세기경제보도, 8/26)
제47호 (9. 14)	중국원자력보험공동체, 세계 원자력보험시장 선도 · 건립 10년을 맞이한 중국원자력보험공동체는 원자력보험 인수 능력 세계 5위, 해외 원자력보험 수주액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평함. (21세기경제보도, 금융시보, 9/3)
제48호 (9. 21)	외자보험사, 증자로 중국 보험시장 공략 · 외자계 보험사들은 중국정부의 보험시장 개방 추가조치에 따라 증자를 통해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음. (경제도보, 9/9)
제49호 (9. 28)	보험업계, 중시상장 열기 재점화 · 2007년 이후 부진했던 중국 보험사들의 중국중시 상장 열기가 최근 인민보험그룹과 텐펑보험 등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음. (베이징상보, 9/17)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CY2007		CY2008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5.1	5.9	5.8	4.8	3.8	-3.4	-4.2	-2.2
경상수지		4,430	3,152	-5,213	-134	-8,580	7,521	8,577	13,174
수 출		90,529	103,272	99,445	114,492	115,000	93,071	74,418	91,056
수 입		86,059	100,563	106,053	114,793	122,901	91,528	71,356	73,357
실업률		3.1	3.0	3.4	3.1	3.1	3.1	3.8	3.8
금리	국고채(3년)	5.39	5.89	5.10	5.90	5.74	3.41	3.94	4.16
	회사채(3년)	5.85	6.73	6.01	6.88	7.76	7.72	6.13	5.39
소비자물가지수		105.3	106.0	107.4	109.6	111.1	110.8	111.6	112.7
환율	원/달러	920.7	938.2	991.7	1,043.4	1,187.7	1,257.5	1,377.1	1,284.7
	원/엔화	796.7	833.3	1,000.2	987.8	1,144.2	1,393.9	1,414.8	1,336.3
KOSPI		1,946.5	1,897.1	1,704.0	1,674.9	1,448.1	1,124.5	1,206.3	1,390.1
외환보유고		256,848	261,770	264,245	258,097	239,671	201,223	206,340	231,735

주: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CY2007		CY2008				CY2009	
	3/4	4/4	1/4	2/4	3/4	4/4	1/4	2/4
보 험	-12,941	15,577	-23,583	20,865	-14,426	-4,352	-14,909	29,281
- 생 보	-12,974	14,054	-19,752	14,533	-12,340	-4,342	-10,321	21,486
- 손 보	33	1,523	-3,831	6,332	-2,086	-10	-4,588	7,795
은 행	-93,132	196,336	9,228	21,326	-87,115	48,920	-55,887	77,277
- 일 반	-156,856	229,843	-44,093	148,250	-145,756	73,106	-30,842	58,172
- 신 탁	63,724	-33,507	53,321	-126,924	58,641	-24,166	-25,045	19,105
증 권	-48,166	-51,161	19,789	41,239	-45,641	1,156	78,230	-44,155
투 신	-51,635	156,749	108,941	-138,816	-406,191	352,172	76,686	-377,027
중 금	-41,741	-23,234	20,424	8,467	-98,880	60,172	30,186	-99,22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37,275	141,403	34,444	35,313	35,115	35,842	140,714	34,389
	성장률	2.8	8.6	-0.5	3.8	-1.1	-3.8	-0.5	-0.2
	구성비	20.2	18.8	18.8	19.6	17.9	20.3	19.1	19.6
사망	보험료	75,026	297,700	74,786	74,189	73,160	72,397	294,531	71,889
	성장률	2.8	4.2	1.4	0.6	-2.7	-3.5	-1.1	-3.9
	구성비	40.6	39.6	40.9	41.2	37.2	41.1	40.0	41.0
생사 혼합	보험료	16,193	66,043	15,267	15,762	15,870	19,467	66,365	18,096
	성장률	-8.1	-2.8	-9.3	-3.1	-5.3	20.2	0.5	18.5
	구성비	8.8	8.8	8.3	8.8	8.1	11.0	9.0	10.3
변액 보험	보험료	45,184	173,912	47,399	45,977	42,221	40,318	175,916	40,885
	성장률	47.1	50.9	27.8	5.7	-12.3	-10.8	1.2	-13.7
	구성비	24.5	23.2	25.9	25.5	21.5	22.9	23.9	23.3
개인계	보험료	173,678	679,058	171,896	171,241	166,366	168,024	677,526	165,260
	성장률	10.2	13.4	5.9	2.2	-5.2	-3.3	-0.2	-3.9
	구성비	94.0	90.4	94.0	95.1	84.7	95.3	92.1	94.3
단체	보험료	11,006	71,898	10,945	8,744	30,099	8,299	58,087	9,908
	성장률	-21.2	9.7	-8.2	-1.2	-25.0	-24.6	-19.2	-9.5
	구성비	6.0	9.6	6.0	4.9	15.3	4.7	7.9	5.7
합계	보험료	184,684	750,956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5,168
	성장률	7.7	13.0	5.0	2.0	-8.9	-4.5	-2.0	-4.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28,143	04,361	22,838	31,257	37,527	28,276	9,899	20,832
	증가율	27.2	27.9	9.9	22.5	25.4	0.5	14.9	-8.8
	지급률	75.5	73.8	66.3	88.5	106.9	78.9	85.2	60.6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33,482	23,728	31,371	35,308	39,016	41,300	146,996	37,161
	증가율	13.8	10.5	13.7	18.7	18.5	23.3	18.8	18.5
	지급률	44.6	41.6	41.9	47.6	53.3	57.0	49.9	51.7
생존사합보험	지급보험금	26,600	102,973	18,738	18,230	19,304	15,351	71,622	12,802
	증가율	44.7	40.1	2.7	-19.1	-45.8	-42.3	-30.4	-31.7
	지급률	164.3	155.9	122.7	115.7	121.6	78.9	107.9	70.7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13,981	59,022	14,882	13,918	16,765	14,032	59,597	14,922
	증가율	73.2	173.0	33.5	-8.5	-10.3	0.4	1.0	0.3
	지급률	30.9	33.9	31.4	30.3	39.7	34.8	33.9	36.5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102,206	390,084	87,830	98,713	112,612	98,959	398,114	85,717
	증가율	31.0	35.1	13.0	6.2	-3.9	-3.2	2.1	-2.4
	지급률	58.8	57.4	51.1	57.6	67.7	58.9	58.8	51.9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7,961	58,683	15,960	14,562	21,485	25,317	77,324	15,917
	증가율	-4.6	-6.4	20.5	10.2	50.7	41.0	31.8	-0.3
	지급률	163.2	81.6	145.8	166.5	71.4	305.1	133.1	160.7
전체	지급보험금	120,168	448,766	103,790	113,275	134,097	124,276	475,438	101,634
	증가율	24.1	27.7	14.1	6.7	2.0	3.4	5.9	-2.1
	지급률	65.1	59.8	56.8	62.9	68.3	70.5	64.6	58.0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사업비	8,369	31,382	8,427	9,398	8,717	6,060	32,602	6,878
	증가율	21.0	25.7	19.3	21.5	6.1	-27.6	3.9	-18.4
	사업비율	22.5	22.2	24.5	26.6	24.8	16.9	23.2	20.0
사망보험	사업비	20,732	77,185	18,388	18,447	17,772	16,382	70,989	17,664
	증가율	9.4	10.6	4.2	0.9	-13.4	-21.0	-8.0	-3.9
	사업비율	27.6	25.9	24.6	24.9	24.3	22.6	24.1	24.6
생존사합보험	사업비	7,330	26,744	7,456	7,391	6,386	4,721	25,954	4,874
	증가율	23.2	18.0	36.7	12.7	-13.7	-35.6	-3.0	-34.6
	사업비율	45.3	40.5	48.8	46.9	40.2	24.2	39.1	26.9
개인보험계	사업비	36,430	135,311	34,271	35,236	32,875	27,162	129,544	29,417
	증가율	14.5	15.2	13.6	8.2	-9.0	-25.4	-4.3	-14.2
	사업비율	21.0	19.9	19.9	20.6	19.8	16.2	19.1	17.8
단체보험계	사업비	985	3,507	855	957	925	782	3,519	874
	증가율	-5.5	0.3	12.5	22.0	-5.5	-20.6	0.3	2.2
	사업비율	8.9	4.9	7.8	10.9	3.1	9.4	6.1	8.8
전 체	사업비	37,415	138,818	35,127	36,192	33,800	27,944	133,063	30,290
	증가율	13.9	14.8	13.6	8.5	-8.9	-25.3	-4.1	-13.8
	사업비율	20.3	18.5	19.2	20.1	17.2	15.8	18.1	17.3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775	3,075	701	632	792	710	2,835	654
	성장률	2.3	-1.8	-5.7	-6.9	-9.8	-8.4	-7.8	-6.6
	구성비	0.9	0.9	0.8	0.7	0.8	0.7	0.8	0.7
해 상	보험료	1,514	6,518	2,166	1,912	2,564	1,864	8,507	2,215
	성장률	15.2	3.1	24.9	7.2	72.6	23.1	20.9	2.2
	구성비	1.7	1.9	2.4	2.1	2.6	2.0	2.3	2.2
자동차	보험료	27,444	108,095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27,241
	성장률	9.3	12.0	6.0	3.5	-1.2	-3.2	1.2	-0.6
	구성비	31.7	31.8	30.6	30.5	27.8	28.0	29.2	27.2
보 증	보험료	2,573	9,940	2,814	2,928	2,821	2,966	11,529	3,165
	성장률	-5.3	-13.0	16.1	25.1	8.4	15.3	16.0	12.5
	구성비	3.0	2.9	3.1	3.2	2.8	3.1	3.1	3.2
특 종	보험료	6,478	27,245	7,209	7,488	7,668	6,754	29,119	8,345
	성장률	10.3	9.0	9.5	11.3	2.8	4.3	6.9	15.8
	구성비	7.5	8.0	8.1	8.2	7.7	7.1	7.8	8.3
해 외 원보험	보험료	383	1,126	224	341	637	580	1,781	383
	성장률	108.7	36.8	16.9	34.2	113.9	51.3	58.4	71.1
	구성비	0.4	0.3	0.2	0.4	0.6	0.6	0.5	0.4
장 기	보험료	43,308	163,436	44,812	46,357	47,656	49,958	188,829	53,088
	성장률	16.8	19.5	16.1	16.3	14.4	15.2	15.5	18.3
	구성비	50.0	48.1	50.1	50.7	48.1	52.7	50.4	53.1
개 인 연 금	보험료	2,713	9,995	2,907	3,104	3,394	3,449	12,853	3,654
	성장률	27.0	25.3	28.3	30.0	29.1	27.1	28.6	25.7
	구성비	3.1	2.9	3.2	3.4	3.4	3.6	3.4	3.7
퇴 직 보 험	보험료	935	8,258	518	410	4,770	1,110	6,807	758
	성장률	-8.1	26.2	-32.4	-19.7	-21.1	18.7	-17.6	46.3
	구성비	1.1	2.4	0.6	0.4	4.8	1.2	1.8	0.8
퇴 직 연 금	보험료	536	2,133	756	389	1,238	939	3,322	534
	성장률	308.1	61.0	-32.4	-19.7	-1.5	75.1	55.7	-29.4
	구성비	0.6	0.6	0.8	0.4	1.2	1.0	0.9	0.5
계	보험료	86,658	339,818	89,550	91,512	99,218	94,674	374,954	100,038
	성장률	13.6	14.9	12.9	12.1	7.6	9.3	10.3	11.7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4/4	1/4	2/4	3/4	4/4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4.9	43.0	31.6	47.7	37.9	32.4
	사업비율	41.7	45.0	36.4	49.4	36.4	45.4
	합산비율	86.6	88.0	68.0	97.2	74.2	77.8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4.7	52.9	71.7	82.5	301.8	82.4
	사업비율	34.7	31.1	31.5	21.6	27.2	22.2
	합산비율	89.5	84.0	103.2	104.1	329.0	104.6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0.3	68.1	68.8	72.1	69.7	71.0
	사업비율	31.8	31.3	31.7	31.0	30.2	30.7
	합산비율	102.1	99.4	100.4	103.1	99.9	101.7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4.6	23.7	47.5	78.5	43.6	66.1
	사업비율	30.9	26.0	17.3	19.6	30.2	17.4
	합산비율	55.5	49.7	64.8	98.1	73.8	83.5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5.7	57.8	62.5	69.0	68.3	61.4
	사업비율	29.8	24.6	24.2	23.9	26.0	26.0
	합산비율	95.6	82.3	86.7	92.9	94.3	87.4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3.5	38.1	40.2	48.8	50.5	39.2
	사업비율	90.5	76.6	73.3	68.6	77.3	66.7
	합산비율	134.0	114.7	113.5	117.4	127.7	105.9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79.0	80.0	80.6	79.0	78.0	78.9
	사업비율	20.0	18.8	19.3	22.5	27.0	21.9
	합산비율	99.1	98.8	99.9	101.5	105.0	100.8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35.9	115.7	115.7	115.7	123.9	109.6
	사업비율	12.0	12.1	11.9	12.2	12.8	11.8
	합산비율	147.9	127.8	127.6	127.9	136.7	121.4
전 체	경과손해율	75.2	73.7	75.4	77.3	77.9	75.9
	사업비율	24.8	23.5	23.5	25.0	27.6	24.4
	합산비율	100.0	97.2	98.9	102.2	105.5	100.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분기별 실적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정책보고서

- 2006-1 200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팀 2006.12
- 2006-2 의료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배상보험에 대한 연구 / 차일권, 오승철 2006.12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2009.3 이경희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키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정기간행물

■ 계간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연3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보험금융연구 (년3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계간)	-보험동향 (계간 ₩ 20,000)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이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만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09년 가을호 (통권 51호)

발행일 2009년 10월 일

발행인 나 동 민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대화인쇄 /02-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7, 3775-90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